



4

주체 100 (2011)

문학예술출판사

원군은 내 삶의 길	24
수령형상의 격과 단편소설의 묘기	25
미곡벌의 녀인	28
언제나 평론창작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29
단천항의 배고동소리	30
집	31
경구, 격언	44
창성에 봄이 오니	45
성독령마루에서 (외1편)	45
창성의 봄산천	46
봄인줄만 알았더니...	47
황금산의 메아리	47
산촌의 매대앞에서	48
탄전의 꽃보라	49
선군경과 강성대국	50
우리 생활에 내결에	51
탄부의 량심	51
인연이 깊어가는 계절에	52
백두고원의 종달새	53
철산봉의 인차대기실에서	54
탄아 내 고백하노라	55
새로 온 지배인	56

유전자공학	66
근위부대 전사들의 삶의 흔적은	67
철갑상어	67
격 려	68
나는 병사출신 농민이다	77
의인소설 《국순전》에 대하여	77
나라와 인민, 향토의 귀중함	78
고골리와 중편소설 《따라스 불바》	79

4월의 빛

리명근

찬란하여라
성스러운 성지에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그 해돋이로 시작된
4월의 빛

무심히 볼수 없는
무한대한 빛발의 광원
무한대한 빛발의 열도
그것은 오직
태양에서만 시작되는
가장 강렬한 빛과 열

우리 수령님은
저 하늘의 태양이시여
막을수도
가리울수도 없는
4월의 빛은
태양의 빛

그 빛속에 이 땅은
해방의 서광도 맞았고
사회주의 노을도 맞았고
강성대국의 아침도 맞으려니

빛은 얼마나 환희로운가
땅도 하늘도 바다도
우리의 온 세상을

한빛으로 밝게 해준
태양의 빛이여

침략의 광풍도
그 빛이 막아주고

시련의 동토대도
그 빛이 녹여주며
이 땅의 먼먼 래일까지
아득히 뻗어간
4월의 빛

오, 천만심장에
천만가닥 그 빛이 와닿아
그 빛을 안고
인민이 산다
이 땅이 숨쉴다

4월의 빛이 있는
이 세월
4월의 빛이 있는
이 강산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태양의 빛발이 넘치는
우리의 세계
해빛밝은 이 조선

무궁한 세월끝까지
4월의 빛발이
꼭 차넘치는
주체의 나라
선군의 나라

아 수령님나라
우리의 조국
이 땅의 만경대와 더불어
4월의 빛은 영원하리라!
세월끝까지 세상끝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의 생애는 조선의 근대력사에서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중첩되던 1910년대로부터 시작되었다.》

《무변광대한 이 세계에서 가정이란 하나의 작은 물방울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방울도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를 떠나서는 존재할수가 없다. 조선을 망국의 비운속에 몰아 넣은 근대력사의 파도는 우리 가정에도 사정없이 쓸어 들였다. 하지만 우리 집안사람들은 그 위협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민족과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폭풍속에 아낌없이 몸을 내던지였다.》

수령님과 공민증

조영일

나라를 찾아주시고
찾아준 나라의 주인으로
인민모두를 내세워주신 수령님
그이께선 귀중히 지니고계시였어라
우리와 똑같은 공민의 증서를

생각도 깊어라
민주선거의 날 선거장에 나오시여
나도 해방된 조국의 공민의 한사람이니
인민의 대의원에게 투표하러 나왔다고
공민증을 펼쳐보이시며
찬성의 한표를 바치신 수령님

이렇듯
공민증에 실린 무게를
삼천리강토의 무게로 안으시고
공민증에 담긴 공민의 의무를
사랑과 헌신의 무게로 생각하시고
인민을 찾아 걸으신 길 하늘에 닿고
인민을 찾아가신 곳 강토가 된 내 조국

오직 그이의 마음속엔 인민뿐이어서
사랑과 헌신이 천품이 된 수령님
하여 우리 수령님을 위대한 공민이라
높이 받들어모시고
하여 수령님은 우리를
우리 인민이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거니

인민을 위한 길에 낮과 밤이 있었던가
발전소언제의 터전을 잡아주시려
험한 산밭 깊은 강도 넘으시고
간석지를 황금옥답으로 펼치시려
헤치신 비내린 배길은 얼마
맞으신 눈과 비는 또 얼마더냐

정녕 그이는 평범한 그러나 위대한 공민
인민의 새벽잠을 지켜 지새우신
찬서리 내리던 새벽마을 처마여 말하라
자신을 명예농장원으로 등록하시고
받으신 분배뭇에 어버이사랑을 더하여 안겨주신
원화땅의 들이여 트랙또르여 추녀높은 집이여

아, 우리 수령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가장 큰 공민의 의무로 안고 사시였기에
이 땅은 그이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조국이 되고
인민은 그이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민족이 되여
그이를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인민은 그이의 충직한 아들딸로 되었나니

아, 우리 수령님 지니신 공민의 증서
그것은 조국과 한생을 이어놓고 사신 애국의 증서
인민위해 자신을 다바치신
위대한 공민의 증서여라

전쟁이 끝난 이듬해 봄날에

변흥영

아직은 전쟁의 상처를
가시지 못한 땅
전승의 축포가 오른 하늘가에
북구의 힘찬 마치소리 메아리치던
전쟁이 끝난 그 이듬해 봄이었네

재가루를 털고 일어서는 조국
약동의 기상이 툭툭 내뿜치는
수도의 건설장을 지나시여
어느 한 농촌마을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

전쟁을 이긴 조선의 첫봄이
푸르려 설레는 전야
폭탄자리를 메우고 뿌린 씨앗이
파아랴게 움터자란 보리밭머리에
조용히 차를 세우시고
동트는 새벽 들길을 걷고계셨네

뒤늦게 소식 듣고 달려온 리의 일군들
전쟁의 3년세월 꿈결에도 그립던
아버이수령님을 뵈옵는 순간
북받치는 감격에 눈물을 쏟고야말았네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이토록 새벽일찍 벌에 나오셨습니까
아침 진지상도 못 받으셨겠는데...

격정에 목메여 말끝을 맺지 못하는
한 일군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이러지 말라고 산보삼아 나왔다고
우리 함께 봄씨봄일한 벌을 돌아보자고
수령님은 이슬젖은 밭이랑에 들어서시었네

전쟁의 무쇠철갑으로

가사

민주의 새 조선을 짓몽개려던
미제의 등허리를 꺾어버린 강철의 령장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봄이 약동하는 푸른 전야를 이윽도록 바라보셨네

이 벌에 관수는 어떻게 하는가고
조용히 물어도 보시고
멀지 않은 곳에 흐르는 대동강물을 끌어올려야
겠다고
양수장터전이며 물길 켤 자리도 잡아주신
아버이수령님

새벽 찬이슬이 옷자락에 젖어들고
걸음걸음 진흙이 신발에 묻어올라도
싱그러운 흙냄새에 하냥 취하신듯
멀리 가까이 갈아엎은 이랑들우에
정겨운 시선을 보내시며
청신한 아침 대기속을 걷고걸으시었네

이제 그 자옥따라 이 땅 이 벌에
관개의 푸른 물줄기가 굽이쳐오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세월이
소리치며 마주 달려오리니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더더욱 후덥게 젖어들었네

아아, 인민의 아버지 김일성동지
미제를 타승한 영웅의 땅우에
천만년 무궁할 락원의 봄을 가꾸시며
불타는 아침노을을 벌에서 맞으신
그날은 4월 15일이었네
만민의 축복넉친 그 하루마저
인민위해 바치신 뜻깊은 봄명절이었네

래양의 축복속에 우리 산다네

리광민

아담한 우리 마을 언덕길에는
래양의 모습으로 수령님 서계시네
학교가던 내 동생 찬비 맞을세라
승용차 태워보내고 기다리시던
축복받은 아침처럼 오늘도 서계시네

내 한생 못 잊을 그 언덕길에
래양의 모습으로 수령님 서계시네
발동소리 울리며 봄같이하던 밤

승용차의 불빛으로 어둠 밝혀주시던
축복받은 그밤처럼 오늘도 서계시네

낮이나 밤이나 우릴 못 잊어
래양의 모습으로 수령님 서계시네
노을비긴 황금벌 바라보시며
오늘밤 여기서 폭 쉬고싶다 하시던
축복받은 가을처럼 오늘도 서계시네

탄전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문동식

10년만 젊었어도
나도 여기 와서 탄을 캐고싶다고
탄부들과 허물없이 심정도 나누시며
협의회를 하시던 우리 수령님
해가 서산봉에 기울무렵에야
탄전의 구내길에 나서시었네

저탄장의 석탄더미 바라보시며
천천히 걸으시던 우리 수령님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보셨네
탄을 두고 뜨거운 진심을 토로하던
그 소박한 탄부들의 모습을

—머리도 수염도 더부룩했지
탄을 캐느라 얼마나 바빴으면...
이런 생각속에
마을앞을 지나시던 어버이수령님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네
《탄광리밭》이란 명판이 나붙은
아담한 집앞에

그이는
조용히 들어서시었네
순간 리발사처너는
새하얀 위생복앞자락을
두손으로 움켜쥐고 어쩔줄 모르고

했어도 우리 수령님
다정하신 음성으로 물으시었네
—일터는 그만하면 알뜰하게 꾸렸는데
어찌하여 손님은 한명도 없소?

얼굴이 붉어지는 귀여운 처녀는
머리를 숙이고 아뢰이셨네
—탄부들은 막장일이 바쁘다고
잘 오지 않습니다
이 말에 수령님 다시 물으셨네
여기에 리발사가 몇명이나 있는가고

둘이서 일한다는 처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시던 수령님
이렇게 나직이 말씀하시었네
—탄광은 크지만
리발관은 작고 리발사도 적고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니 탄부들이 안 오지
그러니 우리 여기에

평양의 창광원이 부럽지 않게
새 봉사건물을 크게 짓자구
...

어버이수령님 다녀가신 후
2층으로 솟아올라
명랑한 색깔로 조화를 이룬 집

문열고 들어서면
아름다운 색전등과 꽃분수가 반겨주고
목욕탕 리발실 미용실도 다 갖춘
여기에 리발사도 몇배나 늘었으니
탄부들이 정답게 부르는 은덕원

하루일 끝내고 찾아온 탄부들
뜨거운 정이 어린 녀인들의 손길에
어느새
밝고 시원한 미담이 되어
떠들썩 웃으며 문을 나서거니

그런 때면
수령님 고마움에 젖어드는 마음들
그이께서 문득 오실것만 같아
오시면 기뻐하실 그 모습 그리며
누구나 숨얼른 생각속에
은덕원의 꽃밭에 물도 주고
앞뜨락 길도 말끔히 쓸어놓고...

수령님 그리움만 불같이 안고사는
이런 뜨거운 탄부들이 없이야
석탄을 어떻게 생각할수 있으랴

리발사녀인들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갈수록
더 젊어보이는 탄부들 모습속에
수령님도 10년은 더 젊어지시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듯

기세충천했네 탄부들 누구나
그들처럼 탄광도 더 젊어져
막장마다 석탄폭포 세차게 쏟아지고
저탄장엔 검은금이 산처럼 쌓이고
무둑무둑 탄을 실은 꼬리긴 렬차들
기적높이 울리며 탄전을 떠나가고...

그렐수록

리발사치너는 더욱더 절감했네
탄부들에게 쬼음만을 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열화같은 사랑
아, 그 사랑이
석탄의 영원한 열과 빛이 되어

조국을 더 부강부흥하는
행복의 락원으로 꽃피주고있음을!

-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품만한 생활로 펼쳐야 한다.》
《작품에서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바탕으로**
하여 형상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기수로서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나뭇기라 백승의 군기여

권태여

저 멀리 만주의 광야
항일전의 총대우에
높이 휘날리던 그날의 붉은기
그 불타는 나뭇김이 어려오는 건군절

천리방선 전호가에
무적강군 펴력이는 군기에
수해천리를 흔들던 그날의 환호성
오늘도 강산을 흔드는 경축의 이 아침

—반들어총!
건군의 아버지 수령님 우러러
항일전의 첫 대오가 터치던 만세의 함성
세월을 넘어 메아리쳐오는가

혈전만리 수령님따라
백승의 행군로를 열어온 길에
위훈만을 펼쳐온 군기
천만강군의 총대우에 펴펴 날리어라

천하를 주름잡아 누비시며
조선혁명의 진로를 총대로 열어오신
절세의 영웅 강철의 명장
수령님따라 위훈 펼쳐온 군기

펼 펼 나뭇기라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함정굴 무덤속에 미제를 치박은
필승불패의 기치여

장군님따라 천만리
멸적의 성새우에 더 높이 휘날리며
결사옹위 맹세로 불타는
선군조선의 위용을 펼쳐가리라

수령님 안겨주신 백승의 총대우에
최고사령관기 펴펴 나뭇기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총대로 열어갈
철의 의지를 새겨안은
오, 4월 25일 건군절이여

하늘도 땅도 안긴 품

량원의

지구는 무겁다

내 숨없이 들어선 국제친선전람관
보고 또 보아도 끝이 없구나
세계 수많은 나라의 뜨거운 마음들
우리 수령님께 올린 선물
별무리처럼 많고 많아

눈앞에 황홀경을 이루었어도
눈으로는 다 헤아릴수 없어
마음의 두팔 벌려 한껏 안으니
하늘의 무게인가
땅의 무게인가
가늠 못할 아름다운 무게가 심장에 느껴지나니

오 인류의 태양 김일성동지!
그이를 못 잊어 오늘도
경모의 대하 굽이쳐드는 여기엔
진정 무한대로 실려있구나

경건히 우러르면
절세의 위인이신 수령님의 랍상
그이의 위대한 풍모를 떠받드는
굳은 반석은 억년토록 드놀지 않고

휘넓은 방과 방들을 돌아보면
그이 시대를 밝히고 이끌어오신 자욱
저마다 영원토록 칭송하려
하늘의 태양과 높고높은 탑들도
5대륙의 강하와 온갖 꽃들도
여기에 함께 자리잡았구나

눈부신 진귀품들 끝없이 발산하는
수천갈래 빛발의 한가닥에도
대기속에 흐르는 한줄기 향기에도
칭송과 지성이 어린
재일수 없는 무게가 실려있는듯

자주시대 정의로운 손과 손들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빛을 모아
온 행성을 무변광대한 흙모의 새 모습으로
가꾸고 다듬어 선물로 드린듯

수령님 거룩한 자욱의 무게로
이 땅은 무겁고
그 자욱 만대에 빛내가는
이 땅의 무게로
오 지구는 무겁구나

하늘의 별—운석

여기서 오세안주는 수록 몇만리
거기서도 멀고먼
바다 한끝까지는 또 얼마

끝끝내 찾아 선물로 드렸구나
오스트랄리아의 저명한 인사여
진렬장에서 은은한 빛을 뿜는
하늘의 별—운석!

그대 첫 방문길에 안고온 선물
차마 드리기 외람스러워

되돌아가 다시 마련하여
우리 수령님께 올린 희귀한 운석!

그대는 처음으로 여기서 보았구나
귀한것이면 간수했다 자식들에게 주는
이 세상 수억만 부모들의 마음 다 합쳐도
따를수 없고
그 어느 나라 령도자도 배푼적 없는 사랑의 세계

지니신 위대함과
그 매혹으로부터 받으신 5대륙의 지성품모두를

자신의것으로가 아니라 인민의것으로
세계의것으로 내놓으신 이 사랑의 세계

무한대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대는 심장을 바치고날과 달을 바쳤구나
김일성 주석이시야말로 인민에게
하늘의 별도 따다주실분이시라고
멀리 왔던 길 되돌아가

거울
수령님영상 모신
태양처럼 둥글고 맑은 거울

한평생
삶과 투쟁의 거울 되어오신
위대한 아버지의 눈빛이런가

밝고 다심한 그 눈빛앞에서처럼
자주의 억센 신념과 순결한 량심없인
뗏목이 마주볼수 없는 거울이여라

하물며 자기 힘보다 남을 쳐다보는 얼굴
제 났을 버린 남의 얼굴로야
어찌 순간인들 마주볼수 있으랴

그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빛으로
반제자주의 숨결 높뛰는 가슴에

억만파도밑에서 찾아드린 하늘의 별이여

이슬방울에 우주가 비끼듯
저 운석에 비껴있구나
위대한 그 사랑에 경탄한 온 세계가
태양을 우러러 끝없이 설레는 대양처럼
넓고도 깊은 인류의 충정의 세계가
영원불변토록 비껴있구나

거울

티 한점 앓을세라 환히 비쳐주거니

시련에 부닥치면 주저앓을세라
붉은기 끝까지 높이 들게 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가꿔주는 거울

누구나 마음속에 두고 비쳐볼수록
희망의 봄언덕에 설 인간의 모양대로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해주는 거울

사람마다 심중에 간직하며 말을 하여라
반제자주 투쟁의 거울도 우리 수령님
인간해방 사랑의 거울도 우리 수령님

진정 우리 수령님은 만민의 거울이시라고
인류의 정의와 량심이 드린
태양처럼 귀중하고 맑은 거울이여라

위대한 품

방마다 돌아보며 생각할수록
이 세상 그 어디서나 올리고 또 올린
진귀한 모든 선물들
한없이 따뜻한 품에 안겨져있다

희박은 벽면과 벽면
우리 수령님 못 잊어하시던
친근한 벗들의 모습도
사회주의붉은기와 함께 내리워진
로동계급 수령의 초상화도 그 품에

받들며 따르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지성뿐이라
사상이 다르고 정견이 다른 인사들의 흠모의 정도
후더운 정숙에 잠긴 진렬장들에
축기와 축문, 공예품도 그 품에

매 인간의 삶에만 아니라
그들의 창조물에도 안아주고 지켜주는
미더운 품이 있어야 함을
가슴뜨겁게 새겨주는 여기

지금 이 시각에도
미제의 총포탄에 재로 불타는
도시의 주민들이여 락심하지 말라
그대들의 넋이 깃든 독립기념관포형이
여기에 있나니

제국주의의 강권과 분쟁으로 불타고
락엽처럼 흩어지는 민족들이여
절망에 찬 눈물만 뿌리지 말라
그대들의 옛 넋이 숨쉬는 장검들도
그대들의 정든 거리와 마을을 되찾을 손금같은
지도들도

그대들의 풍속까지도 모두 되살릴
고대의 장서들도 정히 지켜주는 품이 있다

언어와 피부색, 나라는 서로 달라도
한마음으로 도시의 열쇠를 맡기는 품
메카의 순례자들도 노래하는 그 품
온 인류가 운명을 맡기고
무궁한 미래를 개척해나갈 위대한 그 품

그품이 이 땅에 있다
아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다

백두산의 216 봉우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시적하시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입니
다.》**

사시장철 흰눈을 이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
은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든 혁
명의 성산이며 내 나라의 지맥이 시작되는 조종
의 산이다.

아득히 먼 지질시대에 형성된 백두산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각이한 자연현상에 의하여 오늘과
같은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산악미를 갖추게 되었
다.

백두산에는 장군봉과 향도봉, 해발봉을 주봉으
로 하여 기기묘묘한 봉우리들이 천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높이 솟아있다.

백두산은 독특하고도 신비한 자연경관을 가지
고있어 오래전부터 명산중의 명산으로 세상에 널
리 알려졌다. 하여 수많은 유명무명의 지리학자,
등산가들이 백두산에 올랐다. 하지만 백두산의 봉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은 밝혀내지
못하였다. 다만 1908년에 한 등산가가 백두산에
올라 봉우리들을 조사하고 백두련봉의 기본봉우
리가 16개라는것을 밝히였다.

백두산의 기본봉우리가 16개라는것이 밝혀진
이후 근 한세기가 흘러간 1990년대말부터 우리
과학자들은 백두산의 봉우리들에 대한 세부조사
측량을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상대높이가 20m
이상인 봉우리수가 신통히도 216개라는것을 밝혀
였다.

천지 한가운데서 백두의 련봉들을 둘러보면 백
두산의 3대봉인 장군봉, 향도봉, 해발봉이 한눈에
안겨오고 상대높이가 20m 이상 되는 216개의 기

묘한 봉우리들이 키돋움하며 솟아있어 더더욱 신
비롭다.

백두산의 최고봉인 장군봉과 함께 14개의 봉우
리가 솟아있고 향도봉, 해발봉과 함께 각각 15개
의 봉우리가 장군을 웅위하는 근위병들마냥 솟아
있다.

장군봉에서 천지쪽으로 뻗어내린 줄기를 타고
솟아있는 비루봉과 함께 40개의 높고낮은 봉우리
들이 만물상을 이루고있고 장군봉의 북서쪽 맞은
편에 있는 차일봉주위에는 11개, 흰바위로 이루
어졌다는 백암봉과 함께 33개, 흰구름이 자주 깃
다는 백운봉과 함께 26개, 푸른 바위절벽으로 이
루어진 청석봉주위에는 10개, 락원봉과 함께 20
개의 봉우리들이 총검마냥 장쾌하게 치솟아있다.

그리고 백두산의 고유한 계절새인 고산제비가
많이 모여든다는 제비봉주위에 3개, 단결봉과 함
께 5개, 쌍무지개가 자주 비낀다는 쌍무지개봉주
위에는 12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다.

백두산의 216봉우리, 이것을 어찌 자연의 조화
로만 볼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사람들은 백두산에서 큰 장수가 난다
고 하였으니 아마도 주체31(1942)년 2월 16일
력사의 그날 천출위인의 탄생을 예고하며 하늘에
서도 봄우뢰가 울고 백두산 216봉우리도 환희에
태동하였을것이다.

신비경의 절정을 이루며 솟아있는 백두산의
216봉우리는 바라볼수록 진정 **김정일**장군님은 백
두산이 낳은 절세의 위인이시며 천출명장이시라
는것을 천만군민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고
있다.

백두산의 216봉우리는 앞으로도 불세출의 선군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길이 전해가며 영
원토록 솟아있을것이다.

항일혁명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발전시키신 문학

서재경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태어난 항일혁명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문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수령님의 문예사상과 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본보기로 하여 발전하여온 문학예술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문학예술을 혁명투쟁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보시고 그 창조와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 문예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친히 혁명연극과 혁명가극, 혁명가요들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어 주체적인 혁명적 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었다.

항일혁명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창조발전된 문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은 인류 문예사상사의 가장 높은 단계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상리론이며 자주시대의 민족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과학적해명을 주는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엇보다먼저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었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이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서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하자면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인민대중이 잘 알수 있는 민족적형식에 옹게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항일혁명문학에는 종래의 문학과 달리 인민대

중을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내세우고 사회발전과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높은 경지에서 그려지고있으며 철두철미 조선혁명에 복무하며 조선혁명을 위한 내용으로 충만되어있다. 또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살리고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와 비위에 맞으며 혁명적이면서도 통속적이고 전투적이면서도 군중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일관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음으로 항일혁명문학을 창조발전시키는데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문학에 항일혁명투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제기되는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적극 반영하며 주체적인 혁명사상과 로선과 배치되는 사소한 이색적인 경향도 철저히 배격할데 대한 문제 등 당성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문학이 광범한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민족적 및 계급적 원수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문학이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복무하고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인민대중이 좋아하는 형식을 통하여 그들의 구미에 맞게 알기 쉬운 말로 표현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항일혁명문학을 철두철미 혁명의 리익과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적극 반영하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문학으로 될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문학을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가진 혁명적문학으로 창조하도록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문학이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써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철저히 복무하기 위하여서는 천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거대한 사

상미학적힘,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과 이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문학의 본도로, 기본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생활과 투쟁을 그리는데서 그것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음으로 항일혁명문학을 대중의 집체적인 힘에 의거하여 창조발전시킬데 대한 사상과 이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항일혁명대오안에 전문적인 작가, 예술인들이 따로 없었던 조건에서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하는 유일한 길은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적극 발동시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현실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항일혁명문학을 대중의 집체적힘과 창조적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창조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은 항일혁명문학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자주시대 문학발전의 새 시원을 열어놓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항일혁명문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발전시키신 문학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문학창작에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조할데 대한 혁명적문예사상과 이론을 밝히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으며 몸소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시던 시기에 조국과 고향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애착, 조국에 대한 크나큰 자랑과 조국해방의 새날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반영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 《사향가》를 비롯한 혁명가요들과 력사의 교훈을 통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참된 길과 사람은 알아야 자주적인간으로 존엄있게 살수 있다는 심오한 사상, 사람은 없는 미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힘을 믿어야 한다는 진리,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악랄성과 반동적본질을 폭로하고 투쟁에로의 길을 밝힌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3인1당》, 《성황당》, 《딸에게서 온 편지》, 《혈분만국회》, 《지주와 머슴군》 등을 비롯한 혁명연극들과 나라잃고 수난당하는 민족과 자기자신을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하는

길밖에 없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힌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창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친필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인 시가의 전투적기능을 깊이 헤아리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인민혁명군》, 《반일전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를 비롯한 혁명가요들을 창작하시여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력사적현실을 반영하여 무기탈취와 무장대오의 확대강화, 항일유격대의 불패의 위용을 반영하고 일제의 멸망을 보여주고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의 원리를 깨닫고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투쟁의 길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호소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 단원의 운명》, 《아버지는 이겼다》 《승냥이》, 《경축대회》를 비롯한 혁명연극들을 창작하시였다. 이 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항일혁명문학에서 핵을 이루고있으며 인민대중을 혁명화하고 항일대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여 항일혁명문학의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우리 혁명문학예술의 정수이며 주체문학예술의 대를 끊임없이 이어주는 영원한 생명선, 력사적뿌리로 되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였을뿐만아니라 혁명적문학창조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항일혁명문학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시가들과 연극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항일혁명문학예술작품의 하나하나에는 우리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뜨겁게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문학의 창조사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인 창조체계와 창조방법, 전투적인 창조기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주시였다.

항일혁명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항일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이바지하는 새형의 문학으로 창조발전될수 있었으며 주체문학의 시원으로, 력사적뿌리로 될수 있었다.

실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항일혁명문학을 창

조발전시키시어 주체문학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에게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강위력한 사상적무기를 안겨주신 혁명의 수령이시며 가장 걸출한 문학의 영재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으로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이더욱 심화발전되고 혁명소설과 혁명영화, 《피바다》식가극과 《성황당》식연극이 태어나 주체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이 확고히 계승발전되게 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긴 혁명소설, 혁명영화의 출현과 《피바다》식가극, 《성황당》식연극의 탄생은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핵이며 주체문학예술의 대를 끊임없이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선인 항일혁명문학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문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며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의 주체문학, 선군문학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

승자와 패자의 차이에 대하여 옛 병서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략발한다.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받기 위하여 죄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며 패자는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승자는 실수하였을 때 내가 잘못하였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너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한다.

승자는 입에 솔직함이 가득하고 패자는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수 있고 패자는 로인에게도 고개를 못 숙인다.

승자는 엎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일어나 뒤를 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패감을 알며 패자는 넘어지면 재수를 한탄한다.

승자는 하루가 25시간이고 패자는 하루가 23

시간이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며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구름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눈을 밝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독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실패를 거울로 삼으며 패자는 성공도 휴지로 삼는다.

승자는 돈을 다스리고 패자는 돈에 지배된다.

승자의 주머니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땀을 밟고 패자는 요행을 믿는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일곱번 쓰러지면 여덟번 일어서고 패자는 일곱번을 날날이 후회한다.

승자는 달려가며 계산하고 패자는 출발하기도 전에 계산부터 한다.

막게 개인 하늘



석남진

1

집무실에서 한 소박한 로동청년의 편지를 읽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안에는 즐거운 미소가 어리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났던 청년이었다. 공장에서 일 잘하는 혁신자인데 사랑하는 처녀가 곁을 주지 않아 고민하고있었다. 처녀가 이제 청년을 이해할 때가 꼭 올것이라고 고무해주시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자신께 편지를 하라고 했었는데 마침내 처녀와 사랑을 맺었고 인차 결혼식을 한다는 편지를 보내온것이였다.

(생활이란 그렇게 흐르기 마련이지. 일 잘하는 총각인데 여부가 있을라구.)

수령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태양은 이미 서쪽으로 사라졌으나 그는부신 잔광을 받아 희속하니 타래치던 구름들이 금빛, 감빛, 피빛으로 조화롭게 채색되면서 점차 장엄하게 타번지기 시작했다. 열정적으로 타번지는 노을속에서 그 어떤 희망찬 약속이 숨배인 노래소리가 울리는듯싶었다.

(행복한 가정이 태어나게 되였군. 좋은 일이지. ... 그런데 최응진은... 그동무 문제는...)

수령님께서 반시간전에 보시였던 최응진과 관련된 문건내용을 상기해보시였다.

(아직은... 아직은 우리의 투쟁과 생활이 어렵고 또 간고한 시련을 동반하고있다.)

문제의 문건에는 군의학교 교장인 최응진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급직원썩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우리 국가기구의 요직에 틀고앉아 쏘라닥거리다가 정체가 드러난 반혁명분자가 있었는데 최응진이 남조선에 있을 때부터 그와 결탁되어있었다는것이였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의분을 느끼시며 생각하시였다.

그이께서 최응진에 대해 알게 되신것은 해방후 그의 동생 최창진의 이야기를 통해서였다. 그 당시 최창진은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에서 보건부장을 하고있었는데 새 민주조선건설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정치의 중요사업으로 내세우신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한 서른살의 의학청년이었다.

새 조선에서 인민보건을 창설하여야 한다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자마자 즉시 평양의 병원과 약국들을 《인민》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붙여 부르게 하고 간판도 바꾸게 한 기백있는 청년, 당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이였던 조만식이 피대를 돈구며 당장 《인민》자를 떼지 않으면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큰소리치자 우리 보건에 《인민》자를 붙이는것은 김일성장군님의 뜻이니 그 누구도 가타부타할것이 없다고 당당히 맞서싸운 배짱이 있는 지식청년인 최창진을 수령님께서서는 못내 대견해하시며 자주 그를 부르시여 보건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곤 하시였다. 이러한 여가시간에 창진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창진은 평양의 빈농가정에서 태어나 평양의전을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고학으로 외과공부를 계속한 학구적인 청년인데 그에게는 중학시절부터 수재로 소문난 형이 있었다. 형 응진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고학을 하며 도쿄제국대학 의학부를 나와 스물아홉살에 벌써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일제놈들은 응진이 당당한 의학자였지만 그가 조선사람이라는 한가지 이유로 하여 맞춤형 일자리도 주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식민지노예의

설음을 체험하며 민족적의분과 반항의 정신을 키워온 응진은 제일조선인학생들과 지식인들속에서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하여 그들을 각성시키는 투쟁을 벌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요꼬하마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직 전에야 겨우 풀려나올수가 있었다. 그후 그는 서울에 가서 숨어살다가 해방이 되자 서울대학 의학부 교수로 활동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최창진의 말을 들으며 그의 형 최응진이 평양에 오면 새 조선건설을 위해 많은 일을 할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응진을 따듯이 품에 안으시여 그가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 부학부장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부속병원 원장으로, 보건련맹 위원장으로 사업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최응진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초기에는 조선인민군 후방병원 원장을 했고 1951년 봄부터는 군의국의 일군으로 활동하였다.

이런 사람이 실상은 자기 본색은 감추고 위선적인 행위를 했다는것인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수령님께서는 지금 문건을 제출한 민족보위성장령 리성옥을 기다리고계시였다. 아무래도 리해가 되지 않아 서기에게 그를 부르도록 하시였던 것이다.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답답해나시여 창문을 여시였다.

누기가 느껴지는 푸근한 봄바람이 불어들어왔다. 무성한 정원수들이 설레이는 소리, 새들이 깃을 찾으며 우짖는 소리가 활기롭게 들려왔다. 그이께서는 약동하는 자연의 환희로운 속삭임속에서 공장과 농촌을 현지도하시면서 받아안으시였던 벽찬 희망과 믿음을 되새겨보시였다.

지금 온 나라 공장들에선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봄씨불임에 떨쳐나선 조합들에선 협동경리의 우월성이 높이 발휘되고있었다. 강선에서 천리마가 날아올라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이제 온 나라가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는셈이다.

제1차 5개년계획의 두번째 해... 희망에 가슴부푸는 해라고 할수 있다. 이제 5개년계획을 완수하면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될것이다.

전쟁후 몇년어간에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룩

하리라고 세계의 어느 누가 상상할수 있었던가. 미제놈들은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이 땅을 재더미로 만들어놓고 조선은 백년이 가도 다시 일떠설수 없을것이라고 하였댜지.

지난 역사를 굽어보고 현재를 헤아리며 그리고 래일을 그려보며 자신도 모르게 엄숙해지는 심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서시였다.

체격이 다부지고 머리칼을 짧게 깎은, 어쩐지 온몸에서 단호한 성미가 엿보이는듯싶은 리성옥장령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문제의 문건을 내보이시며 물으시였다.

《동무가 지나치게 덤비는것은 아니요?》

리성옥의 살갓이 거친 얼굴에 피로운 표정이 어리였다.

《저는 일단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해명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혐의가 걸린 사람에게 중요한 수술을 맡길수는 없다고 보았기에...》

리성옥이 최응진의 문제를 서둘러 제기하는데는 제나름의 모대김이 있다고 볼수 있었다. 얼마전에 인민무력부문의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김영준이 암진단을 받았는데 권위있는 의사들의 협의회에서는 시급히 위절제수술을 해야 한다는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김영준의 수술집도자로 선정된것이 군의학교 교장이면서 공인된 외과의사이기도 한 최응진이였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리성옥이 못지 않게 김영준의 병치료에 관심을 돌리고계셨다. 김영준은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 조국해방전쟁의 불바다를 헤치며 고락을 함께 한 충실한 혁명동지로서 수령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몸의 한부분처럼 여기시였다. 그가 난치의 병에 걸렸다는것을 아시였을 때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잠도 못이루시였던것이다.

《그래서 동무는 김영준동무의 수술집도자를 교체해야 한다는거지?》

수령님께서는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렇습니다. 의료부문에 최응진을 대신할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물론 있겠지.》

수령님의 눈앞에는 문득 보건성 부상인 최창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최응진의 동생인 그가 이 사

실을 안다면 그 타격이 오죽이나 클것인가.

《최창진동무가 이에 대해 알고있소?》

《실은 수술집도자교체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최창진동무입니다.》

《뭐라구?》

수령님께서도 저도 모르게 놀라시며 리성옥의 얼굴을 바라보시었다.

2

어스름이 내려앉은 거리로 양복차림의 중년사나이가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걸어가고있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걸을 스쳐지나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고민과 의혹에 빠져 그냥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겨놓을뿐이었다. 이따금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의 전조등빛에 그의 허우대 큰 자태와 정신적고통을 이기느라 이그러진 얼굴이 비쳐지곤 한다. 보건성 부상 최창진이었다.

이틀전 최창진은 사업차로 병원에 갔다가 김영준의 병상태를 알아보러 왔던 리성옥장령을 만나게 되었다. 자연히 그들은 김영준의 병치료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성옥은 해방후에 창진에게서 치료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그들은 허물없는 사이로 되었다. 그런데 성옥은 김영준의 수술을 말아하게 된 최응진에 대한 말이 나오자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지고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꼭 다무는것이였다. 창진은 무엇인가 이상한 감촉을 받고 가슴이 두근거리었다.

《형에게서 무슨 일이 생긴게 아십니까?》

성옥은 대답을 피하다가 창진이 거듭 캐묻자 다시금 한숨을 내쉬면서 힘들게 입을 열었다.

《창진동무, 마음을 굳게 먹소. 우리야 혁명을 위해 그 어떤 모진 불행도 이겨낼 각오를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요.》

리성옥은 혁명의 원수로 적발체포된자가 최응진이 원래부터 자기와 한해였다고 진술하고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자는 창진은 물론 성옥이도 잘 아는 놈이였다. 늘 호인다운 웃음을 짓고 저으기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고 혁명적인 웅변으로 군중을 끝날 현혹케 했던것으로 그자의 배속에 검은 흉심이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할수 없었다.

《천길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알수 없습니다.》

하고 리성옥은 자기의 말을 끝맺었다.

《이건 엄청난 모함입니다.》

창진은 계급적원쑤에 대한 증오와 격분으로 몸을 떨면서 부르짖었다.

《그럴수도 있지요.》

갑자기 온몸을 압박하는것만 같은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창진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대를 갑에서 끄집어내어 피워물었다. 그는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어디론가 달아나려는 리성을 붙들었다.

《문제가 이렇게 쏘은즉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창진이 물었는데 컴컴한 얼굴의 리성옥은 대답이 없이 입귀를 실룩거리었다. 창진에게는 그가 그 어떤 모진 말이 튀어나올가싶어 입을 앙다무는것처럼 느껴졌다.

무서운 의혹과 싸우는 속에서 최창진은 보건일군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감을 자각하였다.

《할수 없지요. 김영준동지의 수술집도자를 다른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합시다.》

창진은 땅이 꺼지는듯 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고민은 어언간에 창진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있었다. 그는 모대김끝에 지금 형 응진을 찾아가는 길이다.

(형님이 적들과 결탁되었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걸음을 옮기었다.

일제시기 자기에게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이에 대한 흠모심을 감추지 못하던 형님,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무장투쟁에 참가하겠다고 중국 동북으로 갈 준비를 하다가 왜놈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한 형님, 해방후 남조선에 있을 때 장군님께서 서울로 개선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꽃다발을 안고 서울역에서 그이를 기다리며 하루해를 지웠다는 형님,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수령님을 따른 형님이였다.

(그처럼 우리 수령님을 따른 형님이 과연...)

창진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어느덧 동평양에 위치하고있는 형의 단층집에 다달은 창진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불빛이 밝은 창가에서 온 가족의 단란한 공기가 새어나오고있었다. 이윽고 어린 조카애의 랑랑한 노래소리

가 울려나왔다. 박수소리와 웃음소리... 창진은 여러 색깔의 웃음소리속에서 귀에 익은 형의 웅근 웃음소리를 똑똑히 가려들을수 있었다. 창밖으로 뿔어져나오는것만 같은 한가정의 행복상을 감수하면서 창진은 온몸이 굳어져서 그 자리에 서고만있었다.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있다. 내 이제 집안에 들어가 무슨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창진은 형에게 죄스러움을 느끼었다. 그는 형이 김영준의 수술을 그 누구보다도 잘해낼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어쩌는수가 없지 않는가.

정치적문제앞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만약 형이 벌어진 사태를 안다면...)

창진은 마치 차디찬 얼음덩어리가 가슴에 박힌것처럼 온몸이 떨리었다.

그는 형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을 용기가 정녕 자기에게는 없음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김영준 동지의 수술이 인차 있을것이니 곧 알게 되겠지. 그때는 그 어떤 적당한 구실을 찾아내어 좋게 변명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창진은 형을 만나서 태연히 행동할 마음의 여유가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몸을 돌려 형의 집앞을 뚫다. 그는 경황없이 걸음을 옮기었다.

음침하게 흐린 하늘에서 먹장구름들이 뭉게뭉게 타래치고있었다. 그 구름장들이 마치 자기나 형의 운명을 어둠의 나라에 휩쓸어버리려고 서둘러대는것처럼 창진에게는 느껴졌다.

3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어둠속을 달리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몸소 병원에 가서 김영준을 병문안하시고 돌아오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영준의 병치료에 대하여 신심을 가지시였다. 우선 환자가 락관적이였고 다음으로 우리의 의사들에 대한 믿음이 컸던것이였다. 위암이란게 초기에 수술을 잘하면 일없다고 하지 않는가.

마치 별무리들이 내려앉은듯 집집의 창문마다에서 내비치는 불빛들이 차창가에 어려들었다. 그 수많은 불빛들을 바라보느라니 어쩐지 한시름이 덜리는것만 같으시였다. 이젠 조선의 수도가 전쟁의 재를 털어버리었다. 몇년전까지 보이던 반토굴집들은 종적을 감추었고 지금 평양의 중심거리엔 다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기 시작한다. 몇

년후이면 더욱더 몰라보게 될것이다.

차창을 열어놓으니 소연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 물소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힘쓰는 소리가 섞여 울려왔다. 수령님께서 승용차에서 내리시였다. 좀 걸어가시니 습습한 물비린내가 상쾌하게 풍겨온다. 대동강이 눈앞에서 흘러가고있었다. 강기슭에는 안개가 구름인양 뽕얇게 피여오르고있다. 대동강은 안개발에 묻히어버렸고 다만 세찬 물소리와 청신한 물비린내로 풍만한 강의 흐름을 짐작할수가 있을뿐이였다. 수령님께서 강쪽으로 바투 다가가시였다. 강웃쪽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분명히 강호안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아직 일하고있는 모양이다.

그이께서는 안개속에 흘러가는 강물을 그려보며 잠시 그 자리에 서계시였다. 이 대동강과 더불어 흘러간 자신의 어린시절이 떠오르시였다. 만경봉에서 내려다보던 대동강, 질푸른 버들숲사이로 해빛에 반짝반짝 금빛, 은빛을 발산하며 흐르던 강물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웠던가. 동무들과 함께 한달음에 달려내려와 따뜻한 강물속에 몸을 던지고 마음껏 물장구를 치기도 하였댔지. 그러나 대동강이 결코 유쾌한 추억만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아니였다. 평양감옥에 갇힌 아버님을 면회하고 돌아오던 길에 어머님과 함께 이 강기슭에서 다리섬을 하던 때의 일이 생각나시였다. 음산하게 흐리고 쌀쌀하게 저녁바람이 부는데 가까이에서 왜놈군대병영을 짓는 광경이 바라보이였었다. 경찰놈들이 죄수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고역에 몰아대고있었다. 욕질소리, 비명소리가 엇섞여 대동강반에 울스산한 소리가 넘쳐흐르는것만 같았다. 그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중손아, 네가 어서 커서 왜놈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여기에 조선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세워야 한다. 저 대동강물에 웃음과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어머님의 말씀은 이 대동강만 보면 새삼스레 떠오르곤 한다. 그것은 이 강변우에,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이 꽃피나기를 바라는 어머님의 념원이였다.

그이의 눈앞에는 최응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키가 크고 몸집이 우람한 사나이.

학자라기보다는 씨름군같은 체격을 가졌는데 둥실한 얼굴에서 성실함과 지성미가 내비치는 사람이였다.

《장군님, 온 민족이 장군님만 바라보며 시련을 이겨내고있습니다. 제발 과로를 삼가해주시요.》

눈앞에 우렁이 떠오르는 최응진의 모습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간절히 아뢰이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였다. 잊을수 없는 추억이 되새겨지는것이였다.

전쟁이 마감고비에 이르렀던 1953년 봄, 그때 최응진은 조선인민군 군의국 일군으로 사업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그 시기 전쟁승리를 위해 불면불휴의 나날을 보내시였다. 미제는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쟁을 계속해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었다. 전선형편이 긴장한데다 불순분자들도 준동하고있었다. 이런 속에서 그이께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승리한 후 인민경제를 복구건설할 설계도를 구상하고 벌써 그에 대한 조직사업을 전개해나가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하루도 편히 휴식할수 없으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지시고 긴장한 전투를 계속하신탓에 그이께서는 고열까지 나게 되시였다. 그러자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는 일군들속에서 그이를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외국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시게 하면서 건강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계속해나가시였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간고한 전쟁을 겪는 조국땅을 떠날수 없다는 각오와 의지가 그이의 온몸을 불태우고있었다.

어느날 깊은 밤 최고사령부의 집무실에서 전후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실 사색을 무르익히고 계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머리를 드시였다. 부관과 함께 최응진이 방에 들어와있었다.

《무슨 일입니까?》하고 그이께서는 물으시였다.

응진의 얼굴은 금시 울음이라도 터뜨릴듯 괴롭게 이그러졌는데 두툼한 입술이 푸들푸들 떨다가 겨우 열리였다.

《장군님, 이제 밤도 펴 깊었는데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애타는 하소였고 간절한 청원이였다.

《몸이 강철이라도 이런 상태로는 견디지 못합니다. 제 의사로서 말씀드리건대...》

《알겠습니다, 응진동무가 무슨 말을 하자는것인지 다 알만 합니다.》수령님께서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며 말씀하시였다.

물론 자신의 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응진이 처음이 아니였고 또 지금에 와선 외국치료까지 권고받고 계시는 수령님이시건만 이밤 느닷없이 방에 들어와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해하는 그의 청원은 왜서인지 그이를 감동시키는 것이였다.

《어서 들어와앉으시오. 우리 이야기나 합시다.》그이께서는 응진을 곁으로 부르시였다.

열어놓은 공기창을 통해 소쩍새울음소리가 구성지게 들려왔다.

소쩍, 소쩍...

마치 소쩍새도 응진의 간절한 심정을 대변하여 그이께 휴식치료를 간청하는듯 하였다. 소쩍새의 울음을 유정하게 들으며 그이께서는 응진에게 말씀하시였다.

《동무가 의사이니 뭐 숨길것도 없지요. 사실 나는 요새 몸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병치료에만 몸을 내맡길수 있겠습니까. 그럴수 없지요.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요 몇달 사이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조선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초석을 닦기 위한 사업도 해야 하고 전후 인민경제의 복구건설설계도를 작성하는 일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래 응진동무도 나를 외국에 치료받으러 가야 한다는 일부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합니까?》

어느 사이엔가 응진의 두눈에는 눈물이 그렇하니 고여오르고있었다. 장대한 사나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노라니 수령님께서는 이상하게 감정이 어려워지는듯싶으시였다.

방안은 고요하였다. 창밖에선 소쩍새가 간절하게 울어댄다. 썩—바람이 불며 나무들이 설레이고 있었다.

《장군님.》하고 응진은 격정에 넘친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지금 장군님의 건강에 탈이 온것은 과로때문입니다. 외국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휴식이 요구됩니다.》

응진은 고개를 숙이고 괴롭게 숨을 몰아쉬더니 간절한 눈길로 그이를 우러르며 간청하였다.

《지금 온 민족이 장군님만 바라보며 시련을 이겨내고있습니다. 제발 이제 좀 쉬어주시요.》

수령님께서는 외국치료를 받지 않아도 조국에서 건강을 회복할수 있다는 응진의 말이 자신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여겨지면서 가슴이 후터워지시였다.

《응진동무, 내 동무의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소쩍새가 절절하게 울고 싱그러운 풀향기가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

전쟁이 끝난지도 5년, 평화적건설의 열풍이 휩쓰는 이 대동강가에서 조국해방전쟁이 마감고비에 이르렀던 그밤의 일을 머리속에 떠올리시며 수령님께서는 가슴에 저릿한 아픔을 느끼시였다.

밤안개는 자욱하게 뭉게치며 그이의 옷자락을 어루쓸고있었다. 대동강이 흐르는 소리는 웅글면서 거창하게 느껴진다. 첨병, 물고기가 뛰는 소리가 정겨웁게 들려온다. 가까운 옷쪽에선 호안공사를 다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린다.

《동무들, 빨리 다그치자구. 오늘중으로 이 구간을 끝내야 한단 말이요.》 《다그치세.》 여러 사람들이 호응하는 목소리.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가며 생각을 계속하시였다.

(사람이 아무리 가면을 쓴대도 그처럼 진정을 흉내낼수는 없을것이다.)

리성옥이 한 말이 머리속에 되새겨지시였다.

《저는 일단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해명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혐의가 걸린 사람에게 중요한 수술을 맡길수는 없다고 보았기에...》

(리성옥의 말인즉 결국 정치적립장에서는 철저해야 한다는 소리와의도 같지. 어쩔수 없는 요구라는거지. 그러니 이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친동생까지도 형을 수술에서 제외시키자고 제기했다니까...)

수령님께서는 마치 가슴속에 안개가 들어찬듯한감을 느끼며 걸음을 옮겨가시였다.

4

창진은 집으로 가지 않고 보건성청사로 갔다. 그는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고뇌를 엿보이고싶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줄곧 담배만 피워댔다. 그럴수록 가슴은 더욱더 울적해진다. 창문을 열려고 다가가다가 바닥에 놓여있는 제라니움화

분에 눈길이 갔다. 화분을 손질하고 창턱에 올려놓는다는것을 며칠동안이나 잊어버렸다는것을 알았다. 제라니움은 벌써 볼품없이 시들기 시작한다. 그는 식물에게 주는 태양빛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체험하는것만 같았다. 그는 화분을 들어서 창턱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밖에는 아직도 어둠이 한치알도 분간할수 없을 정도로 뻥뻥이 서려있었다.

창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니 여전히 구름장들이 이리저리 밀려다니고있었다.

창진은 금시 숨이 막히는것처럼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쩐지 밝은 태양의 빛이 그리웠다.

다음순간 그는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혁명은 억세게 전진하고있다. 력사의 수레바퀴는 힘차게 굴러간다. 이속에 한 의학자의 운명이 대체 무엇이겠는가.)

그는 비장한 심정으로 적십자병원의 한 외과의사를 머리속에 떠올렸다. 형 응진을 대신하여 능숙하게 김영준의 수술을 해낼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의사였다.

창진의 두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였다.

5

《수상님께서 오셨다!》

대동강호안공사장에는 한바탕 선풍이 불어친듯했다. 장식작업을 하던 건설자들이 수령님주위에 모여들었다. 수령님께서는 허물없이 그들과 함께 막돌을 깔고앉으시여 담화를 하시였다. 날랜 젊은 이들은 잠간사이에 수령님앞에 모닥불을 피워놓았다. 모닥불이 활활 타며 수령님을 둘러싸고 모여앉은 건설자들의 행복감에 물든 얼굴들을 환히 비치여주었다.

《모두 알만 한 동무들이구만.》

수령님께서는 건설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며 기쁨의 미소를 띠우시였다.

건설자들은 뜻밖에도 작년에 만나보신적이 있는 송도정치경제대학 학생들이였다. 지금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대성산유원지건설과 대동강호안공사같은 평양시건설에 참가하고있었다. 얼마전에 대성산유원지건설장에 가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만나보신 수령님이시였지만 오늘 송도정치경제대학 학생들을 만나신 그이의 가슴은 류달리 뜨겁게 젖어올랐다.

수령님께서는 부모형제들을 모두 남조선에 두고있는 그들의 외로운 처지를 생각하여 언제나 그들에게 각별히 마음을 쓰시였다. 작년 8월 그

들이 제1기졸업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수령님께서 부모들의 축하를 받지 못하고 서운해할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몸소 학부형대표가 되시어 졸업식에 참석하여주시었다. 그들이 준비한 예술소조공연도 보아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는데 그때 졸업반학생들은 물론 재학생들까지 모두 나서며 친아버지에게 줄라대듯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시었다. ...

(그때 김영준동무도 나와 동행했었지.) 하는 생각이 문득 수령님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때만 해도 그는 펄펄한 기상이었지. 그에게 지금처럼 모진 병마가 침습할줄이야 누가 예측할수 있었던 말인가.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고 신심도 있다. 수술만 잘하면... 그렇다, 수술을 잘해야 한다.)

생각은 다시금 김영준의 수술집도자로 선정되었던 최응진에게로 돌아간다. 다음순간 수령님의 가슴속에는 격한 감정이 치밀어올랐다.

(어찌 그럴수 있단 말인가!)

《수령님, 이 사진을 좀 보아주시시오.》

수령님의 곁에 앉은 학생이 품속에서 사진을 꺼내 수령님께 보여드렸다.

수령님께서 그 학생의 사진을 모닥불에 비쳐보시었다. 작년도 대학에 찾아가시었을 때 찍은 그 사진이었다.

《응, 사진이 잘되었소. 그런데 학생은 어디를 보고있소. 앞을 보지 않고 내가 앉은쪽을 보고있구만.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땐 꼭 앞을 보며 찍으라구.》

수령님께서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시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품속에서 사진을 꺼내들었다.

《이것도 봐주시시오.》

《전 앞을 똑바로 보며 활짝 웃으면서 찍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나무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사진을 다 보아주며 즐겁게 웃으시었다.

(소박하고 진실하며 정이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혁명을 한다는건 하나의 복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수령님께서 대학생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어느덧 안개발이 걷히고있었다. 용용히 흐르는 대동강이 달빛아래 검푸른 자태를 드러내보이였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발밑에서 빠죽한 쇠조각같은것이 밟힌다. 아마 전쟁시기 적들이 무차별적으로 떨어진 폭탄의 파편인지도 모른다.

(전쟁을 이겨낸 인민... 당을 믿고 복구건설의 벽찬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 최응진도 그 인민속의 한사람이지.)

또 하나의 추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최응진을 생각하느라 언제나 먼저 떠오르곤 하는 그

렇게 소중한 추억이었다.

두해전 현지도의 길에서 그이께서는 평북도의 한 농촌마을의 초가집에 머무르셨던적이 있었다. 그때 축구공을 안고 뛰어들어오던 그 집 아들이 뜻밖에 수령님을 뵈옵고 못박힌듯 굳어져버리었다.

《어서 오너라.》

수령님께서는 콩타작이 벌어진 마당에서 내의바람으로 도리깨질을 하시다가 소년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주시었다. 그제야 소년은 달려와서 수령님께 절을 하였다. 그이께서는 소년의 숯밤송이같은 머리를 쓸어주며 말씀하시었다.

《애가 학교 축구선수인 모양이구만. 애를 튼튼하게 잘 키웠습니다.》

키를 들고 콩알들을 까불리던 주인집녀인의 얼굴이 불그레해지더니 두눈에 눈물이 고이였다.

《다 수상님의 덕분입니다. 수상님께서 좋은 세상을 마련해주시였기때문에 이 애가 이렇게...》

녀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아들은 전쟁때 폭탄피해를 입고나서 다리를 잘 쓰지 못하였다. 군과 도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받았지만 별로 차도가 없었다. 녀인은 생각다 못해 아들을 업고 평양으로 향하게 되었다. 렬차를 타고가다가 한 친절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녀인에게서 아들에 대한 말을 듣더니 평양에 가면 최응진선생을 찾아가보라고, 자기가 치료를 받아보았는데 마음씨도 곱고 의술도 높다고 하면서 주소를 써주었다. 그래서 녀인이 그 친절환 사람이 주소를 써준대로 무작정 최응진이라는 의사선생을 찾아가게 되었다. 최응진은 나무람없이 아들을 진찰해주었으며 녀인이 평양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것을 알게 되자 아들의 치료기간 자기 집에서 묵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수술치료하여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해주었다. 녀인이 너무도 고마와 수건에 뽀뽀 싸들고온 조상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금비녀를 내밀자 최응진은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다.

《아주머니, 나에게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제도를 마련해주신 수상님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나서 아들과 함께 수령님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것이였다. 그때 인차 그들을 일으켜세우시던 일이 잊혀지지 않으시었다. 그 집을 떠나면서 수령님께서 최응진을 고맙게 생각하시었다. 평범한 인민들을 따듯이 대해주며 성의를 다하는 그에게 정녕 자신의 인사를 드리고싶은 심정이였었다.

(우리의 정치는 바로 매 인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귀중히 여겨주고 그 마음이 활짝 꽃피도록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하고 수령님께서는 어둠속에 안개가 살듯이 감도는 대동강가를 걸으면서 생각하시었다.

(그런데 한 인간의 마음속에 서려드는 그늘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폐단이 아직도 우리 일군들속에 존재하고있다.)

6

한밤을 꼬박 고민속에 허덕이며 잠을 설친 최창진은 아침이 되자 마음을 다잡고 문건들을 들여다보았으나 귀중한 그 무엇을 잃은것처럼 불안하고 자꾸 정신이 분산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화투 놀라 흠칫했다가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보건성 부상 최창진이 전화받습니다.》

다음순간 그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수령님께서 급히 자기를 부르신다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무엇때문에 날 부르시는것일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스토마 리병률통제자료를 서류가방에 집어넣고 방을 나섰다. 수령님께서 황해북도에서 지스토마가 퍼지고있는데 대책문제를 토의하시려고 자기를 부르시는것이라고 판단하였던것이다. 그는 출입문을 향해 가다가 우뚝 멈추어섰다. 수령님께서 혹시 김영준동지의 수술문제를 토의하려고 부르실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형을 대신할수 있는 의사에 대한 자료를 가방속에 넣었다.

최창진이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했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서기를 불러 어떤 과업을 주교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창진을 보고 의자에 앉도록 하시고나서 하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내가 그 공장에 나갔을 때 한번 만난적이 있는 청년인데 며칠후에 결혼식을 한다고 하오. 그 총각이 처녀때문에 어지간히 마음고생을 했지, 허허... 신랑, 신부에게 옷감을 한벌씩 마련해주고 축하도 해주어야겠소.》

《수령님...》 서기는 걱정예 사로잡혀 미처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도록 하오.》

《알겠습니다.》

서기가 방에서 나가는것과 동시에 리성욱장령이 들어왔다. 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린 성욱은 의자에 앉아있는 창진을 보고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오늘 동무들을 부른것은 김영준동무의 수술문

제를 토론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성욱이 가까이 자리를 잡고 앉도록 하시고 말씀하시였다.

창진은 위축감으로 온몸이 쪼그라드는것만 같았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중하가 두어깨를 무겁게 내려누르는것만 같았다.

수령님께서서는 불안과 고통으로 컴컴하게 색이 죽은 창진의 얼굴을 주의깊이 바라보시였다.

《얼굴이 펴 축갔구만.》

수령님의 따뜻한 말씀에 창진은 송구해서 어쩔바를 몰라 허둥거리였다.

《그래 동무는 형님을 대신하여 영준동무를 수술할 책임자를 골라냈소?》

《예, 여기에 그에 대한 자료가...》

창진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가방을 열었다.

《됐소, 그만하면 됐소. 동무도 참...》 수령님께서서는 문건을 꺼내려는 창진을 제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측은한 빛이 어린 눈길로 창진을 이윽히 쳐다보시다가 격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사람이 어찌면 그렇소? 왜 동무는 나에게 형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오?》

수령님께서서는 집무실의 공기가 회박해진듯 답답함을 느끼시며 양복 옷단추를 끌러놓으시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인간의 운명을 두고 속을 태우시는 피로움의 그늘이 비끼였다. 다음순간 그이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큰소리로 물으시였다.

《그래 최웅진동무가 우리를 배반할 사람인가?》

리성욱의 얼굴에는 죄송스러운 표정이 어려있었고 최창진은 머리를 꼭 수그렸다.

《난 성욱동무의 심정을 생각해봤소. 김영준은 성욱동무의 상급이고 또 동무는 해방후부터 그를 곁에서 보좌해왔지. 그러니 영준동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각별하리라느꼈 잘 아오. 그러나 그의 수술집도자교체문제를 들고나오게 된데는 아마 정치적인 고려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거요. 그렇지 않소?》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혐의가 제기된걸 안 이상엔 모든것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털어버릴수가 없었했습니다.》

《한 인간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게 되리라는데 대해서는 어찌서 생각지 못하오? 동무의 직책이 안전보위사업이어서 어쩔수 없다는거요?》

그이께서는 격한 감정을 목소리에 담아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내가 더우기 섭섭하게 생각하는것은 창진동무요. 동무스스로 형님을 영준동무의 수술에 참가시키지 말자고 했다는데 어쩌면 그럴수가 있소. 응진동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동무가 아니겠소.》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었다가 나직이 동을 다시였다.

《이 모든게 너무 마음에 걸려 지난밤엔 잠도 오지 않았겠소.》

창진은 걱정의 파도가 일어번지는 가슴을 안고 수령님을 우르르다가 머리를 떨구었다.

《내 두해전에 지방에 나갔다가 우연히 응진동무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소.》

수령님께서는 평북도 산골마을의 어느 한 집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고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최웅진이 얼마나 좋은 동무요. 내 이런 사람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소. ...》

내가 그를 보증하겠소. 설사 이번에 그에게 걸린 혐의가 미해명으로 남는대도 일없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그를 믿겠소.》

수령님을 우르르는 창진의 두눈에 그렇하니 물기가 어리였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또 있으랴.)

창진은 금시 그이앞에 꿇어엎디어 큰절을 드리 고싶었다.

이때 서기가 들어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아뢰 이였다.

《수령님,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고나서 말씀하시였다.

《우린 아직 전쟁의 피해를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 있소. 이 땅에서 전쟁의 재는 털어버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소. 부모들을 잃은 고아들도 많소.》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프신듯 가늘게 한숨을 내쉬시였다.

이제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지도하시여야 하였다. 애국렬사유자녀학원, 초등학교 학원 및 애육원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들 토의하려고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신것이였다.

《우리 인민들은 오직 당을 믿고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휘황한 래일을 앞당겨오기 위해 투쟁에 떨쳐나섰소. 그런데 우리가 당을 지키고 또 귀중

한 혁명동지를 위한다면서 당에 충실한 사람들의 가슴에 새로운 상처를 내게 해서야 되겠는가.》

창진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나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개별적인사람들이 혹 억울한 일을 당할수도 있으며 그런 우연적이고 국부적인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감수하였다. 혁명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어떤 개인이 피해를 입어도 어쩔수 없다고 인식해왔다. 허나 우리 수령님은...)

수령님께서는 마치 창진을 일깨워주듯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계속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앞으로도 이런 일을 절대로 허용치 않을것ियो. 사람들을 뜨겁게 품어주는것이 우리의 혁명이고 우리의 정치요. 사랑과 믿음외에 다른 원칙이 있을수 없소.》

이미 결정했던대로 김영준동무의 수술을 최응진동무에게 맡기시다.》

창진의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울고있는 창진의 얼굴을 외면하며 말씀하시였다.

《창진동무, 동무는 어서 가서 응진동무에게 내가 영준동무의 수술을 성과적으로 해내기를 바란다고 전달하시요.》

그이께서는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문득 생각이 미친듯 물으시였다.

《응진동무가 이번에 자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는것을 알고있소?》

《아직 모르고있습니다.》 창진은 입귀로 흐르는 찻찻한 눈물을 감추하며 말씀드리였다.

《사실 어제 실토정을 하러 형님의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말을 할수가 없어 그냥 돌아오고말았습니다.》

《음—》수령님께서는 큰숨을 내쉬며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다행스러운 일ियो. 앞으로도 응진동무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마요. 일시 잘못된 평가를 하여 인간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면 그건 쉽게는 아물수 없는거요. 설사 아문다고 해도 아픔의 기억은 영원히 잊혀질수가 없지.》

그이께서는 어느덧 조용히 미소를 짓고계시였다. 자신이 사랑하시는 한 인간의 운명에 아직은 쓰라린 고뇌가 침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빛나는 미소를 피워올리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혼자소리처럼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좋은 인민들이 아무런 그늘도 모르고 살아야지.》

조용한 방에 흐느낌소리가 울리었다. 창진은 두 손에 얼굴을 묻어버렸고 성욱이도 손수건을 꺼내 눈언저리에 가져가고있었다.

7

며칠후 최창진은 어느 한 온천지구를 현지지도 하시는 수령님을 동행하게 되었다.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모내기가 끝나 푸르게 단장된 벌을 끼고 달리고있었다. 수령님의 옆좌석에 앉은 최창진의 얼굴에는 희미하게 눈물자욱이 남아있다.

좁전에 수령님께서 김영준의 위절제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병원을 찾아주시었다.

《수고했소, 역시 응진동무가 솜씨가 있습니다.》 그때 응진은 감격과 행복에 겨워 두손을 맞잡고 어쩔바를 몰라하며 말씀드리었다.

《제 솜씨라는거야 뭐... 다 수상님의 덕분입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에 어떤 먹장구름이 떠돌았는지, 수령님께서 어떻게 그 구름을 걷어주시었는지 모르고있었다.

후날 최응진의 문제가 정확히 해명되었다. 궁지에 빠진 원썬놈이 수령님께 충실한 지식인출신의 간부들을 제거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최응진에게 무서운 혐의가 제기되고있던 때였다.

병원일꾼들, 의사들과 함께 뒤에 서있던 창진 의 가슴속에선 크나큰 걱정이 거센 파도마냥 끓어번지였다. 모두가 즐겁게 웃는 그속에서 창진은 혼자 슬며시 손수건을 꺼내어 축축히 젖어드는 눈굽을 닦아냈었다.

승용차가 푸른 잔디밭이 펼쳐지고 잡관목들이 우거진 야산등반을 지날 때 군사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무총들을 비껴든

가사

아이들이 술방울 《수류탄》을 던지고 만세를 부르며 나지막한 야산정점으로 치달아오르고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군사놀이를 하고있소. 얼마나 씩씩하고 장한가!》

수령님께서 창밖을 내다보시며 유쾌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창진동무,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걸 좀 구경하고 갑시다.》

수령님께서 승용차를 세우고 내리시었다. 그리고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정겨운 눈길로 아이들의 놀음을 바라보시었다. 그때 《고지》를 《점령》한 아이들속에서 환성이 터지였다.

《아버지원수님!》

아이들이 엎어질듯 달려내려왔다.

《원수님!》

아이들은 서로 먼저 수령님께 안기려고 종주먹을 부르짖고 달려온다. 그러다가 그들중의 한 아이가 끝내 엎어지고말았다.

《저런!》

수령님께서 급해나서 달려오는 아이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시었다.

《애들아, 덤비지 말아.》

아이들이 마침내 수령님께 와 안겨들었다.

수령님께서 넘어졌다가 뒤늦게 도착한 아이를 안아올리시었다.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창진의 두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어리었다.

(크나큰 사랑의 품... 저 품에 안기면 한생 그늘을 모르고 복된 삶을 꽃피우게 되리라.)

태양이 뜨겁게 불타는 하늘은 구름 한점없이 맑고 푸르게 개여있었다.

원군은 내 삶의 길

김용열

창가에 보슬비 뿌려도 병사들 생각
울담에 눈꽃이 날려도 병사들 생각
찾아가요 령님어 보고싶은 자식들
내 집을 지켜주는 미더운 병사들을

터발에 꿋고추 달려도 내 아들 생각
앞뜰에 붉은 감 익어도 내 딸들 생각
찾아가요 령님어 사랑하는 자식들

내 마을 지켜주는 귀중한 병사들을

우리 군대 지켜선 나라대문 든든해야
사회주의철안에 웃음꽃 만발해야
장군님 선군길 따르는 원군길은
내 조국 내 요람 지키는 길이랍니다

아 원군길은 내 삶의 길이랍니다

수령형상의 격과 단편소설의 묘기

최연경

최근년간 소설문학분야에서 장편소설들과 함께 수령형상에 바쳐진 단편소설들이 왕성하게 창작되고있는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형상의 높이와 명작의 가치는 작품의 규모와는 관계가 없다.

《조선문학》축전상을 수여받은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인 《공격》, 《반격》, 《타격》의 사상에술적성고가 그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언제나 강조하고싶은것이지만 수령형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다.

수령형상창조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라면 수령형상에서 기본의 기본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에 맞게 그 위대한 풍모를 격이 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령형상의 격을 높이는데서 이 단편소설들이 어떻게 그 묘기를 잘 살리고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1. 무게있는 형상과제의 제시

수령의 위대한 풍모를 격이 있게 그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우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풍모를 격이 있게 형상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워야 한다.》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란 조국과 민족, 혁명과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 혁명과 건설의 전략적로선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를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실재한 사실들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으로부터 평범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련결되지 않은것이란 하나도 없다.

단편소설들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

장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잘 보여주는 참으로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있다.

이제 그것을 형상으로 확인해보기로 하자.

첫번째는 단편소설 《공격》.

미제와 리승만피뢰도당이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즉시에 전전선에 걸쳐 반공격으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긴장한 지휘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방어력량을 강화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을 때 단호하게 말씀하시였다.

《아닙니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눕혀야 합니다. 동무들! 방어가 아니라 전전선에서 즉시 일제히 반공격으로 넘어갑시다! 나는 우리 군인들과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를 굳게 믿습니다. ... 나의 정신은 공격정신입니다!》

이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첫 아침에 있는 일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군대는 단 3일만에 적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고 남해계선을 향해 노도와 같이 진격하였다.

이것은 실로 수백년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 없는 기적이였다.

일반적으로 전쟁력사는 우수한 군사적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충분한 방위태세를 갖춘 나라인 경우에도 적의 불의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는 일정한 시일에 걸쳐 전선을 수습하고 힘을 마련한 다음에야 비로소 반공격으로 넘어갈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다면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조선의 이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일찌기 적의 침략기도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적의 그 어떤 불의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위대한 공격정신의 승리였다.

두번째는 단편소설 《반격》.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데서 것처럼 중대한 의의를 가졌던 정형고지전투.

미제는 저들의 참패가 어쩔수 없는 기정사실로 되자 《시범전투》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이 조선전쟁에서 참

패를 당하고 쇠퇴되어가는 미국과 서방세력에 할기를 붙여넣을것을 목적인 《신공세》의 서막이라고 분석하시였다.

하다면 《시범전투》의 공격지점은?

군사지휘성원들은 놈들의 포성이 잦은 다섯개의 서부지역중의 하나가 그 지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운명적인 시각에 지시봉을 드시고 확정적으로 전선중부의 한계선을 짚으시였다. 그것은 철원지역의 이름없는 야산인 자그마한 정형고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과의 장기전에서 정치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허약해졌고 서방의 지지도 맥이 진한 조건에서 미제가 서방나라들의 외교단들과 기자들까지 끌어다놓고 《시범전투》를 벌리자면 지상부대, 비행대와 장갑부대, 포무력의 밀도와 기동성, 협동성이 보장될수 있는 지역이 요구된다고 보시였으며 바로 그 이상적인 공격지역이 정형고지라고 확신하시였던것이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포병부대를 전선중부의 ○○계선으로 전진배치할것을 명령하시였다. 포부대를 먼 산지에, 그것도 적의 공격이 래일 새벽으로 예측되는 촉박한 시간속에서.

이것은 사실상 전쟁의 상식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정상적인 기동이라면 빨라서 24시간, 모든 조건이 구비되려면 하루반의 시간적여유가 필요한것이다. 이러한 군사학상의 기성관념으로는 불의의 기동은 절대로 불가능한것이였다.

그러나 주체42(1953)년 1월 25일 새벽, 세계보도계의 초점을 이루어 것처럼 유명해진 정형고지 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측하신 그대로 우리의 눈부신 승리로 계속되였다.

놈들은 높이 200~300미터가량밖에 안되는 이 나지막한 작은 고지에 방대한 무력과 수많은 비행기, 탱크까지 들이밀었으나 이미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대로 유리한 공격계선을 차지한 우리의 영웅적인 포병무력은 적의 공격개시 5분전에 일제포사격으로 적들을 전멸시켰던것이다.

이것은 인민군전사들의 애국주의를 믿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공격정신의 또 하나의 승리였다.

세번째는 단편소설 《타격》.

단편소설 《타격》은 조국해방전쟁의 마지막단계에서의 3차타격전을 취급하고있다.

전쟁을 계속하는것이 저들에게 더욱 커다란 참패만을 가져온다는것을 깨닫게 된 미제는 할수없이 다시 정전담판장에 기어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인민앞에 굴복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미제는 리승만역도를 부추겨 정전결사반대, 《단독복진》 소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려고 꾀하였다. 한편 놈들은 우리의 후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도발행위가 어떤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가를 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전전선에서 강력한 군사적타격을 가할것을 결심하시였다. 이리하여 주체42(1953)년 5월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 3차에 걸쳐 적에 대한 련속적인 강력한 타격전이 전개되였다.

전쟁의 운명을 결정한 이 공격전에서 그 절정으로 된 마지막타격전이 단편소설 《타격》의 형상과제로 되고있다.

타격시간은 7월 13일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타격전을 명령하시면서 《...이 타격전이 결속되면 정전담판회의에도 극적인 변화가 생기리라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전선을 앞으로 더 내밀어야 합니다. 나의 정신은 공격정신입니다.》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이 위대한 공격정신에 떠받들리어 열흘간에 걸친 여러차례 타격전은 빛나는 승리로 계속되였다.

이 빛나는 타격전으로 아군은 많이 전진했으며 적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전담판회의에서는 쌍방이 차지한 현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하는 력사적인 문건이 급속도로 채택되였다.

바야흐로 전쟁의 최후승리는 눈앞에 다가왔던것이다. 참으로 《공격》, 《반격》, 《타격》, 위대한 수령님의 불굴의 공격정신의 자랑스러운 승리로 빛나는 이 봉우리들을 하나의 산줄기로 이어놓으면 그것은 그대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거창한 대영웅사시로 될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내리막길에 몰아넣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참으로 훌륭한 송가로 되였다.

이 귀중한 경험은 단편소설도 능히 수령의 위대성의 정수를 이루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수령형상앞에 제기할수 있을뿐아니라 바로 그렇게 할때 장편소설에 못지 않는 격이 높은 수령형상명작을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확증해준다.

2. 격이 있는 상대인물의 형상

수령형상의 격을 높이려면 상대인물의 격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상대되는 인물의 격을 낮추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더욱 높이는 방법으로 형상하여야 수령의 권위를 보장할수 있다. 적대적관계에 있는 부정인물을 그릴 때에도 그들의 힘을 강하게 보여주어 그것을 라승하는 수령의 위대성이 감명깊게 안겨오게 하여야 한다.》

단편소설들에는 최용건으로부터 강건, 남일, 류경수 그리고 오창목, 박천 등 조선인민군의 고위 급지휘성원들이 등장하고있다. 여기에 김책, 김일의 모습도 얼핏 비친다.

그들은 남일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두가 항일빨찌산출신들이다.

그들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이의 위대성에 매혹되어 그이에 대한 절대의 흠모심을 신념으로 간직한 충신의 전형이며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다.

그들처럼 김일성동지의 사상의 위대성과 전략전술의 비범성, 인간애의 숭고함을 심장으로 체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그러나 소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들모두는 혁명이 역경에 처할 때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지고있는 전쟁의 엄혹한 국면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위대한 공격정신으로 타승해나가는 수령님의 위대함을 새라새로이 가슴뜨겁게 받아안는것이다.

적의 불의침공에 전면적인 즉시적반공격으로 대담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대응단에 접하였을 때 쿵! 하고 무엇인가 해일같은것이 밀려와 창공에 솟구치는것 같은 감동을 받아안은 류경수, 적의 《하기공세》때 전선동부가 적의 공격지점임을 천체적으로 간파하시여 놈들을 전면적파국에 몰아넣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슴터지게 절감했던 오창목, 박천들이건만 전쟁의 운명과 련결된 정형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그 위대한 공격정신의 위대성에 접하여 금치 못해하는 경탄과 놀라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답하고 강력한 타격전으로 적들을 패배에 몰아넣었을 때 최용건은 남일의 손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여보 남일동무, 이젠 됐소, 됐단 말이요. 해가 솟았소. 우린 해뜨기전의 어둠속에서 헤맸단 말이요. 한생을 받들면서도 그 뜻을, 그 정신을 다 따르지도, 배우지도 못했거던. 인생을 헛산것 같아. 하지만 이젠 됐소! ...》하고 석싹한 소리로 옆에 떠서 말하였다.

이것이 항일의 로장인 최용건의 웅심깊은 심장의 터침이라 할 때 참으로 의미심장한것이다.

소설들은 상대인물의 격을 높인다고 하여 그들을 리상화하거나 허구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키지 않았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잘 알려진 원형 그대로의 인물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형상의 진실성을 담보해주고있을뿐아니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위력한 력사의 증견자로 되고있다.

소설들의 상대인물형상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그 높은 급의 인물들모두가 생동하게 개성화되고있는것이다.

그것도 인간의 외모에서가 아니라 개성적인 정신미에 의탁하여, 매 인물들의 시점을 통한 간결한 묘사속에 그 개성의 알속을 잘 살려내고있는 것이다.

랭정하고도 칼날같은 성격이지만 명석한 판단과 결단성으로 하여 늘 그를 존경하여오는 류경수의 시점으로 본 강건, 더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믿음과 애정을 담아 친히 《땅크사단장》이라고 불러주신 오창목(사실은 그에게 땅크란 한대도 없었다.), 속타이 있는 남일을 위해 쟁고기를 마련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이 직접 키운 썰 세마리를 보내온 최용건을 두고 《보위상동무가 그 우물우물한 성미에 수고했을거요.》라고 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말씀, 우리가 빨찌산때 오늘과 같은 난관을 한두번만 겪었는가고 하시는 수령님께 《장군님, 우린 그때마다... 장군님만을 믿고 사생결단으로 뚫고나갔습니다.》라고 젓은 목소리로 말씀올리는 최용건에게 《옳소, 군장인 최용건동무가 적의 포위를 뚫고 찾아와 우리밑에서 평전사로라도 싸우겠다고 눈물을 흘리던 일이 어제같습니다. ...》라고 추억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이 말씀에는 전사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다함없는 믿음과 함께 수령의 위대성에 매혹되어 한생토록 충심으로 받들고 흠모한 미더운 그의 모습이 눈물겹게 비껴있다.

단편소설들은 적대인물들도 격이 있게 형상하고있다.

소설들에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로부터 정전담판 《련합군》측 수석대표인 미륙군중장 윌리엄케이 해리슨,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8군사령관 테일러를 비롯한 조선침략의 원흉이며 진범인인 미제국주의침략무리들의 거물들과 남조선피뢰군륙군참모총장 백선엽 등이 등장하고있다.

아이젠하워는 장기전으로 하여 거덜이 날대로 난 조선전쟁을 시급히 종결지으려고 서두르는 몰골로 얼핏 등장하고있으나 체면을 잃지 않고 어

부지리를 얻어 정전이라는 참패에 월계관은 못되더라도 그 무슨 색다른 영예의 벵거지라도 썩워보려는 교활무쌍한 미제의 최고괴수로서의 악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또한 저들의 제공권을 턱대고 분계선을 현재 쌍방이 차지하고있는 계선이 아니라 썩 북으로 올리 밀어 평양—함흥을 동서로 굽는 가상적인 선으로 해야 한다는 해리슨의 강도적인 억지주장에는 조선인민군측이 저들의 주장을 받아들일것을 타산한것이 아니라 중간홍정을 바라는 상투적인 장사군의 기질이 정전담판마당에서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교활하며 록록치 않은 적수들이다. 그러나 력사는 이 강하고 만만치 않은 적진이 위대한 수령님의 강력한 공격정신앞에 물먹

은 흠뻑처럼 무너져버리고말았다는것을 여실히 확인하였음을 소설들은 심오한 진리로 보여주었다.

이렇듯 단편소설들은 적대인물들의 힘을 허약하게 아니라 강하게 그리고 그 격을 낮춘것이 아니라 높임으로써 적을 타승한 수령의 위대성을 힘있게 확증한것이다.

단편소설 《공격》, 《반격》, 《타격》의 창작경험은 소설이 조국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전략적이며 로선적인 문제를 무게있게 제시하고 풀어나갈만 한 탐구력을 지닐 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간직할 때 단편소설 그 한편한편으로 능히 수령의 위대성을 격이 있게 훌륭히 형상한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새겨준다.

미곡벌의 녀인

염득복

푸릿한 새벽빛을 밟으며
녀인은 벌로 나간다
수수한 작업복에 장화를 신은
농장벌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녀인

논물의 온도도 가늠해보고
고삐 풀린 염소도 매여주며
청년분조 처녀들처럼
코노래도 부르며

새벽별 이고 들로 나오고
저녁별 이고 돌아오는 녀인
농장의 휴식날도
벼포기 설레는 논벌에 있었다

얼굴은 해벌에 감실히 탔어도
더욱 아름다워보이는 녀인
벌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벼포기들과 눈빛으로 말을 주고받는듯
별처럼 빛나기도 해라

녀인의 그 부드러운 손이

벌을 가꾸느라 터실터실해졌건만
그것이 더욱 소중한
그 손 한번 만져보고싶구나

이 들의 낱알과 낱알향기
그 손에서 익어가고 향기풍기어
녀인의 온몸에 다 배여있어

오곡백과 무르익는 이 벌을
그대로 장군님께 보여드려
기쁨을 드리고싶은 마음이어서
일하고 일하여도 모자라는 마음 앞서
녀인은 오늘도 이른아침 벌로 나간다
땅에 더운 땀 바치려 간다

아, 벌과 녀인은 갈라놓을수 없어
녀인은 이 벌과 인연을 맺고
장군님께 기쁨드리는것이
인생의 전부인 미곡벌의 녀인
그래서 그대 흘리는 땀방울마저도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것이여라

언제나 평론창작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평론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오시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의 평론에서 문학을 선도하는 사업은 당의 문예정책을 해석선전하고 그 관철을 위한 실천적방도를 찾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평도밑에 창작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들에 대하여 깊이있는 분석을 한 평론들을 훌륭하게 집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70년대 우리 평론가들이 당이 제시한 독창적인 수령형상론을 창작에 구현하여 시대의 걸작으로 창작된 총서 《불멸의 력사》장편소설들에 대한 평론을 리론적깊이가 있으면서도 발견이 있게 집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이 시기 평론가들은 《총서〈불멸의 력사〉장편소설〈백두산기슭〉에 대하여》와 《총서〈불멸의 력사〉장편소설〈두만강지구〉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훌륭한 본보기적작품들의 사상예술적성과를 깊이있게 해설한 평론들을 창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작품이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를 깊이있게 리해시키며 작품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한층 돋구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을 깊이있게 해설한 평론과 함께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된 작품들에 대한 평론을 잘 쓰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었다.

여기에서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에 대한 평론창작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것은 그 실례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가는 가사도 잘 쓰고 곡도 잘 지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 주제가 가사에 대한 평론

을 하나 잘 써내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면서 그 방향까지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평론에서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가는 항일녀성투사들의 모범을 따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시대의 영웅인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잘 반영하였다는데 대하여, 어떻게 되어 허식과 틀이 없는 짙막한 몇 개 소절로써 그 숭고한 정신세계를 훌륭히 반영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을 밝혀주어야 한다고 지적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처럼 평론에서 기본핵으로 되는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여주시고 가사에 대한 평론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평론가들이 창작한 평론을 보아주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펜을 드시고 일부 표현들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고 또 평론제목도 고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체적인 지도에 의하여 그후 평론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성심에 대한 훌륭한 시적형상》이 성과적으로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완성된 이러한 평론들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리론을 관철하여 창작된 훌륭한 문학작품들의 사상예술적성과들을 깊이있게 분석한 평론창작에서는 새로운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평도에 의하여 그후 우리 평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평론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높이 받들고 평론창작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켜나가게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6(1997)년 10월과 주체90(2001)년 4월 등 문학평론사업에 대한 지도사업을 통하여 아직까지 평론부문에 남아있는 구태의연한 부족점들을 극복하고 평론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평론가들은 장군님의 의도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평론사업을

더 대답하고 철학적깊이가 있게 하게 되었다. 문제의 본질을 밝혀 명백하게, 논리성있게 평론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가게 되었다. 하여 평론이나 관평들에서 미화분식하는 경향, 찬양일변도로 나가는 편향 등이 극복되고 우리 식 평론의 특성을 옹골치게 살려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크나

큰 믿음이 있었기에 평론가들은 선군시대에도 우리 당의 독창적인 선군사상을 구현한 선군문학평론의 새로운 면모를 확립하고 선군문학창작을 선도하는 우수한 평론들을 더 많이 내놓을수 있었다.

김혁

단천항의 배고동소리

최정용

푸른 파도 철썩이는
방파제의 한끝에 나서니
수평선너머 그 어데선가
금시 올려오는듯싶구나
배고동소리 배고동소리...

그러면 마음에 떠오르는
그날의 장군님 모습
12월의 바다바람에 날리던 옷자락
정겹게 웃으시던 밝은 미소
이 가슴에 뜨겁게 안겨지나니

아직은 크고작은 부선들이며
긴팔을 휘두르는 기종기들로 봄비는
건설중의 향이었건만
그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시였던가

만년성벽인양
억척같이 뻗어간 방파제들
그 한치한치에 바쳐진
건설자들의 남모르는 수고며
날바다를 휘어잡은 건설자들
결사관철의 그 정신력을
심중에 뜨거이 헤아리신 우리 장군님

장하다고 일을 많이 하였다고
모두가 영웅들이라 하실 때

건설자들 가슴가슴에 북받쳐오르던
행복이여 영광이여

우리 어찌 잊으랴
우리는 그날을 안고산다
어서 빨리 배고동소리 울리게 하자고
장군님 그날에 남기신 간곡한 당부
언제나 마음에 안고 우리가 산다

짐을 싣고 부리는 항만기종기며
부두가에 닻을 내리는
크고작은 배들을 그려보며
다그치는 일손엔 불이 일거니

그 어떤 난관이 우리 전진 멈추랴
화선길을 달리듯
조향륜 틀어잡은 운전자들 심장에
붉은기 날리는 부두건설장
바다물에 몸을 잠그고
부재를 조립해가는 잠수부들 마음에
안고사는 배고동소리 배고동소리

그렇다
장군님앞에 다진 맹세로
불타는 건설자들의 심장과 심장에
먼저 울린다 배고동소리
단천항의 배고동소리는



1

길가의 둔덕에 낡은 집 한채가 있었다. 승용차의 전조등에 확 드러나던 초가이영이며 군데군데 흙매질이 떨어진 담장 그리고 토방우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있던 어린 소녀...

《이게 너의 집이냐?》

《예..》

비가 새는 집이었다. 열려진 문안에는 크고작은 소꿉이며 쌀함박까지 놓여있었다. 어린 소녀애가 소꿉놀이를 위해 널어놓은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머닌 안계시니?》

《예, 울엄만... 내가 죄꼬마할 때 별나라에 갔대요..》

《음... 그래서 네가 아버지를 간호하했구나.》

머리를 끄덕이며 깨여진 꽃화분을 그려안은 소녀.

《일일초꽃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요!... 아버지두 앓구 이 꽃두 앓구...》

...

2

최전연의 어느 군부대를 시찰하시고 수도를 향한 차안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부지중 가볍게 머리를 저으시였다. 꿈이였는가?... 아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까부터 보시던 통신자료들이 그대로 들려있다. 눈길은 여전히 그 자료를 더듬고있었지만 생각은 이미 아득한 옛일로 되어버린 그날의 비바람 사납던 밤에 가있었다. 놀라운 일이다. 무엇때문에 그날 밤의 일이 문득 기억에 떠오른것일까?...

시계를 들여다보시니 새벽 1시 15분이다.

리라순

승용차는 여전히 인적없는 도로를 바람같이 달리고있다. 이제 얼마후엔 수도의 거리에 들어설것이다.

그이께서는 다시 통신자료에 눈길을 주시였다.

...이미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한 조선은 지난 3월 21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에 건기간 공중위험구역들을 닫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보통지문을 해당 구역들을 관할하거나 리용하는 미국, 로씨야, 중국, 스위스, 일본, 남조선 등 유관민용항공당국들에 보내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조선의 위성발사를 적대행위로 락인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최선을 다하여 요격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씨엔엔방송)

그이께서는 다음장을 번치시였다.

...이와 같이 조선은 성명에서 우주공간을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라고 지적하고 평화적위성발사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 인류의 진보를 위한 정의로운 사업이라고 언명하였다. 성명은 만약 일본이 분별을 잃고 사소한 요격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이미 조선동해 해상에 전개되어있는 요격수단뿐만아니라 중요대상들에게도 즉시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로이터통신)

...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증지구의 위성발사장에서 준비가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을 때부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에게 대한 그 무슨《고립》과 《제재》를 목터지게 떠드는 한편 우리의 위성발사를 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통신자료를 옆으로 밀어놓으시었다.

웬일인지 저릿저릿한 아픔이 가슴속 깊은 곳을 스쳐가는 느낌이었었다. 이상한 일이다. 그것은 결코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는 엄중한 정세때문이다. 그토록 위기일발의 사태였지만 어제 어느 한 바다기슭의 중대를 돌아보시던 때에는 그리도 마음이 흥그럽지 않았던가?...

아카시아꽃향기가 질게 풍기던 해안포중대병영, 울창한 수림속에 들어앉은 포진지, 아늑한 병실들, 해빛밝은 중대교양실과 갖가지 남새와 짐짐승고기, 물고기류들로 풍성한 식당취사장파도우에서 흥떡이던 중대부업선 그리고 염소떼며 토끼, 게사니와 닭, 오리들로 꽉 들어차있던 축사... 모 든 것이 아담하고 정갈하고 규모있게 꾸려져있는 중대였고 전투적기백이 넘친 병사들의 모습이였다. 하여 그이께서는 중대의 지휘관, 병사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고 무성한 수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다. 장군님을 수행하고있던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인 대장 차석주는 그이께 기쁨을 드린 중대가 대견스러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있었다.

그가 힘있게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제 곧 해안포중대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군님께서 높이 치하하신것처럼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이들을 따라배워 전투력이 강한 부대, 잘사는 중대, 수림화되고 생활이 윤택한 중대들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은 일이요!》

그이께서는 시종 환히 웃고계시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적소리가 울렸다.

그이께서는 몸이 앞으로 쏠리는것을 느끼며 앞시창에 눈길을 주시였다. 《평양—10km》라고 쓴 리정표가 언뜻 스쳐갔다. 순간 그이께서는 놀라신듯 눈길을 모으시였다. 밝은 전조등빛에 웬 젊은 녀인이 아이를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는것이 눈길을 잡아끌었던것이다. 보매 녀인은 울고있는것 같았다. 애기를 안고있는 젊은 녀인이 무슨 일로 이 깊은 밤 인적없는 길가에서 울고있단 말인가?...

《가만, 차를 세우오.》

차는 이미 녀인을 지나쳤었다. 아츠러운 급제동소리... 차가 멎기 바쁘게 앞좌석에 앉아있던 부

관이 급히 뛰어내려 녀인에게로 달려갔다. 뒤따르던 차들에서도 차석주와 여러 수행원들이 뛰어내리는것이 보였다. 그들은 무슨 긴급정황이라도 생겼는가 하여 무척 놀란 거동이었다.

차가 후진했다.

부관이 어린애를 안고있는 녀인과 무슨 말인가 재빨리 주고받는것이 전조등빛에 환히 드러났다.

뒤차에서 내린 차석주가 그리로 달려가자 녀인은 주춤 뒤걸음쳤다. 어깨에 큰별을 달고있는 엄엄한 장령이 눈앞에 불쑥 나타나니 깜짝 놀란것 같았다.

장군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였다. 마침 부관이 키가 자그마하고 오동통한 녀인을 승용차가까이 데리고왔다. 녀인은 겁에 질린 표정이였다.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어 잠든 애기를 정신없이 추스르며 허둥거리고있었다.

부관이 말씀드렸다.

《장군님, 이 동문 지금...》

부관은 말끝을 잊지 못하였다. 옆에 서있던 녀인이 입술을 깨무는듯 외마디소리를 냈던것이다.

《아니, 장군님께서?!》 녀인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한손으로 입을 가리기까지 했다. 다음순간 녀인은 목메여 부르며 깊숙이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였다.

《아버지—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만하라고 가볍게 손짓하시며 녀인에게 물으시였다.

《그래 무슨 일로 여기 길가에 나와있소?》

녀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채 가는 목소리로 대답올렸다.

《저...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을? 음... 무슨 일이 있은게로구만. 이밤에 여기 나와 울고있는걸 보니, 응? 다투었나?》

녀인은 피곳 눈길을 들었으나 다시 떨구었다. 순간 고였던 눈물이 달빛에 번뜩이였다.

《예... 다투었습니다. 다신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큰소리를 치기에...》

그이께서는 차석주와 부관을 돌아보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부부간의 다툼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지만 깊은 밤 젊은 안해가 길에 나와 울게 한 걸 보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꽤나 인정머리없는 사내같았다.

《내가 알아보고 혼 좀 내야겠지만. 가정의 화목도 유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나. 응?… 그런 사람은 되게 비판을 해야 돼.》

녀인의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껏 편역을 바라보는 딸처럼 어려움도 있고 일러바치던 녀인이었던만 펄쩍 놀란듯 한결음 움쉴 앞으로 나서기까지 했다.

《아닙니다, 아버지장군님! 사실… 저의 남편은 잘못된게 없습니다. 전투기간이여서 집에 못 들어 오겠다고 하는걸 제가 투정질을 좀 했을뿐입니다. 오늘이야 우리 철이의 첫돌생일이 아닌가구… 했더니 날더러 정신이 쏙 나갔다면서…》

그이께서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래 남편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구?》

《예,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열생산직장에서 일합니다. 재작년에 제대되어 배치받았는데 벌써… 반장입니다.》

녀인은 어느새 남편에 대한 고까움도 잊고 장군님께 은근히 그를 자랑하고있었다.

《전번엔 혁신자영예게시판에도 크게 나구 또…》

갑자기 녀인은 목을 움츠리었다. 그제서야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것 같았다. 소박한 녀인이었다.

그이께서 또 물으시었다.

《남편이름이 뭐요?》

《저… 김춘호라구 합니다.》

《음… 김춘호, 그러니 교외에서 시내에 출근한다?… 그래, 공장에선 여태 집을 안 주던가?》

녀인이 급히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집은 받았됐습니다. 공장간부들이 제대군인반장이라구 해서 우리에게 먼저 집을 주었는데 애아버지가 작업반의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어머님도 높은 아파트보다 지금 살고있는 단층집이 더 좋다구 하구…》

그이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없이 잠든 애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시었다. 젖살이 실하게 오른 애기는 두툼한 솜포단에 싸여 췌근췌근 잠들어있었다. 지금 이 애의 아버지는 귀여운 아들을 그려보며 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보이라에 불을 때고있을것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아버지장군님.》 그이의 표정을 우려했던 녀인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 없습니다. 우린 아직도 얼마든지 참을수 있습니다.》

죄스럽게 말씀드리는 녀인의 그 목소리에 그이께서는 가슴이 저려나는것을 느끼시었다. 아직도 얼마든지 참을수 있다구?… 아니, 그럴수 없다. 그래서 안된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참고 견디여온 우리 인민인가. 잊을수 없는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헤쳐오며 그리도 고생이 많았던 우리 인민, 변함없이 당을 따라온 이 인민을 이제는 모두 꽃방석에 앉혀야 한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의 념원이었고 나의 리상이다.

그이께서는 녀인이 안고있는 아기의 머리를 쓸어주시었다.

《철이라구 했지? 아버진 곧 온다. 귀여운 아들의 첫돌생일인데 꼭 오구말구. 그러니 인젠 집에 가서 기다리거라!》

승용차는 다시 발동을 걸었다. 떠나시는 장군님께 또다시 허리굽혀 인사드린 녀인은 어린애를 품에 꼭 껴안은채 점도록 한자리에 못박혀있었다.

그러나 사랑의 불빛은 아득히 멀리 사라져간것이 아니었다. 그 불빛이 이제 교외의 작은 단층집에 눈부신 해빛이 되어 물결쳐들리라는것을 그 녀인으로서야 어찌 상상인들 할수 있었으랴.

3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은 차석주는 당중앙위원회청사의 복도를 걸어가고있었다. 엄숙한 표정이었다. 걸음걸이는 마치 대렬행진이라도 하는듯 했다. 준엄한 정세와 관련하여 이제 장군님께서 중대결단을 내리실것이라는것을 그는 의심치 않고있었다.

전쟁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와있다. 우리의 위성발사시간이 가까와오면서 일본해상《자위대》의《근교》, 《쵸카이》호와 남조선피괴해군의《세종대왕》호를 비롯한 여러척의 유도탄구축함들이 조선동해에 전개되었다. 적들은 이미 내외에 선포한대로 우리의 위성발사를 그 시초에 요격소멸한다는것이다.

하여 지금 세계가 죽가마끓듯 하고있다.

…조선반도에 또다시 핵전쟁도화선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전쟁발발의 시간표도 이미 짜져있다. 그 시간은 일본이 조선의 위성발사를 요격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 (유피아이통신)

…북조선은 일본의 요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초강경대응을 선포한 조선은 미증유의 보복을 가할것이다. 따라서 만약 일본이 요격미싸일을 발사한다면 즉시 도포는 불바다로 화할것이다. (지지통신)

…

차석주는 큰숨을 내쉬고나서 장군님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아 차동무, 지금 기다리던중이요.》

장군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차석주는 장군님의 집무탁으로 곧추 걸어갔다. 한순간 집무탁가까이 서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수도건설부(당시)의 여러 일군들을 의아쩍은 눈빛으로 재빨리 둘러보았다. 그들이 무엇때문에 집무탁우에 펼쳐진 군사작전도에 머리를 수그리고있는 것인지?…

《차동무, 우선 이걸 좀 보시오.》

장군님께서 그를 가까이 이끄시였다.

한순간 차석주의 약간 부어오른듯 한 작은 눈이 흠뻑졌다. 집무탁우에 펼쳐진것은 그가 밤이건 낮이건 색연필을 움켜쥐고 눈박히며 들여다보던 군사작전도가 아니라 하늘을 찌를듯 한 돌기둥 같기도 하고 멧쟁이모자 같기도 한 초고층건물이 빼곡이 들어찬, 보기에도 아찔하고 요란한 거리형성안이었던것이다.

《저, 이건…》

《어쩔소, 차동무 보기엔?… 새로 건설하게 될 수도의 어느 한 거리형성안이요.》

《예?!…》

차석주는 다시 형성안에 눈길을 박았다. 작전도를 보는데 습관되어있는 그로서는 어느 외국의 거리 한복판을 보는듯 한 이런 건축물들이 너무도 생소한것이였다. 그는 머리를 수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두눈을 습벅이며 어정쩡하게 말슴드렸다.

《장군님, 전 건축은 잘 모르지만… 우리 나라에선 처음 보는 요란하고 번쩍거리는 아니, 대단히 현대적인…》

《그러니 좋다는거요, 나쁘다는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안색을 흐리시였다.

《보시오. 모두가 화려하다, 요란하다, 처음보는 현대적인것이다 하고 감탄은 하면서도 좋다는 말은 하지 않거던. 왜 그러는것 같소?》

그것은 차석주만이 아닌 당중앙위원회와 수도건설부 일군들모두에게 향하신 물음이었다.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소리없이 웃으시였다.

《참, 미술박물관에 가면 〈꿈에 본 동산〉이란 그림이 있는데… 혹시 그런 그림을 본 사람이 있소?》

이번에도 일군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뿐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니 본 사람이 없다? … 아니, 언젠가 보긴 봤겠지만 기억나지 않겠지. 그럴수 있소.》 이어 장군님께서 15세기중엽사람인 안견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 그림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안견이 누군가 꿈에 보았다는 무릉도원을 그린 풍경화요. 그림의 오른쪽 옷부분엔 높고 험한 산발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있고 아늑한 골짜기의 작은 둔덕우엔 한채의 초가집이 서있는데 그 주위엔 연분홍빛의 복숭아꽃들이 가득 피어나있소. 또 동산의 앞강에는 작은 배 한척이 물결에 떠실려있고 그너머 멀리 바위절벽에서는 물안개를 피워올리며 폭포가 쏟아지는데… 그야말로 따스한 봄의 훈향과 신선함이 온 강산에 차고넘치는듯한 그림이요.》

차석주를 비롯한 여러 일군들은 반쯤 눈을 감은채 그이께서 설명해주신 옛그림을 열심히 상상해보고있었다.

한순간 그이께서도 생각에 잠기시였다. 무릉도원의 작은 초가집, 옛사람들의 리상이었던 초가삼간…

예로부터 집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생활의 기본거처지였다.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사람들은 여러가지 형식의 수많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도시와 마을들을 일떠세웠다.

집에 대한 요구는 인류사회발전의 전기간 언제나 필수적인것이였으며 그 과정에 살림집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은 시기마다 자기 계급의 미학과 사상, 자기 민족의 고유한 심리적특성과 감정, 정서 그리고 자기 민족의 구미에 맞는 건축형식들을 창조하고 형성하여왔다.

그이께서는 부지중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꿈에 본 동산이라… 얼마나 소박한 꿈이겠소. 화려한것보다는 아담한것을 더 좋아하고 요란한

것보다는 아늑하고 알뜰한것을 더 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꿈과 이상이 담겨진 그림이라 할가... 사실 살림집은 그 모양으로부터 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나라의 기후풍토에 어울리고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구미, 현대적인 미감에도 맞는 쓸모있고 편리하면서도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이어야 할게 아니겠소.》

그 순간 차석주는 그이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며 구석구석 돌아보시던 중대가 상기되었다.

그것은 군대병영답게 기하학적으로 정연하게, 질서있고 규모있게 세워졌을뿐만아니라 아늑하고 정이 들고 따스한 온기가 가득차있는 집이었었다.

알뜰한 군인들의 집...

장군님께서는 탁우의 새 거리형성안과 총배치도를 접어놓으시었다.

《이건 건축연구소의 신정희라는 녀성건축가가 내놓은것인데 동무들이 방금 본바와 같이 지나치게 현대성을 추구하던 나머지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를 잘 반영하지 못한것 같소. 요란하고 화려하기만 하고... 우리가 인민들에게 지어주려는 아늑한 살림집과는 너무 거리가 멀거던. 그래서 나는 이 형성안과 총배치도에 찬성할수 없구만. 동무들 생각은 어떻소?》

여러 일군들이 동감을 표시했다. 그들은 모두 장군님께서 벌써 몇달전에 이곳의 낡은 집들을 허물고 새로 정리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그 방향을 이미 주시었다는것을, 그리하여 도시설계연구원과 건축연구소에서 각각 거리형성안과 총배치도를 만들었고 지금 그이께서 건축연구소의 안을 기각하신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이제 도시설계연구원의 안은 어떻게 될것인지?...

장군님께서 차석주에게로 몸을 돌리시었다.

《내가 차동물 여기 부른건... 다름이 아니라 동무가 직접 여기 만수대거리의 새 형성안과 총배치도에 관심을 돌리고 건축가들을 잘 도와주라는 거요.》

《예? 제가 말입니까?...》

《그렇소. 이제부터 동무가 우리 건축가들의 눈을 띄워주구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살림집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도와주시오.》

《아니, 최고사령관동지. 전 건축전문가도 아니네...》

장군님께서는 짧게 손을 내저으시었다.

《현대건축은 잘 몰라도 우리 인민과 우리 군대의 미학사상과 정서야 누구보다 더 잘 알고있지 않소. 그래서 내 동무한테 과업을 주는거요. 우리 시대의 사상감정을 그들에게 심어주라고 말ियो.》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나 권고가 아니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였다.

《알았습니다.》 하고 차석주는 거수경례를 붙이며 큰소리로 대답올렸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접어놓은 형성안에 눈길을 주고계시였다. 건축연구소의 재능있는 녀성건축가... 자신께서 알고계시는 신정희는 매번 특색있는 건축물들을 설계하여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하군 했었다. 그러던 그가 오늘은 어떻게 우리 식이 아닌 이런 형성안을 내놓게 되였는가?...

불시에 아픔이, 또다시 그 어떤 괴로움이 가슴을 찌르는것을 느끼신다. 언제든 잊지 못할 괴로운 추억의 사연...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어언 40여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다.

...

길가의 둔덕에 한채의 낡은 집이 서있었다. 승용차의 전조등에 확 드러나던 초가이영이며 군데 군데 흙매질이 떨어진 담장 그리고 토방우에 앉아 울고있던 어린 소녀...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요. 아버지두 앓구 이 꽃두 앓구...》

토방에 떨어져내리는 붉은 보라색의 꽃잎들...

4

가파로운 묘향산등산도로를 툭아오르는 신정희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다. 하지만 자책에 싸인 그는 거친 바위에 무릎이 부딪치는것도 알지 못했다. 지팽이삼아 꺾어든 나무막대기에 온통 손바닥이 물질투성이가 되는것도 알지 못했다.

목적지인 이선남폭포가 가까이 다가왔으나 생각은 여전히 만수대거리살림집형성안에 가있는것이다.

그토록 품들여 내놓은 창조물, 하여 수십년이나 되는 자신의 건축창조의 경험을 집대성한것이라고 여겼던 살림집거리형성안... 현대 장군님께 올렸던 그 형성안이 그만 기각된것이다. 아, 과연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건물형태와 새로운 양상, 구조기술을 도입한 초고층살림집, 호화로운 문화후생시설들과 백수십평방이나 되는 여러개의 사치한 살림방들... 그가 내놓은 형성안을 두고 일부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부서의 사람들은 제일처럼 기뻐하였으며 설계협의회에도 제출되었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신정희의 형성안은 기각되고 반대로 도시설계 연구원에서 내놓은것을 더 보충완성할데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머리를 들수 없었다. 아직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미처 따르지 못하고있다는 자책감과 고민으로 하여 미여지는 가슴을 안고 모태기는 신정희였다.

며칠새에 눈이 쑥 들어간 신정희는 소장의 방문을 두드렸다.

《저를 묘향산 등산도로건설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은주동무가 일하는 곳에 말이요?》

《예, 현실에 나가서 더 배우겠습니다.》

《고맙소, 신선생. 그러지 않아도 그 대상을 어린 처녀설계가인 은주동무에게 맡긴게 마음놓이지 않았는데... 선생이 가서 잘 도와주요.》

그날로 신정희는 배낭을 메고 묘향산으로 달려갔다. 설계도면 검토, 각종 수치계산 확인... 며칠밤을 현장에서 새운 그는 오늘 또다시 등산도로 답사에 오른것이다.

별안간 발아래의 떨기나무숲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보세요. 세상에 남아있는 제일 오랜 다리는 고대로마건축가들이 건설한 물길다리란 말예요. 텔레비존 세계상식시간에 보지 못했어요? 기원전 1세기에 건설한 3단물길다리를 소개하는걸 말이에요.》

《아니, 난 그런건 모르오.》

이번엔 무척 귀에 익은 남자목소리였다.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오랜 다리는 대동강의 나무다리라는것만은 잘 안단 말이요. 내가 언젠가 미림쪽에 가보니까 그 다리터가 아직 남아있던데 고조선때 건설한것이라누만.》

《아니예요. 그보다 더 오랜 다리도 있어요.》

《그건 뭐요?》

《내 고향 시내가의 징검다리! 그건 아득한 태고적, 인류가 아직 건축이라는 말도 모르던 그때에 벌써 건설되어있었던 말예요. 어때요, 내가 이겼지요?》

《하, 이런 엉터리박사!...》

웃고 떠드는것은 건축연구소의 설계원 리은주와 이곳 묘향산등산도로의 다리건설을 맡고있는 시공일군총각이었다.

《난 말이요, 처음 이 다리설계를 보았을 때 혹시 아동영화촬영을 위해서 설계한게 아닌가 했더랬소. 아, 거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에 나오는 공중다리 말이요. 얼마나 깜찍하구 재미나던지...》

《난 말예요, 처음 동무가 이 다리를 라선형으로 하지 말구 직선으로 곧추 퍼자고 했을 때 속이 덜컹했어요. 이 동무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만 자꾸 할가? 이런 시대의 눈 먼 장님과 교제하다가 나도 락후분자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예요.》

《아니, 뭐 뭐라구?》

급히 뛰는 발자국소리, 돌멩이가 구르는 소리... 리은주가 먼저 가르르 웃어대고 뒤따라 고수머리총각도 제법 틀지게 웃기 시작한다. 시대의 젊은 이들이 여기 묘향산골짜기에 동화적인 등산다리뿐아니라 자기들의 소중한 사랑의 오작교도 건설하고있는것이다.

설계도면을 거둔 신정희는 조용히 바위우에 걸터앉았다. 그들을 방해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고개를 짓속이고 물끄러미 도면말이를 내려다보았다. 고수머리가 말한것처럼 재미나는 다리인것만은 틀림없다. 묘향산의 경사급한 골안을 묘하게 길잡이하면서 라선식으로 타래쳐올라가는 특색있는 도로와 다리... 리은주는 그것을 두고 자기는 이 다리에 가능한것 인민성을 구현해보려고 애썼노라고 했었다. 묘향산등산길에 오른 탐승객들을 생각해보시라. 그들이 절묘한 풍치에 마음이 끌려 노래하고 춤추며 올라가는 도로이고 다리이므로 우리 인민이 즐겨 추는 민족무용의 춤가락처럼 곡선을 살려 부드럽게, 조화롭게, 편안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설계하는것을 주되는 목표로 삼았다는것이였다.

그때 신정희는 머리를 기웃거렸었다. 그러나 그것을 내놓고 말할수는 없었다. 자기의 설계안이 기각된 이 상태에서 현대적건축물의 조형성과 실

용성, 세련미와 완성미를 두고 그 무슨 조언을 준다는것이 거북스럽게 여겨졌던것이다.

바람이 불어왔다. 숲속의 싱그러운 나무잎냄새... 한껏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난 신정희는 앞을 바라보았다. 아찔한 벼랑과 산밭을 향해 뻗어오른 등산도로, 눈썹리 아득한 이선남꼭포...

다시 걸음을 옮기려니 다리가 떨려나기 시작했다.

《아니, 신정희 선생님이 아닙니까?》 리은주의 목소리가 뒤덜미로 날아왔다. 되도록 그들을 방해하지 말자고 멀찍이 피하려 했었는데 그만... 처녀가 달려와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해주었다.

《선생님, 이런 험한 길을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라구...》

《괜찮아, 은주...》

그를 밀어놓고 다시 오르려던 신정희의 눈이 은근하고도 부드러운 빛으로 눈길을 끄는 처녀의 약손가락에 멈추어섰다. 은반지였다. 참나무늪과 옛스러운 구름늪이가 조화를 이룬 정교한 세공품, 저만치 뒤편에서 머뭇거리고있는 교수머리총각이 기념으로 준건지도 모른다. 며칠전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신정희는 머리를 기웃거렸었다. 너무 사치한건 아닌지? ... 우린 녀성들이지만 건축가들이니만큼 이런 치레거리에 눈팔기보다는 늘 창조의 사색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정희였다.

그러나 말은 다르게 했었다.

《은주, 참 고운 반지로구나. 하지만 건설장에서까지 이런걸 끼고다니면 남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그때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처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은반지를 소중히 끼고있다.

신정희는 눈길을 돌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그가 잊은 나무막대기를 쥐여주며 리은주가 속살거렸다.

《선생님, 건강을 좀 돌보십시오. 선생님이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잘 아시는 건축가가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더 훌륭한...》

막대기를 잡아쥐던 신정희는 두손이 굳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잘 아시는 건축가?!...

그랬다. 그는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신 녀성 건축가들중의 한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친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온 그였다.

고마워, 은주! ... 신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막대기를 꼭 그러쥐었다. 어디선가 먼 우뢰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을 울려다보았으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다. 허나 우뢰소리는 또다시 울려왔다. 꾸르릉, 꾸르릉!... 비로소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비내리던 그밤, 40여년전 그날의 아득히 먼 추억속에서 울려오는 우뢰소리라는것을.

...

고열에 신음하던 아버지.

《아버지, 정신차려요!》

아버지를 불안고 울고있는 어린 소녀애의 부름소리가 낡은 집의 작은 피창을 세차게 흔들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어린 정희의 손을 잡아주었다.

《정희야, 애야.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구선...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그 소녀—신정희의 아버지는 석도리관리위원장이었다. 낮동안에는 벌에 나가 살고 밤이면 또 농촌문화주택건설장에 나가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군 하였다. 하여 어머니없이 사는 어린 정희는 타발타발 산기슭의 건설장으로 찾아가거나 문밖에 오도카니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친 소녀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묻곤 했다.

《아버진 나보다 집짓는게 더 좋아?》

그럴 때 아버지는 딸애의 얼굴을 정겨운 눈길로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우리 정희가 제일 좋지. 그렇지만 아버지 집짓는 일두 좋아한다. 온 마을사람들을 다 덩실한 문화주택에서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니. 응?》

《학교두 짓나?》

《그럼!》

《영화관두 짓구?》

《그럼! 헌데 우린 영화두 보구 예술소조공연도 하구 회의도 하는 그런 큰집을 짓자는거다. 그 집을 문화회관이라구 하는데 아주 멋들어진 집을 짓자니까 농촌건설대에는 유능한 건축가가 없어 애를 먹고있구나.》

《건축가?》

《응, 집을 짓는 사람이지. 우리 정희도 이담에 크면 건축가가 되지 않을까?》

《싫어! 난 집짓는거 안할래.》

그러면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살아가자면 무엇보다 먹는것, 입는것, 쓰고사는 집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의식주라고 한다는것,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전 이웃농장에 오시여 인제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번듯한 문화주택을 세워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아버지 온 농장이 다 새 문화주택에 들 때까지 밤늦게까지 나가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래두 난 싫어, 혼자 자는거 싫어.》

정희는 우기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 어린것을 리해시키기 위해 골몰해야 했다. 《정희야, 아버지 재미나는거 또 하나 대줄가?...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건 신통히 다 한글자란다. 실례로 <쌀>, <옷>, <집>은 다 한글자로 되어있지?》

《응.》

《그럼 정희도 그런 한글자로 된 말을 찾아보렴. 얼마나 꼽는가 보자.》

어린 정희는 재빨리 눈을 굴리며 손가락으로 꼽아보았다.

《음... 쌀, 옷, 집, 그담은 물, 불 그리구 눈, 코, 입, 입에다 먹는 밥, 국, 떡, 맛있는 꿀과 엿!... 아니, 또 있어. 하늘에 나는 고운 새와 벌, 그담엔 저기보이는 땅! 그리구 산, 강, 해와 달,별!...》

신기한 일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은 모두 다 한글자로 되어있었다. 그중에서도 쌀, 옷, 집이 제일 첫번째라는것이 인젠 험듬해졌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세상 좋은건 다 꼽으면서두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건 빠뜨렸구나.》

《그게 뭐나?》

《술!...》

《아냐, 싫어, 난 싫어. 세상에서 제일 나쁜건 술이야!》

어린 정희가 머리를 흔들며 야단을 치자 아버지는 또 소리내어 웃었다.

《그럼 집짓는일은 어땜니? 생각해보렴. 우린 농사짓는 사람들이니 쌀은 우리가 생산하는거구... 그담 옷은 상점에서 사서 입지? 하지만 집은 상점에서 파는게 아니잖니, 누가 와서 지어주는것두 아니구... 그러니 우리가 건설대아씨들을 도와 지어야겠지?!...》

《응, 그래. 나두 이담 크면 비가 안 새는 좋은 집 지을래.》

《그래, 우리 정희 정말 용쿠나.》

이렇게 그때 정희는 그리도 어린 나이에 그 의미도 다 알지 못한채 아버지에게 먼 장래의 희망을, 집과의 인연, 건축과의 인연을 약속한것이였다.

그것은 신정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동요 시절의 한토막 추억이였다.

그러던 아버지가 그만 고열에 쓰러졌다.

《아버지!—》

사정없이 쓸어든 비바람이 창턱에 놓아두었던 꽃화분을 밀어뜨렸다. 토방에 흘날리던 붉은 보라색꽃잎들, 산산조각이 나 덩굴던 화분...

집을 뛰쳐나온 소녀는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리당위원장아저씨!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요!》

어둠을 짓태우며 번개가 번쩍이였다. 뒤따라 하늘을 으깨는듯 하던 무서운 천둥소리...

《짜르릉!—》

길바닥에 나동그라진 소녀는 공포에 허둥거렸다. 또다시 산과 들을 뒤흔들며 울리는 천둥소리...

소녀는 줄곧 누군가를 목메여부르며 소리쳐울었다. ...

5

그날은 봄빛이 무르녹는 어느 레사로운 보통날이였다.

그날 김정일동지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시험통신위성인《광명성2》호가 운반로켓트《은하—2》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오르는 전과정을 몸소 지켜보고계시였다.

가없이 넓은 바다의 푸른 물결, 그 물결위에 펼쳐진 조선의 맑은 하늘... 평음이 터졌다. 성공적인 발사! ... 우리의 《광명성2》호가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소리였다.

지구가 몸을 떨었다. ...

...

김정일동지께서 대기실에 들어서시자 당중앙위원회와 수도건설부의 여러 일군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이께 인사를 올리였다. 모두가 기쁨에 넘친 얼굴들이였다. 신문과 방송, 텔레비존을 통하여 우리의 《광명성2》호 발사소식이 세상을 들었다들고있는것이다.

《장군님, 지금 온 세계가 벽작 떠들고있습니

다.》

《예, 온통 우리의 위성발사소식뿐입니다.》

《미국과 일본놈들두 짝소리 못합니다.》

장군님께서는 크게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세상사람들이야 왁작 떠들겠으면 떠들구 맘대로 하라고 합시다. 대신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겠소, 할일이 많으니까. 자, 여기 가까이들 오시오.》

그이께서는 그들모두를 도시설계연구원에서 열린 대형살림집모형사관앞으로 이끄시었다. 자신께서는 두팔을 엇걸으시고 모형사관을 살펴보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덩치가 크고 긴 고층살림집을 가리키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었다.

《여긴 옛성처럼 왜 높이 쌓아올렸소?》

《…》

누구도 그에 대하여 대답올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콕 막아놓으면 숨이나 제대로 쉬겠소? 만수대거리의 아담하고 아늑한 거리로 되여야 합니다. 층수가 지내 높지 말아야 하고 곡선형, Z자형, 탑식형 등 건물을 다양하게 형성해야 합니다. 건물이 지내 커도 안되며 또 길어도 안됩니다.》

이 모형사관 역시 처음 보아주시는것은 아니다. 벌써 몇번씩이나 보아주시였고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때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무엇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소심하게 수정하는지 알수 없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엇걸었던 두팔을 내리우시며 몇발 자국뒤로 물러서시었다.

《이만한 거리에 서면 아마 옥류교입구쯤 될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 어떻소? 만수대거리로 들어가는 입구의 랑쪽집들이 아직 이렇게 높으니거리가 골목처럼 보이지 않소? 겨울엔 북쪽이여서 그들이 질게구.》

그이의 빠른 손짓을 따라 모형사관에서 잠시도 눈길을 떼지 않고있던 수도건설부의 책임일군이 무엇인가 또 수첩에 적어넣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는 그가 들고있는 수첩을 가볍게 두드리시었다.

《이것 보시오. 내 생각엔 저쪽 창광거리입구부분은 창광거리에 어울리게 10층이나 18층까지 선택하고 만수대언덕주변에 련결된 기념비적건물들에 손상이 가지 않게 이쪽을 7층으로 낮추는게 좋을것 같소. 그리고 여기 보통문앞을 막고있는 이 두동의 아빠트는 없애버립시다. 앞이 환히 트이게 말이요.》

《예, 그게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수첩에 적고있는 책임일군을 여겨보시던 그이께서 이번엔 뒤쪽으로 눈길을 옮기시었다.

《건축연구소 소장동무, 동무의 의견은 어떻소?》

뒤쪽에 서있던 한 일군이 앞으로 쑥 나섰다.

반백의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장대한 체구의 사람이었다. 그는 곧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며 거리형성안이 우리 인민의 미학적요구와 현대성의 요구에 맞게 잘되었다는것을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시며 누구에게라없이 다시 물으시었다.

《살림집면적기준은 어떻게 정했소?》

이번엔 수도건설부의 책임일군이 대답올렸다.

《매칸마다 국가표준대로 정했습니다.》

그이께서 머리를 끄덕이신다.

문득 옛 풍경화 《꿈에 본 동산》에 그려진 작은 초가집이 떠오르시었다. 옛사람들의 소박한 꿈과 념원이 깃든 작은 초가집…

그 자그마한 초가삼간에서 행복하게 살고싶은 우리 인민의 소박한 꿈과 념원은 오랜 세월을 넘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살려는 세기적인 숙망으로 이어졌었다.

인민의 이 세기적인 숙망은 아버지수령님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에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살림집들이 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하고 쓸모있는 생활처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보금자리로 되고있다.

그러나… 하나를 주면 열을 주고싶은 우리 인민,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껴오신 우리 인민!… 이 사랑하는 인민에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는 더 넓고 더 큰 집, 세상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고싶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깊은 밤 길가에서 만난 그 젊은 녀인과 그의 시어머니처럼 아직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수 있다고 하는 그 소박하고 강직한 우리 인민이 살게 될 아늑하고 따스한 보금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지어주고싶으신 그이 이시었다.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조용히 되이시었다.

《나는 이제 우리가 건설하게 될 이 만수대거리 살림집을 강성대국에서 우리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의 본보기로 되게 하자는것이요, 본보기로!…》

모든 일군들이 저도 모르게 그이의 그 말씀을 따라와왔다.

《본보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온 우리 인민들이요. 변함없이 당만을 믿고 따라온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는것이 바로 나의 결심이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본보기살림집이 되겠는가?...》

장군님께서는 이어 새로 건설하는 만수대거리 살림집의 공동살림방을 중심에 넓게 주고 침실과 생활요소를 배치하는 문제, 주부들이 편리하게 부엌을 현관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문제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문소리가 났다. 책임서기가 조용히 들어섰다. 마침내 시간이 된것이다. 장군님의 하루일과는 치차처럼 맞물려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시계를 보시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는가?... 그럼 오늘은 이만합시다.》

문밖으로 향하시던 그이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일군들쪽으로 돌아서시었다.

《가만, 건축연구소 소장동무, 신정희동문 요즘 뭘하고있소?》

건축연구소 소장이 잔걸음으로 다가왔다.

《장군님, 지금 그 동문 묘향산등산도로건설장에 나갔습시다.》

《묘향산에?》

《예, 자기의 설계가 우리 식으로 되지 못하여 기각된것때문에 마음쓰고있었는데... 본인이 현실에 나가 더 배우겠다고 제기하기에 내보냈습시다.》

그이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었다. 부지중 그 어떤 아픔이 밀물처럼 마음속으로 밀려드는것을 느끼시었다.

오래전에 보셨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목선 소리로 흐느껴울던 소녀...

그날 길가에 넘어진 어린 소녀를 안고오신 그이께서는 깨어진 꽃화분을 그려안고 울먹이는 소녀를 아프게 바라보시었다.

《일일초꽃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요. ... 아버지두 앓구 이 꽃두 앓구...》

급히 달려온 리당위원장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눈빛은 준절하였다.

《참, 가슴이 아쁩니다. 리당위원장동무가 옆에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리당위원장은 입술만 우물거릴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이께서 계속하시었다.

《온 농장사람들에게 새 문화주택을 지어주고 덩치 큰 문화회관까지 일떠세우는 관리위원장이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두툼한 입술을 꼭 깨물고있던 리당위원장이 자책 어린 눈길을 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그만... 일을 쓰게 못했습니다. 사실 우린 새로 지은 문화주택을 먼저 사용하라고 했는데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전체 농장원들을 문화주택에 이사시키기 전엔 절대로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그가 고집했던 말입니까?》

《예.》

그이께서는 눈길을 돌리시어 희뵤한 새벽빛에 드러난 낡은 집을 다시 살펴보시었다.

거칠게 회칠을 한 흙벽이며 비닐을 댄 창문과 고삭은 버짚이영... 한 농촌마을의 이름없는 관리위원장이 살던 집이다.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를 다바친 새 세대의 농촌혁명이이며 참된 한 당원이 살던 집...

그때 소녀가 움지락거리며 흐느꼈다.

《아버지...》

그이께서는 품에 안겨 떨고있는 어린 소녀를 감싼 후렁후렁한 옷깃을 꼭꼭 여며주시었다.

《걱정말아. 정희야, 너의 아버지진 이제 평양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했다. 그러니 다 잘 될거다.》

《정말이나요?》

《그럼! ... 이제부턴 우리 정희도 비가 안새는 좋은 집에서 살게 되구.》

《야, 좋네. 난 그럼 이다음 커서 좋은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될래요.》

《정말이나?》

《예, 아버지하구두 약속했어요.》

《용쿠나. 그럼 나하고도 약속할가?》

《예, 좋아요. 약속해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한생의 약속인지 그때 애 어린 정희가 알거나 하였을가?...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신정희가 다 자랐을 때 건설건설대학에서 공부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졸업하자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뜻대로 건축연구소에서 일하게 하시고 중요한 대상건설설계가 나설 때마다 그에게 맡겨주시였으며 자그마한 성과라도 대견하게 여기고 크게 평가해주곤 하시었다.

그런데 지금 신정희는 어떻게 변모되고있는가? 그새 늙아졌는가, 아니면 시대를 감각하는 마음이 무더졌는가...

6

인민군장령인 차석주를 따라 중대에 들어선 신정희와 도시설계연구원의 건축가들은 놀란 눈길로 중대의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병영구내, 구도상 잘 배치되어있는 건물들과 무성하게 자라난 아카시아나무들...

차석주가 그 아카시아나무들을 가리켰다.

《장군님께서 이 중대에 오셨을 때는 아카시아꽃들이 다 피었겠소. 그 향기가 정말 요란했소.》

신정희는 얼마나든 아카시아나무를 바라보았

다.

차석주가 계속했다.

《동무들, 저 나무우의 새둥지들을 보시오. 저걸 보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오.》

《예.》

《그날 장군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는데 저기 측사에서 염소와 계사니들이 울어대지 않겠소. 그러자 장군님께선 〈하, 저 짐승들이 날 찾는것 같구만.〉 라고 하시며 곧장 그리로 발걸음을 옮기시었소.》

…그날 측사에서 중대의 집짐승마리수와 염소 젖공급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 토끼우리앞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렁강아지 한마리가 바르르 달려나와 말뚱히 쳐다보며 토방에 올라섰다. 한동안 호기심어린 눈으로 손님들을 살피던 강아지가 머리를 가우뚱거리며 꼬리를 흔들며었다. 틀림없이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생각한것 같았다. 그 모양을 보신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여기 누렁개가 다 있구만.》

목소가 터졌다. 주먹만 한 강아지를 《개》라고 불러주시는 그 말씀에 그만 모든 수행원들의 웃음집이 흔들렸던것이다.

그날 장군님께 기쁨드린것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식당의 조리대우에 놓인 참나물, 곰취, 고사리와 같은 산나물들과 돼지고기, 닭고기와 가재미, 멸치 같은 수산물은 물론 반들반들한 부두막과 윤기흐르는 가마뚜껑, 밝고 정갈하고 따뜻한 온기로 꽉 차있는 병실 그리고 병영주변에 심은 추리나무와 살구나무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는 모든것이 다 기쁨이 되었다.

《그야말로 무릉도원이요.》

그이께서 밝게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다.

《옛적의 어느 화가가 그린 꿈에 본 북송아동산은 여기에 대비조차 할수 없소. 정말 멋있소!》

특히 그날 차석주의 가슴을 뜨겁게 울린것은 그다음 중대장에게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었다.

《중대장, 동무들은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누만, 음?...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아.》

그이께서는 놀라는 중대장을 바라보시며 일군들과 또다시 즐겁게 웃으시었다. 그러나 차석주는 웃을수 없었다. 가슴속으로 뜨거운것이 흘러드는것을 느꼈다.

그날 장군님께서 아담하고 따뜻한, 보기 좋고 편리한 중대병영을 몇번이고 다시 둘러보시면서 이런것이 바로 노래에 나오는 나의 중대, 정든 나의 집이라고, 우리 병사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을 이런 좋은 집, 아담하고 따뜻하며 정이 폭 드는 집들에서 살게 하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었다.

그날의 가슴뜨겁던 생각을 더듬던 차석주는 불

현듯 신정희와 도시설계연구원의 건축가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였다.

《동무들, 인젠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어떤 집을 안겨주시려 하시는지 잘 알겠지요?》

사람들이 흥분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깨닫는바가 많습니다.》

《예, 현대적이면서도 민족적인 향취가 깃든 살림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신정희만은 입을 열수 없었다. 오직 앞으로 갓! 하는 구령과 명령집행에만 습관된 우리 군인들이 건설한 밝고 따스한 집, 엄격한 군사규정과 규률에 익숙된 병사들이 창조한 아늑한 집, 이런 집이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아담하고 정이 드는 집인것이다!... 그런데 그새 나는 무엇을 추구했던가?...

불현듯 얼마전 《광명성2》호발사와 관련된 텔레비죤보도에서 본 하나의 장면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그날 텔레비죤에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위성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장면이 이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위성발사를 기념하여 나무를 심는 장면도 방영되었었다. 성공의 축하잔이 아니라 나무를 심고있었다. 보다 훌륭한 래일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심고있었다.

바로 이런것이 우리 장군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인민을 위한 애국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신정희 너는? ... 건축가에게 있어 언제나 독특하고 개성적인 건축물을 추구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너무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이렇듯 아담하고 민족적인 정서가 넘쳐나는 집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요란하고 추상적인 살림집만을 생각했으니 과연 너 신정희는 지금껏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마음, 인민에 대한 헌신적사랑과 그리도 멀리 떨어져있었던 말인가?...

가슴이 쓰러났다. 후회와 자책, 아픔과 피로움...

7

벽찬 날들이, 창조의 날들이 흘러 어느덧 모든것이 무르익는 가을이 왔다.

만수대거리를 찾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양한 형식의 다층살림집들이 아담하게 들어앉은 거리를 한눈에 쭉 둘러보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었다.

《음, 멋있소. 옛모습을 찾아볼수 없구만. 1년 남짓한 기간에 정말 큰일을 했소.》

입구에 세워진 전경도와 총배치도를 지나신 그

이께서는 먼저 걸음을 옮기시어 어느 한 살림집에 들어서시었다. 당중앙위원회와 수도건설부의 여러 일군들이 그이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수첩을 손에 쥐고 장군님옆에 바짝 붙어서 갔다.

차석주는 얼마간 뒤떨어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쨌든 여기서는 건설부문의 일군들이 주인이였으므로 그들에게 앞자리를 양보해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자주 목을 빼들고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바짝 귀를 강구곤 했다.

장군님께서는 먼저 주부들에게 편리하게 꾸려진 부엌과 그와 잇달린 식사칸, 큰 공동살림방을 거쳐 서재가 달린 침실을 비롯한 여러개의 방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었다.

한순간 그이께서는 세면장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더운물이 찰랑거리는 흰 욕조와 흰 세면대, 천정에 이르기까지 눈처럼 하얀 타일을 붙인 네면의 벽, 온통 흰것으로 조화를 이룬 세면장은 그 지없이 정갈하고 깨끗했다. 그이께서는 벽에 붙인 타일을 눌러보시고 손가락뒤등으로 가볍게 두들겨보기도 하신 끝에 일군들에게 뭐라고 하시었다. 여러 일군들의 뒤쪽에 서있는 차석주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

다시 공동살림방으로 나오신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바닥을 내려다보시었다.

《이 나무바닥은 어디거요?》

수도건설부의 한 일군이 나서면서 재빨리 말씀을 올렸다.

《우리 가구공장에서 나오는 가공마루입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있는데 수요가 높습니다.》

《음... 다 우리것으로 했으니 얼마나 좋소.》

그이께서는 이어 거의 웅근 한벽을 다 차지하는 커다란 수직창과 물가열기, 랭온풍기, 넓은 베란다며 복도에 놓인 고속승강기까지 일일이 돌아보시었다. 보시는 모든것이 만족하시어 그이께서는 다른 두개의 살림집을 더 돌아보시고 밖으로 나오시었다.

아담하고 아늑한 살림집거리가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보통문과 옥류교를 이어주며 시원하게 뻗은 도로와 색블로크로 장식을 한 걸음길, 랑옆에 줄지어 심은 살구나무와 은행나무, 곡선형과 Z자형, 탑형과 조선식지붕을 씌운 묶음식으로 된 다양한 형식의 다층살림집들...

무엇인가 부지런히 적고있는 수도건설부의 책임일군을 피곳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뒤쪽에서 목을 뽑고있는 다른 일군을 찾으시었다.

《그런데 왜 봉사시설들은 보이지 않소? 저기 있는건 기념품상점이요?》

한 일군이 앞으로 손을 모아쥐며 나섰다.

《이곳에 원래 급양망과 식료상점이 있긴 있었는데...》

가벼운 손짓으로 그의 이야기를 막으신 장군님

께서는 한 일군에게 몸을 돌리시었다.

《앞으로 여기 만수대거리에 세탁소와 약국, 락아소와 유치원 그리고 편의봉사시설들을 더 내와야 하겠소. 살림집지구인데 있을것은 다 있어야 하지 않겠소.》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이께서는 다시 아늑한 만수대거리를 바라보시었다. 마음에 드시었다. 어느모로 보나 우리 인민의 고유한 심리적특성과 민족적감정과 구미에 맞는 우리 식의 건축물들이었다.

예로부터 건축은 예술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이면서도 예술인 건축... 즉 점과 선, 면과 공간, 덩어리와 같은 물질적표현수단들과 수학, 물리학, 화학, 구조력학, 측량학 지어 천문학까지 포괄하는 광범한 과학기술적토대에 기초한 예술이며 또 공학기술적조명과 색채, 장식, 음악, 물동, 구조조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며 결합된 실용적인 예술, 사상정서적인 예술인것이다.

바로 그러한 건축의 본질적특성과 함께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구미에 맞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창조물들이 여기 아늑한 만수대거리를 꽉 채우고 있다.

그이께서는 시종 밝게 웃고계시었다.

《훌륭합니다. 아주 멋쟁이입니다.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잘했습니다. 살림집충고도 알맞춤합니다. 정말 흠잡을데가 없습니다. 만점짜리입니다.》

수도건설부의 일군들은 노상 입을 다물지 못하고있었다.

뒤쪽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차석주는 장군님께서 이 살림집들을 위해서만도 얼마나 많은 로고를 바치셨는가를 생각하였다. 이제 이 희한한 살림집에서 살게 될 사람들도 아마 그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할것이다. 전선길 굵이굵이에서,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앞둔 준엄한 정세속에서 이 하나하나의 살림집들을 더 좋게, 더 훌륭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마음쓰셨는가를...

한순간 차석주는 수도건설부 일군들의 등뒤에 바짝 붙어섰다. 장군님께서 감회깊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정말 최상의 살림집이요. 살림집들이 하도 좋으니 나도 여기에서 살고싶은 생각이 드는구만.》

건설부문의 일군들은 여전히 벅글서 웃고있었지만 이번에도 차석주만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몽클한 감정에 눈굽을 실룩거렸다. 군부대의 중대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가!...

장군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린 앞으로 수도에 건설하는 10만세대살림집들을 모두 여기 만수대거리살림집수준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한순간 모든 일꾼들이 얼어붙었다. 무엇인가 수첩에 계속 적고있던 수도건설부의 책임일꾼도 굳어져버렸다. 장군님의 말씀에 귀를 강고고있던 당중앙위원회 일꾼들도 입을 벌린채 그이를 우러러 보고있었다.

그이께서 여러 일꾼들을 둘러보시었다.

《왜 놀랍니까. 이 만수대거리건설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사람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10만세대살림집들도 다 만수대거리살림집수준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으며 고생도 많이 한 우리 인민들을 이제는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 잘살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당의 구상이고 나의 결심입니다.》

해빛이 밝게 비쳤다. 눈부신 해빛은 색블록들간 걸음길이며 넓은 길 양옆에 심은 살구나무와 은행나무 그리고 여러가지 형식으로 세워진 현대적이며 아담한 만수대거리살림집들을 칠색무지개 빛으로 황홀하게 비쳐주고있었다.

8

수백세대가 한꺼번에 입사하는 만수대거리는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이사짐을 실은 차들이 꼬리를 물고 련이어 들어서고 입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집을 싣고 부리기 위해 온 사람들, 거기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까지 끼여들어 북비여 거리는 명절마냥 흥성이었다. 만수대거리에 달려온 신정희도 입사하는 어느 한 집의 가장집물을 날라주는데 뛰어들었다.

《예구,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놔두시오.》

주름진 얼굴에 시종 웃음이 넘쳐나고있는 주인 집할머니가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인 아들이 받은 집이라고 했다.

《예? 화력발전련합기업소?...》

《그렇다우, 열생산직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는 김춘호라구... 글쎄 우리 아들이 이 집을 받지 않았겠수.》

《예, 정말 기쁘겠습니다.》

《기쁘다마다요. 현대... 거기선 무슨 일을 보시는지? ... 아, 알만 하웨다. 기자선생이지요?》

할머니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뒤쪽에 대고 소리쳤다.

《철이 예미야, 여기 기자선생이 오셨다. 와서 지난해 깊은 야밤에 장군님을 만나뵈던 얘기를 또 하려무나. 그리고 그날 새벽 장군님께서 보내 주신 생일선물을 한가득 안은 애아버지가 꿈같이

집에 들어서던 그 이야기랑...》

얘기를 안은 젊은 녀인이 다가오며 가볍게 눈인사를 했다. 신정희가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 난 기자가 아니예요. 실은 건축가인데...》

《오, 건축가?!》

이번에도 할머니가 먼저 눈귀를 쏘프리며 무언가 생각하더니 환히 웃으며 반색하였다.

《그러니 이 집을 지은 사람이구려, 예? 정말 고맙수다.》

신정희는 펄쩍 뛰지 않을수 없었다. 황급히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은덕에 대하여 말하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왜 모르겠수. 우리도 다 알지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 이런 희한한 집을 지어주셨다는것을!...》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진한 눈물이 고여올랐다. 진정으로 되는 감사와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신정희는 뼈아픈 자책으로 하여 얼굴을 들수 없었다. 별안간 어린 소녀때처럼 아버지를 부르며 소리쳐 울고싶었다.

《정희야, 부탁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꼭 훌륭한 건축가가 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집을 많이많이 지어라. ...》

오래전 마음속에 새겨둔 아버지의 당부... 아버지, 인젠 저도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인민의 집,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갖춘 집이 어떤것인가를 말이에요!...

문득 붉은 보라색꽃잎이 떠올랐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매일 아침 피고피는 일일초... 남달리 밝고 따스한 온기를 바라는 그 꽃이 여기 만수대거리살림집에서라면 엄혹한 겨울에도 하루같이 곱게 피어날것이다. ...

그는 할머니와 젊은 며느리가 붙잡는것을 가까스로 만류하고 거리로 걸어갔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부르며 달려왔다.

《신정희선생! 저예요, 은주!》

《오, 은주!... 현대 여긴 어떻게?!》

《만수대거리의 경사를 보러 왔지요 뭐.》

얼마전 묘향산등산도로건설을 끝내고 설계실에 돌아온 처녀는 아직도 얼굴이 감실감실했다. 웃고있는 처녀의 뒤쪽에 서있던 시공일꾼인 교수머리 청년이 말했다.

《텔레비죤방송모임에 참가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 그렇군요. ...》

신정희는 웃음을 머금고 두사람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이들 청춘남녀는 건설이라는 하나의 지향, 하나의 공통언어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다. 하기에 사랑도 건설이라는것을,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정성을 기초로 한 인생의 건축물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사람들이다.

《은주, 축하해!》

《아이, 선생님이란 많이 도와주셔서...》

해빛에 은반지가 반짝이였다. 순간 어쩌서 그것이 그리도 정답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알수 없었다. 사랑의 언약으로 약속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관습이 아닌가. 이 오랜 풍습을 하나의 쓸데없는 걸치레로, 세속적인 취미로 치부해버렸던 자신이 돌이켜지면서 민망스러웠다.

《은주, 난 앞으로 은주에게서 많이 배우겠어.》

《아이 선생님, 무슨 말씀일...》

웃고 떠드는 소리들이 가까이에서 울려왔다. 텔레비전촬영가들이 새집에 이사하는 복받은 사람들을 찍고있었다.

신정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득히 높고 푸른 하늘에서 쏟아지는 밝은 해빛...

저 눈부신 해빛, 한없이 파사로운 저 빛과 열을 떠나 우리는 한시도 살지 못한다.

9

최전연의 밤.

눈내리는 전선길의 험한 령을 뚫아오르던 승용차는 차츰 숨가쁘게 험덕이기 시작했다. 경사급한 구배길에서 차바퀴가 지치려들며 웅— 웅— 공회전을 하는것이였다.

《아무래도 차를 밀어야겠소.》

장군님께서 승용차의 문을 여시자 부관과 차석주가 거의 동시에 뛰어내렸다.

《장군님! 저희들이 밀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장군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어 뒤바퀴쪽에 어깨를 들이미시였다.

《자, 다같이 힘을 쓰지요!》

뒤따르던 군단장의 차에서도 사람들이 뛰어내렸다. 모두 달라붙어 차를 밀기 시작했다.

차석주는 불안간 눈곱이 찌르르해왔다. 어떤지 목이 메여왔다.

《왜 그러오, 차동무?》

장군님께서 차를 미시며 그를 쳐다보시였다.

《장군님, 눈덮인 저 산밭을 보니 웬일인지 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길은 왜 이리도 험하기만 할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왜 그렇게만 생각하오. 얼마나 멋있는 풍경인데... 나에겐 저 흰눈덮인 아득한 산밭도 우리가 일떠세우는 강성대국의 희한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소. 하늘높이 솟아오른 현대적인 공장파 기업소들 그리고 만수대거리의 희한한 살림집들처럼 말이요! 그렇지 않소?》

장군님께서서는 두눈만 습벅이는 차석주를 보시며 불현듯 녀성건축가 신정희가 올린 편지를 상기하시였다.

《...장군님의 사랑속에 인민의 집, 민족의 집이 어떤것인지 똑똑히 깨닫게 된 이 신정희는 10만 세대살림집건설에 달려나가 아버지장군님의 높은 신 뜻을 받들고 현실로 꽃피우겠습니다. 한생을 다 바쳐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인민의 집을 짓겠습니다. ...》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럴테지, 훌륭한 그 아버지의 딸이 어디 가겠는가, 이제 그는 인민의 마음을 안고사는 참된 건축가로 한생을 빛내일것이다. ...

차츰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와 노래들에서 정답게 불리우는 함박눈...

장군님께서서는 차를 밀고있는 어깨에 힘을 주시였다. 눈!... 눈!... 흰눈! ... 이 흰눈은 여기 령길에만이 아니라 인민들이 굳잠에 든 아득한 만수대거리살림집창가에도 소리없이 내리고있을것이다. ...

경구, 격언

- 손님에게는 밥을 아끼지 말라
- 친한 사이에도 례의가 있어야 한다
- 허물없이 놀더라도 손님임을 잊지 말라
- 오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에 무관심하지 말며 오라는 말을 못 들었으면 절대로 비치지 말라
- 부르는 곳에는 가지만 부르지 않는 곳에는

- 가지 말라
- 부르지 않는 잔치에는 가지 말라
- 좋은 손님은 시간을 안다
- 아름다운 몸가짐은 미술중의 미술이다
- 사람을 존경하지 웃을 존경하지 말라
- 사람의 가치는 지혜와 점잖은 행동에 있다

창성에 봄이 오니

한원희

창성에 봄이 오니
창성에 꽃이 피었네
산에 산마다 골에 골마다
구름같이 피었네

하얀 돌배꽃 짙광이꽃
연분홍산벚꽃 밤빛도토리꽃
어딜 보나 울긋불긋
하늘땅에 꽃천지

이 봄엔 꽃풍년
가을엔 산과일풍년이라
식료공장처녀들의 얼굴에도
고운 웃음 고운 꽃이 만발했네

꽃에 묻힌 높은령 굽이굽이
아버이수령님 오늘도 오실듯

추억깊은 이 가슴 굽이굽이
그리움은 천리만리 피어나네

피어나네 피어나 그리웁네
세월을 이어 그 사랑 이어
령넘어 또다시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꽃속에 향기속에 목메여오네
수령님 안아오신 꽃
열대로 행복으로 주렁지우신
장군님 그 은정 꽃세계를 펼쳤네

창성에 봄이 오니
수령님과 장군님 함께 오신듯
산은 산마다 골은 골마다
꽃을 안고 일어서네 일어서네

성독령마루에서 (외 1 편)

김명철

장군님 다녀가신 창성땅을 돌아보고
삭주로 넘어가는 길
생각깊은 마음을 안고
나는 지금 여기 서있다
사연도 깊은 너 성독령마루여!—

예가 아니더냐
전쟁후 이태가 지난 어느 가을날
무거운 짐을 이고 진 너인들
령길로 오르는것을 보시고
우리 수령님 차를 멈춰세우신 곳이

산열매를 따가지고 삭주시장에 간다는
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산열매를 가공할 공장이 없어서
이처럼 힘겹게 멀리 지고 간다고

가슴아프시여 말씀하시던 수령님

아, 그날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장을 보라고
창성너인들을 떠나보내신 뒤에도
생각이 많으시여 오래도록 서계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 안겨오는 령길이어

그날로부터 산간군사람들의 생활을 위해
이 산간벽촌에 정을 다 쏟으시며
너를 넘어 걸으신 길은 얼마이더냐
그 길에서 지새우신 밤은 또 얼마이고
그 길에서 맞으신 눈비는 또 얼마이더냐

그 옛날 촌바우라 불리우던 창성사람들
그들을 위해 국가의 큰 회의도 여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받들려
읍거리 가득 아담한 공장들이 일떠서고
골짜기마다 리상촌이 펼쳐진 창성땅

수령님의 념원을 자신의 리상으로 안으시고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우리 장군님
지난해 11월 성독령 너를 또 넘으시여
지방공업혁명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창성땅을 더 훌륭히 꾸려갈 전망 밝혀주시었거니

아, 내 지금 여기에 올라서서
홍하는 창성땅을 다시 바라보니
안겨오는 모든것이 아름다운 그림 같고
들려오는 모든것이 즐거운 노래 같아

이 가슴 후터워지는 성독령마루여

이제 황금산마다에 차넘치는 천연원료들로
현대화된 공장들 쉬임없이 돌아가고
거기서 쏟아져나온 질 좋은 특산품들이
온 군을 채우고도 남아
이 령을 넘어 온 나라로 실려가려니

성독령아 네우에 세월이 흐른다
령높은 고장일수록 사랑을 더 주고
골깊은 고장일수록 생활을 더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가 흐르고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흘러가고있다!

창성의 봄산천

예로부터 창성은 산이 많아서
봄도 늦게 온다 전해왔건만
어허 올해따라 철이 이른지
진달래 살구꽃이 엇그제 졌는데
산발마다 웃음이고 골짜기마다 노래요

이른새벽 바구니에 점심밥을 싸넣고
식료공장정문을 떠난 사람들
높은 령 안개속을 헤치고 오르더니
두릅이 싹해선가 참나물이 많아선가
떠들썩한 그 소리에 숲도 춤을 추는듯

약수골에 쪽 덮인 세신판을 타고앉아
약초캐기에 신바람난 저 녀인들도
노루재등 더덕이 낫자루만 하다고
손나팔로 소리치는 저 처녀들도
캐는것은 보물이요 담는것은 행복이라

보구려 새파란 저 풀판
이 봄에 불어난 양떼를 세여보던
빨간 머리수건 사양공치녀
이 골 저 골 올라가는 그 메아리속에
산마루를 향해서서 밝게도 웃는것을

얼마나 좋소 이 봄 이 산천
산에서 안아내린 나물야초 그득 싹고
연방 달려가는 저 차들의 경적소리
식료공장 제약공장 그 덩실한 창고들에
천정가득 자재들을 쌓아가는 저 풍경

천연원료들은 무진장하겠다
기계설비들도 최첨단이겠다
이제 저 공장들 쉬임없이 돌아가면
갖가지 식료품들과 약품들이
창성의 특산물로 쏟아져나오려니

아무렴, 이 봄의 창성은
우리 산골사람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
지난해 11월에 또 오신 장군님
지방공업혁명의 봉화를 지펴주신
그 후터운 숨결로 들끓는 산천!

제 고장 자원으로 제 살림을 꽃피워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산에 골에 펼쳐나선 우리 창성사람들
그 모습이 꽃보다 아름다운 산천이요!
그 마음이 훈향으로 차넘치는 산천이요!

봄인줄만 알았더니...

유련희

파릇파릇
아기작 움트는 령 넘어설 뎨
나서 처음 찾아오는 두메창성에
봄에도 이른봄인줄만 알았더니

밭그스레
숫저운 진달래웃음 가슴에 안고
식료공장 가공반에 내 들어서니
어마나 글썽 회한하기란...

기대마다 줄지어 흘러나오는
오미자탄산수며 짙광이단물
머루 다래 돌배단줄임 도토리단묵
선도 넘고 백도 넘는 가지가지 멋쟁이식료품들

현대화불바람 세차게 일어
작업반마다 들끓어버치니
이 마음도 저절로 흐뭇해지는
산나물가공식료품 산열매가공품

걸음걸음 감탄도 흥이로구나
제약공장 직물공장 또 종이공장
황금산도 굵이굵이 다 돌아보니
문득 가슴치는 하나의 생각

공장마다 산같은 원료더미 타고앉아
행복의 열매들 쏟아내고 쌓아가니
상점마다 집집마다 높아만 가는
즐거운 웃음소리 기쁜 노래소리

어쩌면 모든것이
이다지도 풍요할가
지방공업혁명의 봉화가 타번져
창성땅은 어디 가나 특산물천지라네

아아, 창성! 봄인줄만 알았더니
은혜로운 해빛이 이 산천을 쓰다듬어
계절은 봄이지만 가을도 풍요한 가을에
네가 사는구나 창성이 사는구나!

황금산의 메아리

두메라 창성
아아한 성독령 넘어가고
황금산의 산과실단물들을 넘쳐실고
식료차가 떠나가고 놀랍구려
평양에도 보내준다오

고운 손 흔들며 바래주는
공장의 아주머니들 알뜰한 처녀들
출장은 손님들도 제일이라 칭찬하는
산딸기단물 머루 다래단물...
운전사가 한마디 남겨주는 우스개소리
—도시제품이 왔다가 울고 가겠소
까르르 쏟아지는 청맑은 웃음 끝안을 깨치오

지난해 11월
공장을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친히 맛까지 보아주신 단물
산간군식료공장에서 만든거라 믿기 어렵겠다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만큼 질이 높다고
평양에도 보내주어야 한대시며
창성의 지방공업 자랑높이 내세워주시었거니

땀흘려 산을 가꿔 산을 살찌워
산열매 산나물 저장고마다 배불러

현대화된 은빛설비 밤낮없는 우렁찬 동음은
끝없이 노래부르오 아버이의 그 은정
장군님구상 남먼저 받들어
무진장한 지방원료에 현대화를 더했더니
이 아니라 황금산의 아리랑
집집마다 특산물식품 웃음꽃이 폈소
매대마다 창성제품 회한하다오

올려가고 올려가고
황금산의 메아리 온 나라에 울려가고
꽃피는 인민생활 밝고 환한 웃음
산간벽지그늘을 떠밀어내는 소리
높이 솟은 성독령도 키를 낮추네
도시와 농촌사이 먼길이
이웃으로 가까워지는 소리

중앙공업에 지방공업 어깨나란히 세워주신
우리 장군님 그 뜻이 정말 좋구려
당을 받드는 그 한마음으로
인민생활향상대진군 앞장서나가는
아, 창성의 메아리 온 나라에 울려가고
—황금산 그 이름으로
두메산촌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리라

산촌의 매대앞에서

박경철

변화한 도시의 상점매대이든 작은 야간매대이든 상품매대와 인연을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창조한 상품을 바로 그 매대에서 살 때 느끼게 되는 긍지와 보람이야말로 남다르고 유별할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은 취재차로 찾았던 창성군의 어느 한 식료상점매대앞에서였다.

산골사람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것처럼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지도밑에 주체51(1962)년 8월에 열린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이후 지방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지난날 사람못살고장으로 불리우던 궁벽한 산골군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창성땅!

...

여기도 저기도 지방공장
에루화 많이도 일떠섰소
창성이 변했소
지난해와 또 다르게
창성이 변했소
창성이 변했소

그 시절에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운 노래의 한구절을 흥얼거리며 령을 넘어 창성읍거리에 들어선 나의 눈에 이채롭게 비껴든것은 여러 상점의 매대앞에서 흥성거리고있는 이 고장 사람들의 행복넘친 밝은 모습들이었다.

그에 이끌려 식료상점에 들어선 나는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야! 하고 탄성을 질렀다.

풍성한 매대마다에 가득차있고 또 주민들의 관심속에 연방 팔리고있는 갖가지 식료품들때문이였다.

머루, 다래, 산딸기, 찔팡이, 돌배, 도토리과 같은 산열매들과 두릅, 참나물, 곰취, 도라지와 같은 산나물들, 세신, 삼지구엽초, 가시오갈피 등 약재들로 만든 단물이며 장절임, 술제품들 그리고 콩우유와 두부, 된장과 간장, 기름...

첫눈에도 먹음직스럽고 산촌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듯싶었다. 그 모든 식료품들이 다 천연원료를 가지고 만든것이어서 사람들의 건강장수에도 아주 좋다는 그 유용성으로 해서 마음이 무척 흐뭇

했다. 상품포장 또한 나무랄데 없었다.

나는 자석에라도 이끌리듯 매대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마침 로인 한분이 멋들어진 상표가 붙어있는 도토리술병과 산과실단물병들을 판매원녀인한테서 받아 구력에 넣으면서 얼굴의 주름살이 쭉 펴이도록 환한 웃음을 짓고있었다.나는 그 로인에게 정말 매대가 풍성하다고, 여기에 서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것 같다고 진심을 터놓았다. 그러자 그 로인이 하는 대답이 아주 인상적이였다.

《웁수다. 내가 판 산열매가 이렇게 훌륭한 술이 되고 단물이 되여다시 내 손에 차례지니 그 기쁨과 보람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수다. 이게 바로 사는 재미가 아닌지...》

알고보니 로인은 판매원녀인과 한마을에서 살고있는데 년중 많은 날을 배낭을 메고 군안의 산들을 메주밭듯 하면서 산나물도 뜯고 산열매도 따고 약초도 캐며 수매사업에 남달리 앞장서고있다고 하였다.

이런 사실을 귀뜸하고난 판매원녀인이 의미심장한 어조로 이렇게 잇는것이였다.

《지금 전국도처에서 중앙공업이 소리치며 일어서고있는데 지방공업이라고 어떻게 가만 앉아있겠습니까. 도시사람들이 떠들썩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설 때 우리 산골사람들은 멀거니 구경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산촌의 부는 바로 우리 산골사람들이 창조해야 하며 산촌의 매대도 바로 우리가 창조한 창조물들로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이 아닐가요?...》

소박하나 부인할수 없는 철리가 담겨진 판매원녀인의 말은 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음미해볼수록 옳은 말이였다.

상점문을 나섰으나 나의 귀전에는 그 로인과 판매원녀인의 말이 줄곧 떠나지 않았다.

그후 나는 군안의 곳곳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한두사람이 아닌 온 창성땅 사람들의 애국심을 뜨거운 감동속에 느끼게 되었다.

창성사람들은 남녀로소, 직장직위에 관계없이 산을 낀 고장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좌우명으로 삼고 해마다 군중적으로 펼쳐나 깊고 험한 산밭들을 땀흘려 누비면서 수많은 산나물과 산열매들을 채취하여 식료공장에 보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산림을 적극 애호관리하여 나무도 많이 심고있으며 양과 염소를 비롯한 집짐승기르기도 근기있게 벌려 군면적의 95%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산들을 모두 황금산, 보물산으로, 마를줄 모르는 원료기지로 전변시켰다.

지금 창성식료공장의 원료창고마다에는 도토리를 비롯한 산열매들과 도라지를 비롯한 산나물 등 원료들이 짹 들어차있어 공장에서는 원료걱정을 모르고 갖가지 식료품들을 짹짹 생산하고있으며 식료매대들을 풍성하게 장식하고있다.

어찌 식료매대뿐이라.

공업품상점을 비롯한 다른 상점들의 매대에도 직물공장, 종이공장과 같은 여러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산골특유의 다양다종한 상품들이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경공업제품들이 군내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자기 땅에서 나는 원료, 자재를 가지고 제 손으로 만든 상품들을 매대마다 그득 쌓아놓고 생활을 윤택하게 꾸려나가고있는 이 고장 사람들의 기쁨과 보람, 행복과 긍지의 진맛을 다른 사람들

은 미처 다 모를것이다.

정녕 창성군의 지방공업에서 이룩된 이 놀라운 전변은 일찌기 산골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몸소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 거늘 지금 창성사람들은 누구나 지난해 11월 또 다시 찾아오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높으신 뜻을 온 나라의 앞장에서 드팀없이 받들어 지방공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최첨단수준에서 실현하며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 올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목표는 높고 아름답지만 창성사람들은 꼭 해낼것이다.

자기들의 풍성한 매대들로 강성부흥하는 조국의 재부를 더욱 늘이는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앞장에 서있을것이다.

오, 사람들이여! 모두가 이들처럼 자기 땅에 토틈히 발을 붙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의 고귀한 땀과 노력으로 행복을 창조하자.

나는 시인마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몸은 멀리 있지만 지금도 나의 마음속엔 황금산을 가꾸는 창성사람들의 노래소리가 하얗 울리고있다.

탄전의 꽃보라

양치성

꽃보라 꽃보라...

석탄가득 실은 차판우에 뿌려진

붉고 푸른 꽃보라

마치 기쁨진 탄밭에

뿌리내려 곱게 피어난 꽃송이인듯

분기계획 넘쳐했다고

기동예술선동대원들 출근길에 뿌려준 꽃보라

탄벽을 뚫어가던

정날에서 뿜어나던불꽃인가

탄부들 이마에 번쩍이던

방울방울 땀방울인가

탄차를 선뜻 떠나보내고싶지 않구나

이 꽃보라 그대로

발전소와 제강소

경공업공장들과 농업전선에

우리 마음도 실어보내고싶어

예나제나 탄은 탄이래도

꽃보라 없고간 이 탄을 보면

알아볼테지 그리고 기뻐할테지

온 나라 전선을 안고사는

탄부 우리들의 마음을

허나 아쉽지 않아라

발전소 타빈의 불꽃속에

폭포처 쏟아지는 비료속에

사뭇쳐끓는 용광로의 불길속에

탄전의 꽃보라는 불타지않고

강성대국 꽃보라로 빛을 뿌리리

선군경과 강성대국

한철순

나의 하루일과중에는 남다른 시간이 있다.

그것은 저녁마다 자칭 《화첩》이라고 제목을 붙인 아들애의 소묘수첩을 보아주는 시간이다.

올해 소학교 4학년생인 아들애로 말하면 커서 유명한 미술가가 되겠노라면서 제법 꾸준하게 그림공부를 하고있는중이다.

오늘 저녁에도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니 기다렸다는듯 아들애가 나를 반겨맞아주는것이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화첩을 들지 않은 빈손이였다.

내가 의아한 시선을 보내자 아들애가 생글생글 웃으며 나의 팔에 매달리는것이였다.

《아버지, 나 새 화첩이 있어야겠어요.》

《새 화첩이라니? 아직 그림 그릴 자리가 있지 않니?!》

《그것 말고요. 아버지, 난 선군경화첩을 새로 만들자는거예요.》

《선군경화첩?》

사연인즉 이러했다.

아들애에게는 이미 선군8경에 이어 선군12경까지를 그린 소묘책이 있었다.

그런데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선군시대에 새로운 선경이 계속 펼쳐지는것으로 하여 자리가 모자랄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하여 아들애는 선군시대와 더불어 계속될 크나큰 변들을 생각하면서 아예 새 화첩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은것이다.

《그래, 선군경화첩이란 말이지...》

나는 아들애가 기특했고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일러왔고 하늘의 선녀들도 내려온다는 일만경치로 하여 세상에 이름이 높았다.

세상사람들은 동방의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부르며 조선의 천하절경을 몹시 부러워하고있다.

허나 오늘날에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자연경치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속에서 태어난 선군경치를 첫자리에 놓고있다.

자연의 덕으로 이루어진 경치와 어찌 선군경치를 견줄수 있으랴.

조국이 가장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 선군의 덕으로 우리 조국땅우에는 세기를 두고 볼수도 없고 이룩할수도 없었던 위대한 전변이 계속 펼쳐지고있다.

선군8경을 노래하던 우리 인민이 지금은 선군

12경을 노래하고있다.

세상이 놀라와하며 부러워하는 오늘의 이 희한한 선경, 이 무릉도원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 우리 장군님 바쳐오신 헌신은 과연 그 얼마이던가. ...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젖어든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압살의 죄사슬을 단호히 깃부셔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새 선경을 계속 창조하고 행복의 노래를 불러올수 있었다.

아버 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선군으로 완성해나가실 굳은 의지를 안으시고 백두산마루에 거연히 서시였을 때 백두의 장엄한 해돋이가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며 펼쳐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바솔초소를 찾으시였을 때 초소의 서리꽃이 하얗게 피어났고 최전연 병사들을 찾아 험한 철령을 넘으실 때면 철령의 철쭉꽃들이 삼가 전선길에 안녕하시라고 꽃잎을 흔들어 바래왔었다.

우리 장군님 CNC 의 최첨단돌파를 위해 걸으신 그 길우에 장자강의 불야경이 온 누리를 비치고 울림폭포의 메아리가 선군승리의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어찌 그뿐이랴!

세기를 내려오던 뽕기논, 한드레벌만이 아닌 이 나라 땅들이 선군의 새시대를 맞이해 새로 정리되어 황금물결 출렁이는 벼바다로 펼쳐지고 북방의 대지우에는 눈썰미 아득히 감자꽃바다가 펼쳐졌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속에 꽃피난 선경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오늘은 우리가 선군12경을 노래하지만 날마다 태어날 선군13경, 선군14경은 과연 그 어데일까?

그렇다, 사회주의강성대국!

아버 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체 101(2012)년에 대문을 열어보일 우리의 강성대국! 이것이 바로 선군조선의 선경들의 집합체라고 말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공지와 행복으로 심장이 뛴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울리고있는 한 세상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은 끝없는 선군경을 펼쳐며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아들애에게 말했다.

《그래, 어서 그러라. 하지만 아버지장군님의 강행군길을 따라 날마다 변모되는 오늘의 현실과 날마다 태어나는 선군경치를 다 그리자면 아마 새 화첩도 모자랄게다. 그러니 이제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그날까지 세상에 존엄높은

사회주의 선군조선의 모습을 그리자면 그림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 알겠니?》

나는 힘있게 대답하는 아들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우리 생활에 내결에

김영순

그리도 위대한분이시건만
우리 생활에 내결에
너무도 가까이 가까이 계신
강반석어머님

이른새벽 쌀을 일 때도
만경대혁명가문의 주부 그 모습으로
어머님은 내 마음속에 오시였고
우리 녀인들 즐겁게 모여앉은 때면
부녀회원들속에 계시던 그 모습으로
우리결에 와계신 어머니

어찌 그뿐이시랴
별빛눈동자 초롱초롱한
우리 아이들 그 교과서에서
마안산의 돈 20원으로
쌍가매의 큰어머니로
어머님은 가까이 오신것 아니시던가

행복한 나날보다
어려운 나날에
더 많이 내결에 우리결에 오시였어라
언제나 웃으시는 밝으신 얼굴로
억세고 대바르신 그 성품으로

타개죽에 물 한바가지 더 부어가면서도

가사

때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혁명가들
뒤바라지해주던 그 모습으로
고난앞에 이 마음 약해질세라
고난도 함께 헤쳐가셨고
인정미의 봄세계 펼쳐주신 조선의 어머니

효성어린 좁쌀 한말 노래부르며
가정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했고
시련의 성애가 창가에 불릴 때도
새날 불러 혁명의 봄 마중가시던
어머님의 신념으로 이겨낸 우리들

새봄이 움트는 락원의 창가에서
어머님은 자애깊이 굽어보시여라
나날이 늘어나는 내 집의 행복을
변이 나는 내 나라의 선군풍경을
참된 삶을 누려가는 녀인들의 삶을

오 정녕 가까이 계시였어라
우리 녀성들이 가는 생활의 길에
언제나 앞서걸는 만경대가문의 맘머느리
김일성민족의 한식술 대가정의
인자하고 자애로우신 어머니로
어머님은 내결에 계시여라
어머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여라

탄부의 량심

문기창

탄부는 깊고깊은 막장길 걸어도
량심의 그 길은 언제나 밝아라
평양불빛 지켜가는 내 삶의 이정표
아 장군님품으로 달리네

탄전의 막장길엔 굽이가 있어도
탄부의 량심엔 하나의 곧은 길

평양불빛 지켜가는 탄부의 이 마음
아 장군님품으로 달리네

막장길 깊어지면 평양길 가까워
탄부는 그 길에 량심을 바치네
평양불빛 지켜가는 내 삶의 곧은 길
아 장군님품으로 달리네

인연이 깊어가는 계절에

변영옥

일찍 찾아온 봄의 정취는 미곡리의 마을과 벌과 파일동산 어디라없이 자욱히 깃들어있는상싶다.

하루하루 짙어가는 봄의 훈향으로 몽골몽골 모여있던 진분홍꽃봉오리들이 어느새 활짝 피어나 애슬바람에 몸을 맡긴채 한들한들 춤추는 사적비 앞의 진달래, 급게 빼문 연분홍꽃잎들에서 풍기는 달콤새콤한 향기를 바람에 싣고 동네가 좁다하게 날아예며 열려진 창가며 온 마을을 진동하는 살구동네의 봄냄새...

어디 그뿐인가. 가는 곳마다 피어있는 앵두꽃, 민들레, 삼색제비꽃 등 온갖 봄꽃들은 길손들의 눈길을 모으며 잠간 들렀다 가란듯 애모쁜 꽃잎들을 살래살래 흔들고있다.

사나운 겨울을 몰아내고 마을을 꽃속에, 향기속에 묻으며 이처럼 아름다운 선경의 화폭을 영원히 펼쳐놓은 이 봄은 다가올 이해 여름과 가을과 지금 무엇을 속삭이고있을가.

이것은 내가 본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봄풍경의 한 세부이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한희롭고 뜨겁고 열정적인 속삭임이 선경의 화폭속에 묻혀있는듯싶어 나는 이제는 구면인 청년작업반원들을 찾아갔다.

관리위원회와 퍼그나 멀리 떨어져있는 청년작업반 마당가에 들어서던 나는 탈곡장쪽에서 들려오는 큰소리에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귀에 익은 청년작업반 김옥경분조장의 목소리였다. 어쩐지 성이 난듯 한 그 음조에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조용히 다가갔다.

《동무들, 정말 말을 못하겠어요? 표식대가 어떻게 우리 분조 창고에 있게 되였는가 말이에요...》

분조원들앞에는 빨간색, 흰색으로 정갈하게 도색한 예찰초소표식대가 무저있었다.

《동무들도 알다싶이 지난해 우리 분조는 8포전에 퍼진 열병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지않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고 매 포전마다 예찰초소를 다 만들자고 생각했었는데 누군가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이렇게 많은 표식대를 만들어왔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소행입니까. 이런 소행들이 분조에서 생길 때

마다 농장이 들썩하게 자랑하고싶었지만 동무들과 한 약속이 있어 꼭 참군 했는데 오늘은 이름마저 모르고있으니...

좋아요, 동무들이 정 말을 못하겠다면 전 이것을 관리위원회 숙보관에 대문짝같이 소개하겠어요.》

기대어린 분조장의 눈길이 다시금 분조원들의 얼굴마다에 가닿았다. 그래도 분조원들의 입은 좀처럼 열어질줄 몰랐다.

동전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분조장은 하느수없이 작업시작을 선포했다. 분조원들은 포전으로 흩어져갔다.

결에 다가오는 나를 바라보는 분조장처녀의 얼굴에 기대어린 웃음이 확 피어났다. 무작정 나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했다.

《작가선생님, 전 이런 때면 정말 안타까와죽겠어요. 기특한 일들을 해놓고는 도무지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 절 좀 도와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예요.》

나는 이렇게밖에 말할수 없었다.

이때 공구창고원을 하는 은정이라는 처녀가 주뒀거리며 다가왔다.

《분조장동지! 난 사실... 저, 난 그들과 약속했습니다.》

《무얼?》 분조장처녀는 다가들듯 은정에게 바투 마주서며 물었다.

《이러면 사실 난 약속을 어긴 사람으로 되는데...》

여전히 은정은 망설이고있었다.

하지만 분조장의 독촉에 처녀는 할수 없는듯 양어장결에 있는 공구창고쪽으로 달려갔다. 얼마안있어 그는 《예찰초소》라고 쓴 표말 1개를 가지고와 분조장에게 내밀었다.

《이뒤에 제가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순간 나와 분조장은 놀란 눈길을 표말에서 빼지 못했다. 표말뒤면에는 붉은색붓글씨로 농장가까이에 주둔하고있는 군인들의 군부대번호가 적여져있었던것이다.

《아니, 그럼 군인동지들이?!...》

결국 좋은 일의 주인은 인민군군인들인것이였다.

나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그 구분대와 미

곡마율은 얼마나 남다른 인연을 맺고 살아왔던가.

부대의 전투력강화와 부대살림을 꾸리는데서 마음씨가 할 곳이 많았지만 인민을 먼저 돕자는 마음에서 해마다 진거름을 차에 가득가득 싣고 포전으로 달려와 농민들과 함께 거름을 뿌려가던 군인들, 모내기, 김매기를 모두 기계로 하여 일손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부디 말렸지만 자기들의 땀방울이 포전에 스며있지 않으면 아들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것 같다고 하면서 째마다 찾아와 일손을 돕곤 하던 군인들이었다.

어찌 그뿐이라. 돌이켜보면 포전에 폭우가 쏟아질때에도 물주머니가 된 몸에 양수기를 메고 제일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군인들이었고 올해 정초 많은 진거름과 농기구들 자동차로 싣고와 부리면서 또 현장방송차로 노래를 불러주면서 농장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들의 진정과 뜨거운 마음에 받들려 해마다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가을한 남새며 과일들을 알알이 골라 차에 싣고 군인들을 찾곤 하던 청년작업반원들과 미곡벌 농민들의 모습도 그 나날들 속에 있었다.

하지만 바쳐온 그 성의가 부족하고 적은것만 같아 올해에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포전을 알뜰히 가꾸가는데 인민군군인들은 이 봄에도 농사가 걱정되어 이렇게 예찰초소표말과 표식대를 일식으로 갖추어주고 이름도 없이 떠나가며 비밀에 붙여달라고 부탁했다니 인민을 위해 바쳐가는 그들의 뜨거운 진정에 어찌 가슴이 젖어들지 않고 눈물이 고이지 않으랴.

친부모형제와 같은 인민을 위해 날마다 커가는
가사

군인들의 마음, 친자식과 같은 군인들을 위해 바쳐진 성의가 적고 또 적은것만 같아 애쓰며 헌신하는 인민들의 마음.

그러니 미곡벌에 일찍 찾아온 봄의 정취배인 아름다운 선경의 화폭속에는 정녕 다가오는 여름과 가을이라는 계절의 속삭임만이 아니라 그 자연보다 더 아름답고 짙은향기를 풍기는 군대와 인민의 오가는 정의 세계가 있었다.

그렇다.

인민을 돕고 헌신하는 군인들의 커가는 마음이 우리 마을 포전의 포기포기마다, 이랑이랑마다 어리고 군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민의 커가는 마음이 우리초소 전호가 다박술과 금잔디 갈피갈피에 정히 스며있어 군민의 오가는 정은 날마다 두터워지고있는것이 아닌가.

아니, 미곡벌포전과 그 구분대의 전호가를 뛰어넘어 온 나라 방방곡곡 어느 마을, 어느 초소 그 어디나 혈육의 뜨거운 정은 맥맥히 흐르고있어 군민단결의 억센 기둥은 조국의 큰 지붕을 끄떡없이 받들고있는것이다.

정녕 봄풍경 못지 않게 아름다운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정의 세계가 곳곳마다 펼쳐져있어 미곡협동농장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선경이었다.

맺어진 인연들이 나날이 더욱 뜨겁고 진하게 깊어지는 이 땅에서 그 마음들에 받들려 년년이 들에는 벼이삭의 파도 설레이고 동산엔 온갖 과일 무르익으리니 앞날의 그 풍경 얼마나 아름답고 장쾌하랴.

이런 생각으로 농장마을을 바라보는 나의 걸음은 좀처럼 떼어질줄 모른다.

백두고원의 종달새

김중삼

백두의 해돋이에 불새가 되었느냐
봄들판 날아에는 내 고향 종달새야
넓고넓은 조국땅에 깃들일 곳 많아도
백두고원 하 좋아서 찾아온 종달새야
아 해종일 불려불려 끝없는 네 노래는
천만년 부르며 살 내 마음의 노래란다

천지의 맑은 물에 네 목청 다듬었나
감자꽃향기에 네 노래 젖었느냐
맑고 푸른 하늘가엔 아름다운 네 노래

고원의 넓은 들엔 노래의 꽃바다
아 해종일 불려불려 끝없는 네 노래는
천만년 부르며 살 내 마음의 노래란다

강성대국 해돋이 어서 마중가자고
봄노래 불려주어 네 모습 정답더냐
장군님 은정속에 꽃피난 백두선경
온 세상에 노래하는 내 고향의 종달새야
아 해종일 불려불려 끝없는 네 노래는
천만년 부르며 살 내 마음의 노래란다

철산봉의 인차대기실에서

리광철

격변하는 우리 시대는 매일 매 시각 새라새로운 이야기들을 낳는다. 그 이야기들이 만사람을 감동시키고 강성대국건설의 대고조전투에 힘있게 떠민다.

내가 체험한 이야기도 우리 조국의 강성대국대진군의 서사시를 엮는다면 그속에 당당히 한자리 차지할것이다.

차집이라 하면 사람들은 흔히 도시를 련상한다. 하지만 나는 북변의 광부들의 일터에서 《차집》을 보게 되었다.

나는 얼마전 무산광산연합기업소를 찾았던적이 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정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충충 계단을 이룬 드넓은 채굴장은 짐채같은 굴착기와 대형화물자동차, 착정기들의 거세찬 동음소리와 천지를 진동하는 장쾌한 대발파소리로 격전장마냥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지난해 새로 건설된 현대적인 대형원추형파쇄장에서는 광석을 가득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려와 파쇄기에 폭포처럼 쏟아붓고있었다.

이 파쇄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12월의 눈보라 사나운 북방의 추운 겨울날에 몸소 찾아주셨던 곳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산정에 오르시여 종전에 비하여 4배이상의 처리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이 대형원추형파쇄기의 작업모습을 오래동안 보시면서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나는 한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큰일을 해제끼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 광부들의 투쟁성과에 실로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과연 그 무엇이 이런 기적적인 현실을 창조할수 있었는지?!...

나는 이 답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들리셨던 인차대기실에서 찾게 되었다.

인차대기실은 철산봉기슭의 인차장입구에 자리잡고있었다.

이 인차대기실은 2년전 철산봉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인차장입구에 한동안 차를 멈추시고 일군들에게 광부들이 추운 한지에서 인차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대기실을 잘 꾸려 더운 곳에서 몸도 녹이고 따끈한 차와 콩우유도 마실수 있게 하라고 하신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생겨난 집이었다.

대기실안은 훈훈했다. 우수, 경침이 지났건만 북방의 날씨는 아직 쌀쌀했고 높은 산에는 흰눈이 덮여있었다. 그러나 밝은 해빛이 자르르 흘러

드는 대기실의 창가마다에는 꽃망울을 터친 화분들이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광부들은 바로 이 인차대기실을 《차집》이라고 부르고있었다.

그것은 이 대기실을 리용하는 광부들에게 어느때나 장군님의 은정이 어린 따끈한 차와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봉사해주고있기때문이었다.

나도 봉사원처녀가 친절히 부어주는 향긋하고 따끈한 오갈피차를 한고뿌 사양없이 받아마셨다. 그러자 취재길의 피로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기분이 흥그러워졌다.

《이거 정말 좋구만!》

감탄조로 하는 내 말에 광부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생글거리며 서있던 봉사원처녀가 나에게 말하였다.

《정말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광산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금같은 시간을 내시여 광부들이 리용하는 이 인차대기실에까지 몸소 들리실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날 광산의 책임일군이 이 인차대기실에서 광부들이 뜨끈한 차와 콩우유를 마시면서 텔레비존과 신문, 잡지들을 보고 즐거운 문화정서생활도 하게 되여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서는 그 어떤 생산성과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라고, 무산의 광부들은 추운 겨울에도 로천에서 일하는것만큼 그들의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면서 나는 뜨거운 격정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봉사원처녀의 그 말에 나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께서는 새해 정초부터 한해의 마지막날까지 무더위와 강추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아 초강도강행군길에 계시면서도 광부들이 인차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추위할세라 이토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우리의 장군님!

어느해엔가는 철산봉에 철늦게 피어나는 진달래를 보시고 광부들의 봄남새 해결대책도 세워주시고 또 어느때인가는 광부들의 출퇴근길을 념려하시여 통근렬차와 버스, 인차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은정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진정 무산의 광부들은 조국땅 한끝에 있어도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 한복판에

서 살고있는것이다.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는 정녕 무한대하다.

바다같고 하늘같고 대지와 같은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손길아래서 우리 광부들뿐이 아닌 천만군민이 용기백배하여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총공격전에서 날에날마다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 있는것 아니랴.

정녕 이 땅에 세인을 놀래우며 이룩되는 모든 전변들은 우리 인민들을 하루빨리 세상 부러운것 없이 잘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과 헌신의 자욱에서 꽃피어나고있다.

그렇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있기에 내 나라, 내 조국은 더 부강발전할것이며 인민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게 될것이다.

나는 철산봉의 소박한 《차집》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불쾌의 위력을 떨쳐나가고있는 우리 조국과 우리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힘

의 세계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인차대기실에서 들었던 한 광부의 자작시구절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

들어서면 순간에 계절이 바뀌우는듯
여름이면 땀과 땀방울이
땀방울 식혀주고
겨울에는 따끈한 콩우유와 열풍이
언뎀을 따스히 녹여주는 곳
장군님의 사랑의 하늘아래선
너와 나의 집이 따로 없거늘

오늘도 출근길에 들어서니
장군님 그 사랑에
더 많은 쇠돌생산으로 보답할
맹세가 불타오르네
억만 철의 산악도 단숨에 들어올릴
크나큰 힘이 용솟음치네

탄아 내 고백하노라

홍민식

그냥두면 막돌이 되고
캐내면 빛과 열이 되는 탄아
내 그래서 너와 인연을 맺고
여기 막장에 삶의 자리를 정했지

묵묵히 자랑도 치장도 몰라도
불붙어 타면 온몸 강그리 태워
빛과 열을 뿜는 너의 그 열정에 반하여
내 너에게 탄부의 사랑을 고백했지

너 있는 곳이라면 땅속 천리라도
너를 찾아 수천척 막장길을 달게 걸었고
막아서는 암벽도 걸음걸음 헤쳐야 할 고난도
너와 나를 갈라놓지 못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한덩이 석탄이라도 더 캐여
이 땅에 빛과 열을 더 주지 못한것
나에게 기쁨이라면
땅이 꺼지도록 석탄산을

더 높이높이 쌓아올리는것

탄 네가 있어 내가 있고
탄 내가 있어 네가 있으니
너와 나는 빛과 열로 조국을 받드는
마음도 열정도 하나가 아니냐

어디서나 더 많이 요구하는 석탄
석탄을 팡팡 캐내야
비료도 섬유도 전기도 강재도 쏟아지고
온 나라의 행복의 웃음소리
강성부흥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릴게 아니냐

아 내 사랑 탄아
너와 나 마음도 열정도 다 합쳐
장군님 펼치시는 사회주의 무릉도원
강성대국화원을 꽃피우는
영원한 밑뿌리 되자꾸나
영원한 밑불이 되자꾸나



제로 온 지배인

배경휘

《엄마, 나 수학소조에 들어가 음악소조에 들어가?》
딸애가 한 이 말이 지배인실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 시각도 한미영의 뇌리에서 계속 빙빙 돌고있었다.

그 애는 어머니를 닮아서 수학적두뇌도 있고 예술적소질도 없지 않다. 애아버지는 예술을 시키자고 하지만 미영은 딸의 남다른 수학적두뇌가 아까웠다. 그 머리는 꼭 과학을 위해 태어난것 같은데... 하지만 남편은 반대의견이었다. 총각애라면 두말할것없이 수학소조에 넣겠지만 처녀애는 예술이 더 어울린다는것이다. 과학이란 녀성에겐 너무나 험한 봉우리여서 성공의 확률을 봐도 예술쪽이 더 높다고...

미영은 그 말을 부정할수 없었다. 그자신이 대학시절 대학생과학탐구상까지 받았지만 오늘은 평범한 송배전부기사이상 더 두드러진 존재로 되지 못했던것이다.

처녀시절 그는 전기부문에서 놀라운 발명으로 학계에 이름을 남길 포부도 있었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디딘 후에는 시송배전부의 기술관리에서 의의있는 창의고안으로 기업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었다.

허나 시집을 가자 그의 탐구적열정은 점차 남편과 딸애에 대한 관심앞에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했다. 녀성의 존재는 우선 남편과 자식에 대한 보살핌속에서 그들에 대한 헌신적애정으로 빛난다는 생각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사회앞에 뚜렷이 하고싶은 욕망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던것이다. 사실 시배전부 시험실기사로서 각종 설비들의 상태를 검사하는 시험을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운영만 보장하자고 해도 무척 바쁜

데 그것이면 그의 책임은 끝나는것이였다. 그 무슨 창의고안이나 발명을 하지 않는다고 그를 탓할 사람은 없었다. 처녀시절의 포부는 청춘의 꿈에 지나지 않았다. 청춘기에야 무엇인들 해보고싶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이제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리가 잡혔다고 할가 직장에서는 아름답고 책임성높은 녀성기사로 호평을 받았고 가정에서는 살뜰한 안해, 다심한 어머니로서 마음의 그늘이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해오고있었다.

헌데 소학교에 들어간 딸의 소조선택을 놓고 수학소조를 반대하는 남편의 말을 듣느라니 지나온생이 허무한듯 아릿해지는 심정을 어쩔수 없었다.

×

조명수지배인은 환한 얼굴로 미영을 맞이했다.

그는 자리를 권하고나서 종이끼우개로 묶은 몇장의 문건을 넘겨주었다.

《제통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전압단계를 올리기 위한 전투계획서》라고 큼직하게 찍은 활자들이 미영의 눈에 뛰어들었다.

그것은 조명수가 발기하여 참모부에서 새로 작성한 기업소의 전투계획서였다.

《미영동무, 이 계획서를 보면서 필요되는 자재소요량을 타산해보오. 우리가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자재량과 고압애자, 변압기유, 늑가공선같이 꼭 우에서 해결받아야 할 자재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사내용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더 첨부할것이 없는지도 엄밀히 따져보오.》

시험실기사로서의 위치를 되새겨보게 하는 남

다른 신임의 표시여서 지배인실에서 나오는 미영의 마음은 한결 개운해졌다.

남편은 미영이가 능력과 수준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다고 실패한 인생처럼 여기지만 결코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자부심이 마음속에서 머리를 들었다.

조명수가 지배인으로 온지 며칠만에 있는 일이 떠올라 미영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지배인이 부른다기에 가니 조명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미영동무, 하던 일은 좀 미루고 나와 함께 산보를 나가지요.》

《산보요?》 하고 미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처녀총각도 아닌 사람들이 산보를 한다는 것이 너무도 당치 않게 들렸던 것이다.

《왜? 우린 산보를 하면 못쓰나? 자, 밖에 나가 차에 타요.》

얼퍼름해서 하라는대로 소형버스에 올랐지만 지배인이 왜 자기를 데리고 나서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조명수와 한미영은 대학동창이었다. 대학시절 한학급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였고 실력가였던 조명수를 몹시 따르고 존경했던 미영은 그가 지배인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었다.

허나 조명수가 대학동창이라고 해서 정말 산보를 하자고 그를 데리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데로 갑니까?》

차가 부르릉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미영이 물었다.

《변전소들과 시내배전선로망을 돌아보자는 거요.》

《그런데 저도 함께 가야 합니까?》

《동무도 볼 필요가 있소.》 하고 조명수는 웃음 어린 시선으로 힐끗 미영을 건너다보았다.

《우리가 대학생과 학탐구상을 수여받으러 가던 일이 생각나요?》

《네.》

감회깊은 추억에 미영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대학을 졸업한지 어려해 되었는데 이젠 학위론문을 준비하는게 있겠지?》

뜻하지 않은 그 물음에 가슴이 따끔 찢리는 것 같았다. 대학시절의 쟁쟁하던 자기가 돌이켜지면서…

《없습니다. 제가 무슨 학위론문을 쓰겠어요?》

은연중 대답소리가 허전하게 울렸다.

《왜? 미영동무야 대학때 얼마나 쟁쟁했소?》

미영은 쓸쓸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대학때는… 절로 한숨이 나왔다.

《너자들이 남자하고 같습니까? 시집을 가면 아이도 키울래, 살림도 할래, 너자들의 부담이 오죽 많아요?》

조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고집스레 말했다.

《그래도 해야지. 미영동문 큰일을 할수 있겠는데…》

《원, 지배인동지도… 이젠 안됩니다. 전 그런 재목이 못됩니다.》

《남편이 잘 도와주지 않는 모양이구만.》

《남자들이야 대체로 리기적이지요.》

《우리 처는 말이요, 별로 재간도 없는 사람을 문학을 몹시 좋아해서 그냥 작품을 쓰느라고 모지름썩소. 내 모르긴 하지만 문학이란게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반대했지. 승산이 보이지 않는 일을 싹 견어치우라고… 헌데 글썩 그가 쓴 작품이 현상모집에 당선되지 않았겠소.》

그래서 내 말했지, 내 덕에 당신이 성공했다고. 내 말이 옳지 않소?》

《호호호, 지배인동지덕에 성공해요?》

《내가 반대하니까 더 분발했거던. 그러니 내 덕이지.》

《호호, 지배인동지도 참.》

《헌데 동무남편은 동무를 부추기기만 하는 모양이지? 동무가 발전하지 못하고 락후해진걸 보니.》

《글썩… 락후해진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으나 심중에선 은근히 반발감이 솟구쳤다. 지금껏 락후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변전소들에서 사고없이 전력공급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이바지하는 그의 노력을 누구나 소중히 여겨주었을뿐이었다. 그런데 론문을 쓰지 않는다고, 다시말해 연구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락후해졌다?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기술적진보란 아무리 단순한것이라도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탐구란 피타는 노력의 산물이며 실천에 도입하는데도 자재와 설비조건 등 걸리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거기에다 녀성으로서, 가정주부로서의 제약성도 있었다. 딸애를 키우는데 어머니로서 관심할게오죽 많은가?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힘이 자기에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업소에서 제기되는 설비시험외의 기타문제는

깨끗이 단념해버린 것이었다. 맡겨진 일이나 착실히 하고 가정에나 충실하자고. 그것이 락후해진 것인가?

별치 않은 말 한마디에 자기가 괜히 신경을 쓰는지도 몰랐다. 지배인이 별생각없이 던진 말일수도 있는데... 허나 웬일인지 그 말은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차는 도로우를 경쾌하게 달리고 있었다. 고층살림집들이 나는듯 지나갔다.

그때 지배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공장들이 개건확장되고 새로운 공장들이 일어서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소. 헌데 지금 건설중인 발전소는 매년에 가야 빛을 볼수 있지. 날마다 시간마다 높아가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이걸 풀어야 인민생활향상에서 우리 배전부가 제 몫을 할수 있소.》

지배인의 격해지는 음성을 들으며 미영은 부족되는 전력문제를 놓고 안타까와하는 그의 심정이 리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괜한 근심을 사서 하지 않는가 싶기도 했다. 바란다고 전기가 생길수 없는 이상 안타까와하기나 해서 될 일인가? 시당전원회의를 했다더니 거기서 지적받은것은 아닌지?

《우리 배전부가 지적받았습니까?》

《아니, 우리를 추궁한 사람은 없었소. 하지만 몇천크바의 전력이 모자라서 능력확장된 경공업 공장들이 만부하를 걸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 속이 찢리더군. 온 시가 우리 송배전부를 바라보는것 같아서...》 미영은 동정어린 눈으로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지배인동지도 참, ... 우리 배전부가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소입니까?》

《생산기업소야 아니지. 하지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공장과 가정들에 들어가기까지 그 도중손실에 대해 생각해봤소?》

도중손실? 물론 전력의 도중손실은 자기들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절약하고 도중손실을 없앤다고 한들 발전소 하나를 세우는것과 같은 전력을 얻어낼수 있겠는가?

차는 속도를 늦추며 건물들사이의 좁은 도로로 들어섰다. 1번전소에 도착한것이다.

변전소들과 시내배전망들을 돌아보느라니 저녁때가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지배인이 물었다.

《선로들을 돌아보고 뭐 생각되는것이 없소?》

미영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그 물음에 저으기

긴장되었지만 대답할 말은 찾을수 없었다.

《우리 배전망체계가 너무 복잡한것 같지 않소?》

《글쎄요, ...》

지배인의 질문에 푹푹한 대답을 못하는것이 민망스러웠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기대하여 데리고 나온것 같은데 어정쩡하게밖에 대답할수 없으니...

차안엔 가벼운 진동음뿐 침묵이 깃들었다. 그 침묵이 지배인의 불만스러운 심정을 말해주는것 같아 미영은 송구스러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동무가 발전하지 못하고 락후해진걸 보니》하던 지배인의 목소리가 괴롭게 가슴을 찌르고들었다.

지배인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때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있었는지... 그것을 미영이 알게 된것은 다음날 사업총화시간이 되어서였다. ...

《미영동무.》

누군가가 찾는 소리에 미영은 상념에서 깨여났다. 로동과앞에서 몸이 뚱뚱한 로동부원이 부르고 있었다.

《전화! 딸의 학교에서.》

미영은 반달음으로 로동과에 들어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우면서도 당황한 빛이 떠올랐다. 전화는 딸의 담임교원에게서 온 것이었다. 역시 소조문제때문이었다. 교원은 애가 수학에 더 소질이 있는데 왜 음악소조에 넣으려고 하는지 의아스러워하였다.

《아이의 소질을 정확히 보고 제발시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이 좀더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해요.》

《네, 네. 그렇게 하겠어요.》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미영의 얼굴에는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있었다. ...

저녁에 과업수행정형을 보고하러 가니 조명수가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다.

《다 뻘소? 뭐 수정할것이 없겠소? 좋소, 그럼 전투계획서와 함께 우에 올려보낼 실패보고서를 써주오. 전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리해할수 있게 통속적으로 쓰면서도 설득력있게... 필요한 자료는 내가 주겠소.》

책임기사도 계획부원도 있는데 왜 자기에게 이런걸 맡기는가 싶어 미영은 의아히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제가 이런것까지 써야 합니까?》

《전반적실패를 동무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시키는거요.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게 짐을 걸머져야 일도 성수나고 사는 보람도 있는 법이요. 미영동무에겐 아직 짐이 작아.》

지배인의 침착한 대답에 미영은 눈을 크게 떴다.

자기가 노는것처럼 보이는가? 낮빛이 달라져 물었다.

《지배인동지에겐 제가 한가해보입니까?》

《아니, 한가하다는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동무에겐 너무 쉽다는거요.》

과연 조명수는 자기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싶어 그러는가? 지배인인 자신처럼 기업소전반의 일을 맡아봐야 마음 후련해하겠는가? 자기의 안정된 생활물동이 지배인때문에 파괴될것 같은 예감에 마음이 불안해졌다.

《지배인동지는 너자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시는군요.》

《물론 가정부인이 힘들지. 하지만 동문 더 큰 일을 해야 하오. 나라에서 그만큼 키워주었으면 제 몫을 해야지.》

《지배인동진 절 못살게 굴 잡도리를 하셨군요. 내가 바보지. 옛 청년동맹조급단체비서가 온다고 좋아했으니... 그때 달아나버렸어야 하는걸. 이제라도 가겠다면 놔주시겠어요?》

《아니, 안 놔주겠소.》

《야 정말, 전 지배인동지가 생각하시는 그런 재목이 못됩니다.》

《됐소. 빨리 가서 쓰거나 하오. 이걸 참고로 보면서.》

저녁늦게까지 썼으나 읽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 가서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싫건 좋건 지배인의 기대가 큰데 아무렇게나 쓸수는 없었다.

×

《이보세요, 성욱이 아버지. 담임선생님은 성욱이를 왜 수학소조에 넣지 않는가고 물어요. 애의 소질을 정확히 보고 결심을 잘하라는거예요.》

《그거야 우리가 벌써 몇번이나 논의한게 아니요. 당신자신이 이미 체험한거고. 너자에겐 공학이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 이미 토론한대로 하거요. 담임선생이 아무렴 부모보다 더 깊이 생각하겠소?》

남편은 답답하다는듯이 말했다.

미영은 한숨속에 입을 다물었다.

밤에 자지 않고 글을 쓰는 그를 남편은 의아히 바라봤다.

《새 지배인이 오더니 바쁜 모양이군. 집에까지 와서 일감을 펼치는걸 보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배인의 잡도리가 보통이 아니예요. 저같은 가정부인까지 들쭈시며 아픈칠 일감들을 벌려놓는것이... 온 기업소를 들쭈셔놓았는데... 고생길이 열린것 같애요.》

그 고생길은 바로 미영이가 지배인과 함께 배전계통을 돌아보고온 다음날부터 시작된것이다.

바로 그 다음날 사업총화시간에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시내전력공급정형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지형학적계통도를 만들어야 하겠소.》

지형학적계통도란 시내의 송배전선배치정형을 축척에 맞춰 그린 도면을 말하는데 그것은 도면이라기보다 지도에 가까운것으로서 온 시내의 배전체계도를 종합하여 그려놓는다는것이 간단한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때없이 제기되는 선로보수로 늘 로력이 모자라는 형편이라 새 지배인의 제기를 누구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여태까진 작업반별로 담당구역 배전선로단면도만 가지고 일했는데 모든 작업을 작업반담당구역내에서 진행했으므로 그 단면도만 가지고도 별로 지장이 없었던것이다. 지형학적계통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영이도 같은 심정이었다. 그런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허나 새 지배인이 와서 처음으로 발기한 일을 누구도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못하였다.

그때부터 조명수는 계통도작성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그럼에 소질이 있는 반장과 부원을 인입하여 전투조를 조직하고 자기가 직접 틀어쥐고 내밀었다. 낮에는 상급단위에서 조직하는 회의들과 각종 사업들로 뛰어다니다가 밤에는 전투조성원들과 마주앉아 낮에 그려온 부문별도면을 종합하여 크게 확대하는 일을 하면서 밤낮이없이 일하였다.

지배인으로 온지 뒤달만에 그는 눈에 띄게 혈끔해지고 움푹 꺼져든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다.

그렇게 애쓰는 그를 보니 미영의 마음도 송구스러워지고 무엇으로든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대학생활을 함께 한 사람인데 자

기가 너무 랭정한것 같았다.

어느날 미영은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지배인방으로 찾아갔다. 그가 나타나자 전투조성원들이 얼마나 반가와하는지 미영은 늦게나마 찾아오기를 얼마나 잘했는가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짐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는 거의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계통도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하는거요.》 하고 지배인이 기대어린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미영동무생각엔 어떻소?》

미영은 방을 빙 둘러보다가 지배인책상 맞은편 벽에 시선을 멈추었다.

《이 벽에 걸어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단추를 누르면 휘장이 걷혀 올라가며 계통도가 나타나고 다시 누르면 휘장이 내려오며 가리워지고...》

《종구만, 미영동무가 한번 말아서 해보오. 동무에게야 그게 크게 아니지.》

미영은 어쭙은 미소를 지었지만 한번 숨쉴새 없이 고집기도 했다.

《알겠습니다.》

큰것은 아니였어도 그 조종장치의 제작을 위해 미영은 며칠밤을 밝히며 씨름하게 되었다.

한주일후 완성된 전력계통도를 보려고 부서마다에서 지배인실로 모여들었다.

미영이가 지배인책상측면에 붙인 단추를 누르자 벽을 가리웠던 우유티벳단천이 스르르 말려올라가고 전력계통도가 서서히 드러났다. 순간막혔던 숨길이 열리듯 《야.》 하고 새어나오는 탄성들이 미영의 마음을 붕 뜨게 하였다. 크건작건 자기의 창조물이 사람들의 기쁨과 찬탄의 대상으로 될 때 기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거 희한하구만, 작전지도같은게.》

《미영동무가 재간둥이구만.》

그 칭찬의 말들속에서 미영은 은연중 지배인의 목소리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싶었던것이다. 어린애처럼 자기가 칭찬을 바라는것이 우습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 아닌 조명수의 칭찬만은 듣고싶었다. 지배인으로 온지 얼마 안된 그에게서 불만부터 샀던것 같아서...

허나 조명수는 흐뭇한 시선으로 계통도만 응시할뿐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니 저으기 허전하고 서운해졌다.

《멋있구만.》, 《시내배전망이 한눈에 알리누만.》 하고 이구동성으로 경탄하는 소리들을 듣고있던 지배인이 불쑥 물었다.

《미영동무, 저 계통도를 보고 생각되는게 없소?》

미영은 대답대신 눈만 크게 떴다. 계통도의 설치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도 계통도자체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것이다. 이때까지도 그것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고있는 그였다. 그러나 그 물음을 듣는 순간 당황한 속에서도 지배인이 괜히 묻는것이 아닐것이라는, 그가 계통도에 남다른 의의를 부여하고있다는 느낌이 가슴을 두드리는것이였다.

재빨리 계통도를 훑어보는 미영의 뇌리에 달포전 변전소들과 선로들을 돌아보고 올 때 지배인이 묻던 말이 스쳐지나갔다.

《우리의 계통구성이 복잡한것 같지 않소?》

그때는 잘 모르겠던것이 지금 계통도를 보니 불보듯 명백해졌다.

《현존배전체계의 약점들을 알수 있습니다.》

조명수의 눈이 번쩍 빛났다.

《웁소, 그거요. 이렇게 계통도를 만들어놓으니 시내송배전체계의 결합들을 한눈에 알수 있고》하고 그는 천천히 힘있게 말을 맺었다.

《커다란 전력예비를 찾게 되었소.》

호기심어린 시선들을 한몸에 모으며 그는 계통도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팔을 짝 뻗쳐서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가 제일 애먹는 제3지구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머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긴 선로들을 자른다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다면... 그러면 선로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오. 여기서 전력손실이 얼마나 줄어들겠는가? 생각들 해보시오.》

결정적으로 계통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하오. 그 다음 전압단계를 한단계 더 높여야 하오. 그러면 초보적으로 계산해봐도 시내에 새로 건설된 식료공장과 개건확장된 경공업공장들을 전부 만부하로 돌릴수 있는 전력을 얻을수 있소.》

모두 눈이 둥그래져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그의 환해진 얼굴은 빛을 뿜는것 같았다.

수천크바능력의 발전소를 하나 건설하는것과 같은 거대한 전력예비안, 그것은 미영이네 시배전부의 실정에서는 하나의 혁명과 같은것이였다.

불현듯 번개같은 깨달음이 미영의 뇌리를 스치였다, 바로 저 예비를 찾자고 지배인이 지금까지 모대겨왔구나 하는.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전선들과 완금, 애자들은?...

그외에도 수다한 자재가 보장되어야 이 예비안

이 은을 낼수 있는것이다.

《책임기사동무의 생각은 어땠소?》

《글쎄... 전망은 희한한데 실현가능성은 어떨는지...》 하며 책임기사는 미안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미영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조명수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는 눈에선 격렬한 불꽃이 일었다.

《지금 전기는 어디서나 가장 첨예한 문제로 나서고있소. 전기란 쓰기는 쉬워도 생산은 얼마나 힘들게 되는가? 현대 그 귀중한 전기를 밑빠진 독에 붓는 물처럼 줄줄 흘러버리면서, 그래서 인민생활에 절실한 제품들을 팡팡 생산해야 할 공장, 기업소들이 만부하를 견지 못하는것을 보면서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소. ... 가능성은 바로 우리의 결심과 투지에 달려있소. 인민에 대한 성실한 북무정신을 가지고 달라붙으면 길은 열리는거요.》

미영은 열띤 눈으로 지배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정말 그의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술한 자재와 설비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지 도저히 가늠이 가지 않았다.

여러 대상건설에 모든 자재들이 집중되고있는데 자기네와 같이 작은 배전부의 자체공사에 국자적투자를 바랄수는 없는것이였다...

×

하나 지금 실태보고서를 쓰면서 미영이가 하나만은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니 지배인이 찾아낸 전력예비안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정말 의의가 대단한 문제라는것이였다. 그 제안이 기업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당위원회의 적극적지지를 받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놀라운 발견이야, 오자마자 정말 큰것을 내놓았어, 이렇게 큰 전력예비를 발견해냈다는것만 해도 평가할만 한 일이지.

누구도 관심하지 않던 지형학적계통도를 만들고 나선것부터가 조명수의 남다른 안목을 보여주는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곧 전력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였다. 그 구상이 실현으로 구현되자면 자재와 설비의 부족이라는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다. 그 장애물을 지배인이 어떻게 넘어서겠는지 미영은 여전히 가늠이 가지 않았다.

물론 자재예비를 찾기 위한 진지한 협의회끝에

자재부원과 설비부원이 애자와 전선때문에 출장을 갖고 지배인자신이 전화로 해당한 기관책임자들에게 합리적계통구성과 송압공사의 절박성과 의의를 열이 나서 설명하기도 한다는것을 미영은 알고있었다. 허나 그렇게 하여 해결되는것이 소요되는 량을 채우기엔 너무 속도가 더디였다.

미영은 지배인의 정열과 투지에는 경탄을 하면서도 그것이 다 주관적욕망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품게 되는것이였다.

그래서 다음날 자기가 쓴 실태보고서에 지배인이 만족해하는것을 보았을 때도 별로 기쁜줄을 몰랐다. 지배인의 그 노력들이 과연 빛을 보겠는가고 생각하면서. 조명수는 흐뭇한 시선으로 미영을 쳐다보았다.

《잘 썼소. 사실 미영동무에게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 동무에게 큼직한 일감을 맡기려고 하오.》

미영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눈을 크게 뜨고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또 무슨 엄청난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가? 정말 이 지배인밑에서는 생활의 안정을 잃어버리고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은근히 겁이 났다.

그의 심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는지 조명수가 미소를 지었다.

《겁낼건 없소. 동무의 능력으론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배전소의 전체 계통에 대한 감시와 사고개소발견, 고장퇴치를 위한 지령체계 등을 한계단 개선하자는거요. 그러면 인민생활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고 새로운 전력예비도 찾을수 있소. 온 나라가 CNC 화의 열풍으로 끓는데 우리도 따라서야지. 어땠소, 자신있지?》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허나 눈에는 긴장과 불안도 어려있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고 믿어주는것도 고마웠지만 지금 전압단계를 올리는 문제, 정상운전을 위한 설비시험 등으로 할일이 가득한데 지배인이 너무 욕망을 앞세우지 않는가 싶었던것이다.

《지배인동지는 우리 시험실을 연구소처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연구소? 그렇소. 절반 연구소로 만들자는거요. 배일을 오늘로 당겨와야 하니까. 하지만 이걸 배일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문제요. 물론 지금 일감이 많지만 우리 좀더 높은 단계를 내다봐야 하오. 자기에 대한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람만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진정으로 사회와 인민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소. 자기 땅에 밭을 불

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라는 구호가 무엇을 의미하오? 우리가 자기의 사업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세우지 못하면 우리 인민에게 최상의 행복을 주시려는 장군님의 뜻을 실현할수 없소. 그 길에서는 누구보다도 미영동무와 같이 재능있는 기술 인재들이 자기 위치를 든든히 차지하고 분발해야 하오. 물론 녀성으로서, 가정부인으로서 걸리는게 많고 남보다 몇배 힘드리라곤 보오. 그러나 모든 것은 마음먹기탓이요. 난 미영동무가 대학때의 위치를 다시 차지하기를 바라오.》

지배인의 열띤 음성은 미영의 가슴을 뜨겁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목소리에 선뜻 호응하게 되지 않았다. 리상도 열정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실천이다. 지배인의 주장이 현실로 될 담보가 아직도 희박했기에 그 말을 따라나설 용기와 신심이 생기지 않았던것이다.

그날 오후였다.

미영이 시험실에 앉아 설비시험을 하고있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미영동무, 누가 왔나 보오.》하는 지배인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고개를 돌린 미영은 문가에 지배인과 나란히 선 딸 성옥의 웃음띤 얼굴을 보았다.

《아니, 네가 어떻게?》

놀라 몸을 일으키며 묻는데 지배인이 미소어린 얼굴로 딸대신 대답했다.

《내가 회의갔다 오는데 애가 정문에 서있더군. 누구를 찾는가고 물으니깐 어머니이름을 대더란 말이요. 그래서 곧바로 여기로 데려왔지.》

《고맙습니다, 지배인동지.》하고 미영이 어줍게 웃자 조명수가 고개를 저었다.

《고맙긴, 귀중한 인재야 정중히 대해야지.》

《귀중한 인재라니요?》

미영의 웃음어린 말에 지배인이 대꾸했다.

《세상은 불공평하거던. 우리 아들은 막돌처럼 생긴데다 머리도 그저 그러루한데 미영동문 이렇게 딸이 어머니이상으로 곱게 생기고 공부도 1등, 노래도 1등이라니 어떻게 그런 복만 차례지는지...》

《원, 지배인동지도...》하고 웃었지만 내심 미영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지배인이 어떻게 성옥이에 대해 그렇게 잘아는가?

《지배인동진 어떻게 우리 애에 대해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면 지배인이요?》

《모를 일이다. ...》하고 고개를 기웃하면서 미영은 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 어떻게 여기에 왔니?》

《선생님이 이걸 가져다보이라고 해서요.》하고 딸은 책가방에서 십여장의 종이뭉데기를 꺼내놓았다. 수학시험지들이었다. 하나같은 5점짜리들이다. 등수도 매겨있는데 거의다 1등이고 2등도 드물었다. 딸의 실력과 수준을 어머니가 눈으로 보라는것이다. 그래도 음악소조에 보내겠는가 하는 담임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는것 같았다.

《어디 나도 좀 볼가?》하고 손을 내밀어 한장한장 번져보던 조명수가 한마디 던졌다.

《4점이나 3점짜리도 좀 있어야지 몽땅 5점에 1등이니깐 어디 심심해서 보겠소?》

그 말에 성옥의 눈이 동그해지는데 미영이 웃으며 곱게 눈을 흘겼다.

《아유, 지배인동지에게 그런 심술이 있는줄은 몰랐군요.》

조명수는 히죽이 웃더니 허리를 굽히고 성옥의 얼굴을 애정깊게 들여다보다가 미영에게 물었다.

《이 애를 우리 며느리 삼을가? 크면 미영동무보다 더 고울것 같애.》

미영이도 톡조로 대꾸했다.

《그 막돌같이 생겼다는 아들에게 시집보낸단 말입니까? 아들이 몇살입니까?》

《이 애와 한반이요.》

《한반?》하고 미영은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성옥이에 대해 잘 알고계셨구만요. 근데 난 왜 몰랐을가?》

지배인은 말없이 성옥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러다가 웃주머니에서 원주필을 꺼내여 성옥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래 수학이 재미있니?》

《예.》하고 성옥은 고개를 까닥거렸다.

《제일 재미있어요.》

《신통히 어머니를 닮았구나. 어머니처럼 공부를 잘해라. 계속 1등을 하구. 그래서 커서 어머니처럼 아니, 어머니보다 더 큰일을 해야 한다.》

미영은 저으기 놀란 눈으로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지배인에게 저런 다심한데가 있었는가 하는 충격으로 가슴이 뭉클해왔다.

순간 언젠가 문건비준을 받으려 지배인실에 갔다가 본 광경이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그때 조명수는 수리반장이 가져온 자재출고서에 수표를 해주며 말하고있었다.

《출고서에 망탕 수표하지 마오. 엄청나게 초과되는데 그걸 따져봤소? 면사는 3~4프로가 규정인데 동무넌 8프로이상 요구하지 않는가? 그렇게 예비를 조성해서 어떻게 하자는거요?》

문가에 선 미영을 본 지배인은 《저기 앉소.》

하고 창문가의 의자를 가리켜보이고 다시 반장에 게 시선을 돌리며 타이르듯 말을 이었다.

《물론 이런저런 경우들을 고려해서 예비를 조성하려고 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그 말에 힘을 얻은듯 반장이 발뻘하는 소리를 했다.

《그저 조금 차이를 두었었습니다.》

순간 지배인의 눈에서 섬광이 일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그게 조금이요? 두배가 조금인가 말이요?》

그 말에 미영이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두배는 결코 조금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누구도 그런데 관심을 돌리지 않았었다. 전 지배인은 수리반의 요구를 군말없이 들어주었고 모두가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겨왔던 것이다.

반장은 대답을 못했다.

지배인의 웅근 음성이 엄격하게 울렸다.

《지배인이 너무 꼬치꼬치 따진다고 할수 있소. 그러나 그런 현상을 모르는척 하면 기업소가 놓고 나라가 녹는단 말이요. 동무는 기능공이고 기술자라고 할수 있는데 기술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책임적인것인지 아오?》

지배인의 말은 다 옳았다. 그런데도 그때는 너무 딱딱하고 까다롭지 않은가싶었었다. ...

허나 지금 자기의 어린 성욕이를 대하는 지배인의 다심한 모습앞에서 미영은 그때의 인상을 재음미해보게 되는 것이었다.

그 딱딱하고 까다로와보이는 모습속에 나라의 살림살이가 허실되는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와하는 참으로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은게 아닌가싶었다. 그러자 지배인이 성욕에게 하는 당부가 한층 무거운 의미로 뜨겁게 가슴에 박혀드는 것이었다.

×

며칠후 도에 올라갔던 지배인이 회색이 만면해서 돌아왔다. 실패보고서와 전투계획서를 본 시와도의 책임일군들은 배전부동계급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는 것이었다.

또 며칠이 지나자 커다란 전선통구리들과 7형강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들이닥쳤다.

전력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과 함께 사람들은 지배인의 완강한 투지와 내밀성에 말없이 감탄하였다.

미영이도 놀람과 환희의 눈으로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지배인의 의도가 결코 허망한 공상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속에 그에 대한 믿음이 가슴속에

묵직하게, 후덥게 자리잡는것을 벽찬 심정으로 느끼고있었다.

《가능성은 우리의 결심과 투지에 달려있소. 인민에 대한 성실한 복무정신을 가지고 달라붙으면 길은 열리는거요.》 하던 지배인의 말이 새삼스레, 환희롭게 가슴을 두드렸다.

드디어 합리적인 계통을 구성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새로 세운 콘크리트전주들과 변전소인출선으로부터 두단으로 보기 좋게 뻗어나간 전선들을 배전부사람들은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또 한차례의 공사를 앞두고 전날 저녁에 조직사업이 진행되었다.

마감에 지배인이 물었다.

《더 제기할것이 없소?》

로동부원이 일어섰다.

《오후에 시에서 도로공사와 철도지원과제가 긴급포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맡기려고 하는데 래일 공사때문에...》

《래일 공사가 어쨌다는거요?》

지배인이 그의 말허리를 툭 잘랐다. 서늘한 눈으로 로동부원을 지켜보던 지배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지배인의 눈에서 불이 번쩍 일었다.

《우는 소릴 하려고 하지 마오.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러니 최대한 로력예비를 총동원해서 작업조직을 잘해보오. 지금이야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 맡아안고 뛰어야 할 때가 아니요. 하지만 시험실은 고려하시오. 그 동무들의 노력여하에 우리 기업소가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변모되는가가 달려있소. 그런만큼 그 동무들이 잡념없이 기술적문제해결에 몰두하게끔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하오.》

미영은 어깨가 무거워짐을 의식하였다.

지배인의 얼굴은 꼭 수척해보였다. 관골이 두드러지고 움푹 꺼진 눈엔 피발이 섰다. 공사를 벌리기가 간단치 않은 모양이었다. 지휘관의 구실을 하기가 험치 않을것이다.

책임기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래일 하루동안에 꽤 공사를 끝낼수 있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지배인에게 쏠렸다. 다들 래일과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있었던 것이다.

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이 날카로와졌다.

《어떤 일이 있어도 래일중으로 끝내야 하오. 모래는 명절인데 명절날 주민들이 불을 못 보게 해서야 되겠소? 인민에 대한 복무는 말로 하는게

아니요.》

사람들의 얼굴빛은 여전히 밝아지지 않았다. 지배인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주관적 욕망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일감은 많은데 하루 24시간은 고무줄처럼 잡아늘굴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은 새벽부터 하늘이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번개와 우뢰속에 무섭게 폭우가 쏟아져내렸다. 얼마후 대줄기갈던 비가 가늘어지면서 스산한 바람이 터졌고 날이 어찌나 차지는지 금방 얼음이 얼것만 같았다. 마치 배전부사람들의 의지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미영은 시험실에서 일하면서도 창밖의 락수물소리와 짹짹 하는 바람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곤 하였다. 공사장에서 수고할 동무들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저 비속에 얼마나들 추울까? 공사가 어떻게 진척되고있을까? 공사장에서 일하는 동무들에게 미안한감을 누를수 없었다. 자기만 전투장에서 리탈되어있는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모두 시험때문에 공사장에 나가고 녀성인 그만 기업소에 남아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계통운영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했던것이다.

오후에 수리를 끝낸 계전기의 시험을 하고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물이 줄줄 흐르는 비옷을 입은 설비부원의 둥그런 얼굴이 나타났다.

《창고장 못 봤소?》

《못 봤어요. 공사가 끝나가요?》

《끝나는게 뭐요? 지배인이 쓰러졌소.》

그 말에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낮에 두번이나 쓰러지더니 끝내... 구급차에 실려갔소. 의사의 말이 지나친 과로때문이라는거요. 창고장이 어디에 갔을가? 빨리 완금과 애자를 가지고 나가야겠는데.》하고 설비부원은 문을 광닫고 나가버렸다. 그 광—하는 문소리에 미영의 마음이 부쩍 긴장해졌다.

물아치는 비바람속에 일하는 사람들과 쓰러진 지배인을 생각하니 미영은 집단의 믿음과 함께 기업소의 래일을 위해서 더 많이 사색하고 연구하고 뛰라는 말없는 당부들이 마음속에 와닿는것 같았다.

미영은 흐르는 시간을 잊고 긴장하게 시험에 몰두하였다.

계전기시험을 끝내고 시계를 보니 퇴근시간이 켜 지났다. 이제라도 공사장에 나가보고싶었다.

전화로 남편에게 알린 다음 비옷을 입고 청사밖에 나서니 불어치는 비바람에 당장 얼굴이 선풍하게 젖어들었다.

공사장에 도착하니 늘어진 전기줄주변에 여러사람이 모여있는것이 보이는데 비속에서도 즐거

운 웃음소리들이 들려왔다.

전주우를 올려다보고있던 비옷을 입은 사람이 그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어떻게 나왔소?》하고 소리쳤다. 책임기사였다.

미영이 전기줄을 당기는 사람들속에 끼여들자 유쾌한 통담들이 쏟아져나왔다.

《미영동무, 뭘 맛있는걸 가지고나왔소? 우린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데...》

《동문 그저 먹는것밖에 몰라. 미영동문 날 만나러 왔어. 오늘 공사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거던.》

《이 사람들아, 미영동문 우리 일을 현대화해주려고 나왔어.》

《호호, 난 동무들이 다 보고싶어서 나왔어요.》

하고 미영은 큰소리로 웃었다.

문득 전주우에서 《자, 당기라.》하고 웨치는 갈린 목소리에 미영의 눈이 둥그레졌다. 지배인의 목소리 같았던 것이다.

《누군지 지배인동지와 목소리가 신통하군요.》

《지배인동지인데 뭐. 그 성미에 병원에 누워있겠소? 오자마자 직접 전주우에까지 올라갔소.》

(지배인동지가 전주우에까지?)

무엇인가 가슴을 쿵 울린다.

《지배인동지, 조심하십시오.》

누군가의 웨침소리에 지배인이 대답한다.

《걱정말라구. 내가 전주를 처음 타보는줄 아오?》

《이젠 어딜 하랍니까? 우린 다 끝냈습니다.》

《끝냈소? 좋소. 신원반을 도와주오.》

《자, 당기자구. 하나, 둘, 셋, 어영차. ...》

한참만에 지배인이 전주우에서 내려왔다. 책임기사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미영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미영은 모닥불을 피우는걸 도와주고있었다.

지배인이 미영이에게 다가왔다.

《나왔소?》

《네, 저 혼자 방안에 있기 미안해서 좀 돕자고...》하고 미영이 어줍게 미소하자 지배인이 큰소리로 웃었다.

《미영동무가 나왔으니 공사장의 기세가 부쩍 올라가겠구만, 하하.》

곁에 있던 로동자들이 유쾌히 따라 웃고 미영은 수줍게 웃는데 지배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미영동문 여기 나오지 않아도 되오. 동무똥은 우리가 다 하겠으니 여기 나올 시간이 있으면 책을 한페이지라도 더 보오.》

《괜찮습니다. 기업소가 전투를 하는데 저만 편안히 방안에 있겠습니까?》

그러자 조명수의 눈이 번쩍 불꽃을 튀겼다.

《무슨 소릴 하오? 관점이 틀렸구만. 로력이 남아서 동무들에게 시간을 주는줄 아오? 최첨단을 향해 달려야 할 우리의 전진속도가 동무들에게 달려있기때문이요. 자기의 사명을 잊은게 아니요?》

미영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조명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마디마디가 바늘처럼 미영의 가슴을 찔렀다. 정신이 번쩍 드는것 같았다.

《진정으로 동무들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집단의 기대에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 미영동무?》

서운한 눈길로 미영을 일별한 지배인은 돌아서서 비발속으로 멀어져갔다.

허나 섭섭한듯 자기를 바라보던, 지어 준엄해보이기까지 하던 그 시선은 미영의 가슴속에 그냥 박혀있었다.

미영은 당황함과 뭐라고 적어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정이 어린 눈길로 그의 뒤모습을 멍히 바라보고있었다. 착잡한 감정들이 엉킨 무겁고 뜨거운 심정이 가슴속에 꽉 차올랐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최첨단을 향해 달려야 할 우리의 전진속도가 동무들에게 달려있기때문이요. 자기의 사명을 잊은게 아니요?》

그날 밤 미영은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앉아있었다. 계통감시의 보다 합리적인 컴퓨터화방안을 모색하느라고 참고서를 뒤적이며 머리를 짜내고있는데 조용하던 복도에서 육중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소리는 그의 방앞에서 멎어섰다. 푹푹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문이 열리자 비웃을 입은 지배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미영은 벌떡 일어섰다.

미영의 놀란듯 한 얼굴과 책상우를 일별한 조명수가 지친 음성으로 나직이 입을 열었다.

《불이 켜져있기에 들렸소.》

《끝났습니까?》

조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소.》

조명수는 무거운 걸음으로 방에 들어와 문결에 놓인 의자에 몸을 실었다.

끝났구나, 끝내 해냈구나, 예상외로 빨리. 가슴 후련한 안도감이 미영의 가슴을 휘감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래일중으로 끝내야 한다고 하던 조명수의 목소리가 되살아오며 그는 하겠다고 하면 꼭 하고야만다는 확신, 두터운 신뢰가 후덥게 가슴을 달구었다. 지친 지배인의 모습이, 자기의 리

상을 한결음한결음 실현해나가는 완강한 그 모습이 무척 친근하게, 미덥게 안겨왔다. 놀라운 안목과 비상한 전개력, 완강한 투지로 일을 제끼는 저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일군이 아닐가싶었다.

《집집마다 전등불이 밝게 켜지는걸 보니 모든 피로가 가셔지는것 같구만. 우린 바로 사람들에게 불을 주는 이 기쁨으로 살지. 그렇지 않소, 미영동무?》

불을 주는 기쁨이라? 자기는 그 기쁨을 얼마나 느껴왔던가? 미영은 생각깊은 눈으로 조명수의 미소어린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명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젠 들어가오, 집에서 기다리겠는데...》

《좀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조명수는 미영의 얼굴을 잠시 여겨보다가 말없이 몸을 돌렸다.

×

미영은 성옥에게 신길 구두를 사들고 상점을 나갔다. 신발공장에서 생산된 새 제품들을 사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들로 상점안팎이 더 환해진것 같았다.

《장화가 곱지요?》

젊은 녀인이 다른 녀인에게 파란 장화를 내보이며 말한다.

《새로 꾸린 공정들에 만부하를 걸었대요. 우리 신발공장제품이 정말 괜찮아요.》

좋아하는 녀인들의 모습이, 기쁨에 넘친 그 목소리들이 미영의 가슴을 후덥게 덥혀주었다. 정녕 저들의 이 기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라는 노력을 기울였던가? 조명수지배인을 비롯한 자기네 배전부사람들의 노력도 그속에 깃들어있다. 새로 개건확장된 경공업공장들에 만부하를 걸기 위해 아글타글 기울인 조명수지배인의 노력을 저 녀인들은 모를것이다.

공사를 끝낸 밤 자기 방에 찾아왔던 지배인의 모습이 눈앞에 보여왔다. 대학시절 청년동맹 초급 단체비서였던 조명수. 그때에는 실력에서 자기가 그에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었다, 대학생과 학탐구상도 함께 받았고.

허나 오늘에 와서는 자기들 두사람사이에 까마득한 차이가 느껴졌다.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계통도의 필요성도 조명수는 제격 포착했고 수천크바의 전력예비도 놀랍게 발견해냈다. 그 비결은? 자기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가? 가정부인이었기때문인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조명수가 지배인으로 오자마자 찾아낸 문제점들을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은 원인이 단순히 자재조건에 있었던가?

언젠가 조명수는 이런 말을 했었다.

《가능성은 우리의 결심과 투지에 달려있소. 인민에 대한 진정한 복무정신을 안고 달라붙으면 길은 열리는거요.》

조명수가 지닌 바로 그 정신이 자기에게 없지 않았는가싶었다. 누구나 말로는 외우지만 조명수처럼 심장에 안고살지는 못했던것이다. 개건확장된 경공업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지 못하는 문제를 자기는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았었다. 조명수처럼 불을 주지 못해 안타까와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불을 주는 기쁨을 환희롭게 받아안을수도 없었다.

지금도 전문지식이나 기술실무에서는 누구에게 쫓기지 않는다고 자부하고있지만 실력이란 결코 그것만이 아닌것 같았다. 조명수가 지닌 혁신적인 안목과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는 전개력이 없이는 일군의 실력을 말할수 없지 않을가싶었다. 그 실력은 바로 인민의 아픔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헌신성의 토양에서만 꽃피난다는 생각이 아프게 가슴을 두드렸다.

문득 비내리는 공사장에서 안타까이 부르짖던 지배인의 말이 되살아왔다.

《로력이 남아서 동무들에게 시간을 주는줄 아오? 최첨단을 향해 달려야 할 우리의 전진속도가 동무들에게 달려있기때문이요. 자기의 사명을 잊은게 아니요?》

전류와 같이 가슴을 꿰뚫던 그 부르짖음, 우리 시대의 대학졸업생, 새 세대 기술자라면 마땅히 최첨단의 봉우리를 향해 완강히, 쉽없이 돌진해야 한다고 안타까이 깨우쳐주던 그 목소리는 인민을

위한 진정한 복무란 어떤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절절한 타이름이었으니 그때부터 그 말은 무시로 그의 귀전에 울리며 그를 채찍질하곤 하였다. 그 책임적인 사명을 일깨워주려고, 우리 시대 기술자의 진정한 위치에 자기를 세워주려고 남달리 원심을 기울여온 조명수지배인... 고마운 사람이였다.

팔애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왔다.

《엄마, 나 오늘 수학시험에서 또 1등을 했어요. 수학은 정말 재미있어, 노래도 좋지만...》

실로 조명수지배인이 아니었다면 그 애의 수학적재능을 억눌러버리지 않았을가? 그애의 앞날을 축복하던 지배인의 그 당부가 자기로 하여금 마침내 결심을 하게 했던것이다.

지금에야 비로소 그는 나라를 위해 한몫 당당히 할수 있게 애를 바로 키우자고 해도, 자식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어야 할 부모의 도리를 다하자고 해도 어머니인 자기가 높은 리상과 실천력을 가지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길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있었다.

언젠가 조명수가 하던 말이 다시 들려온다.

《모든것은 마음먹기탓이요.난 미영동무가 대학때의 위치를 다시 차지하기를 바라오.》

그 당부를 미영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었다.

옆에 서있던 성옥이 미영의 손을 정답게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 수학소조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꼭 1등 할래. 아버지도 찬성하셨어요.》

《그래, 그래라.》

미영은 성옥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불밝은 상점문을 나섰다.

정든 도시의 밝은 불빛이 그들을 따스히 어루쓸어주었다.

유전자공학

한 생물로부터 다른 생물에게 구조유전자를 옮겨서 발현시키는 방법으로 생물의 유전적특징을 변화시키는 생물의 유전적 개조기술방법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데옥시리보핵산(DNA)재조합기술 또는 유전자공학이라고도 한다. 유전자를 증폭시키거나 프로모터를 바꾸어 유전자발현을 강화하는 기술도 유전자공학에 포괄된다.

유전자공학기술은 1950년—1970년에 이룩된

유전물질 DNA의 화학적구조의 해명, DNA가 단백질의 1차구조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생물의 유전적특징을 지배하는 기전의 해명, 핵산의 합성과 분해를 촉매하는 효소반응의 생화학전기전에 대한 연구결과, 핵산 및 단백질과 같은 생물고분자를 다루는 고분자화학기술의 발전 등을 토대로 하여 1970년대에 발생하여 그후 비상한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근위부대 전사들의 삶의 흔적은

한승길

자기 삶의 위훈을 자랑하고싶음
누구에겐들 없으랴만
여기 희천의 근위병들이
결사의 의지로 열어나간 투쟁의 삶은
하늘의 해와 달도 내려다볼수 없는
수천척 땅속밑 물길굴에 새겨졌다

무시로 봉락이 지는 위험한 정황!
콩크리트피복속의 억세인 철근은
옛가락같이 휘여들어도
깊디깊은 갯속에 신념의 기둥이야
그 어찌 휘여들라

쏟아지는 석수속에 몸을 내대고
콩크리트타입물로 굳어질망정
최고사령관의 근위병들은
한결음도 뒤전으로 물러선적없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어두운 갯속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격전을 치러
조국의 진군로를 열어나가는 군인건설자들

겹치는 피로에도 굴함없이
착암기를 놓지 않고
적진에 기관총을 내두르듯이

접어드는 암벽을 밀어가던 그 기세
수많은 오늘의 조군실영웅들이
바로 여기 희천의 돌격로에 있었노라
한몸으로 동지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희생된 전우들도 있었노라

아, 우리 장군님
오신 길 또 오시고 다시 오시여
희천의 용사들을 만나주십은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선이여서만이라

이제 여기에 물이 넘쳐흐르면
먼 후날 후손들이 다시 볼수 없다고
거치른 벽면까지 쓸어만져보시며
가지가지 위훈을 다 헤아려주셨나니

천연암반에 새긴다 한들
빛나는 그 위훈 다 담으랴만
병사들의 아버지 최고사령관
희천의 증견자가 되시였음을
강성대국건설사에 첫 페이지로 전하여지리
장군님의 근위부대
병사들의 삶의 흔적은

상식

철갑상어

철갑상어과의 바다물고기이다. 조선동해와 로씨야의 연해주와 싸할린, 일본의 홋카이도연해에 퍼져있다. 몸길이는 보통 1.5m 이상에 이른다.

몸은 긴 원통모양이고 주둥이는 뾰족하다. 주둥이밑에는 4개의 수염이 한줄로 가로 나있으며 두드러진 작은 입이 있다. 이발은 엄지고기에는 없고 새끼고기때에만 있다.

등쪽에 8~9개, 양옆구리에 각각 34~36개, 배쪽에 8~9개의 큰 뼈판들이 배열되어있어 마치 철갑을 쓴것 같다. 그밖의 피부에는 작은 비늘이 덮여있다. 등쪽은 푸른 채색이고 배쪽은 재빛이 도는 흰색이다. 가까운 바다와 큰 강들의 하구에서 살면서 주로 떠살이생물과 유기물의 찌끼를 먹으며 때로는 작은 물고기들도 잡아먹는다. 알낱이시기가 되면 무리지어 강으로 올라온다.

4—8월에 물이 차고 맑은 강의 모래, 자갈이나 물풀에 5만~240만개의 알을 낳아 붙인다. 알의 직경은 보통 3mm 안팎이며 처음 낳았을 때에는 누런색이나 점차 검은색으로 변한다. 알을 낳은 다음에 엄지고기는 인차 바다로 내려간다.

알은 약 1주일이 지나면 까난다. 새끼고기는 초겨울에 바다로 내려간다. 자망, 덩장, 주낙 등으로 잡는다. 고기와 알은 고급식료품으로, 부레는 질 좋은 갯물원료로 리용된다.

세계적으로 그 자원이 적으므로 적극 보호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철갑상어양어에서 성공하였을뿐 아니라 평양의 대동강에 자리잡고있는 웅장한 옥류관에서 누구나 이 물고기를 맛보고있다.

격려

김릉수

시원한 산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어루쓸었다. 골짜기아래서 바라볼 때는 그리 경사가 급한것 같지 않더니 이제 겨우 중턱에 올랐는데 숨이 턱에 닿았다. 침수구역인것으로 하여 이미 용재림은 다 찍은 뒤라 키낮은 잡관목들만이 듽성듬성 서 있었다.

저앞의 산과 산을 련결하여 키긋구는 언제가 완공되는 날이면 여기도 물에 잠기고말것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길성은 오늘 꼭 여기 올라 언젠건설장전경을 그리고싶었다.

벌써 한달째 발전소건설장에 내려와있으면서 아침과 한낮, 저녁과 밤의 전경을 여러곳에서 그려놓았을뿐아니라 작업공정에 따르는 모든 요소들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건설장의 모든것을 다 그려놓았다. 그중에서도 성격적표상이 느껴지는 군인건설자들의 인물소묘들을 특별히 많이 해놓았다. 그런데 아직도 어디서 어떻게 구도를 잡고 무엇을 그리겠는가 하는것은 아리송했다. 받아안은 흥분은 강한데 좀처럼 명백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평퍼짐한 바위가 눈에 띄자 길성은 서둘러 자리를 잡고 앉았다. 들끓는 언젠건설장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가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바닥기 초롱크리트타입이 한창이었는데 벌써 골짜기를 가로질러 웅장한 언제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언제 좌측에 솟은 산중턱에는 《단숨에!》라는 구호가 새겨졌고 우측 산중턱에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글발이 막 살아움직이는것 같이 눈에 안겨왔다.

한창 일떠서는 언제의 아래부분에 새겨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가 저녁 노을빛에 물들어 튼다른 감흥을 주었다.

길성은 화판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그런데 무엇을, 무엇에 지금 내가 이렇듯 흥분하고있는가?

현재의 언제골격에 맞게 대조적으로 시야에 안겨오는 산봉우리들과 나란히 구도를 잡아보면 하늘과 강, 산과 산봉우리들만 화면공간에 꼭 찰것 같았다. 그러면 저 노을빛과 언제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의 푸른빛속에 일떠서는 언제가 색조나 구

도상 비례가 약해지고 중심설정이 모호해질것 같았다.

그런데 왜 흥분이 앞서는가?

멀리서 그것도 우에서 내려다보는 전경, 그것은 하나의 풍경화적인 구도가 아닐가?...

주제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가깝게 접근하지 못하고 회화적인 느낌만을 안고 색조와 구도에 신경을 쓰면서 정서의 기본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헤매이는것 같았다.

저자신도 알수 없는 감동에 모대졌지만 좀처럼 명백한 창작적령감은 떠오르지 않았다.

어디선가 대렬합창소리가 울려왔다. 두루 건설장을 일별하느라니 골짜기아래 혼합장주변을 지나는 군인들의 대오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앞산과 뒤산을 울리고 솟아오르는 언제벽에 울려 산울림의 메아리로 울려갔다.

산울림, 저 산울림을 화폭에 담을수는 없을가. ...

길성은 오래도록 손을 멈추고 건설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았다. 눈뿌리 아득한 건설장의 전경이 자기를 향하여 움쉴움쉴 통채로 마주오는것만 같았다. 길성은 지금 대렬합창을 하며 행진해가는 군인들의 대오에 발을 맞추어 자기도 함께 가는 느낌속에 잠겨들었다.

길성은 오래동안 그러한 흥분속에 잠겨 그림을 그렸다.

다 그린 그림을 눈앞의 전경과 대조해보고 화판을 접었다. 산을 내려 속소로 향하면서도 길성은 보는것마다 새롭고 아침에 보았던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들에 잠기는 자신을 어쩔수 없었다.

여기저기 방향없이 눈길을 던지며 한참 건설장 구역을 벗어나는데 새된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아, 아— 비키라요!》

얼결에 비켜선다는것이 물웅덩이에 한발을 툭 찰았다. 덤벼치며 다시 발을 뽑는데 이번에는 긴 철근이 어깨를 쿵 찌른다. 아픔도 미처 못 느끼고 비칠거리는데 다급히 잡아일으키는 두손이 량겨드랑이를 집게처럼 그러잡았다.

몸균형을 바로세우고 돌아서니 해별에 얼굴이

가뭇가뭇하니 탄 애된 병사가 미안한 눈길을 하고 쳐다보았다.

《어디 다치지 않았습니까?》

막내동생별이나 될가싶은 애젊은 병사가 귀염 성스러운 얼굴에 근심을 담고 뻥히 쳐다본다.

《아, 일없소!》

길성은 감탕이 게발린 한쪽발을 구르며 서둘러 철근을 다시 메워주었다. 땀메타가랑 될듯 한 철근을 여러개 묶어 어깨에 메고 오던 병사를 미처 보지 못하고 건설장분위기에 심취되어 허둥거리다 발만 적셨다.

(관청에 온 촌닭이라더니, 헛 참!)

왜서인지 길성은 자꾸만 자신이 손님으로만 느껴졌다.

숙소에 막 들어서려는데 언제나 웃음기가 남실 거리는 관리원처녀가 마주오면서 무엇인가 내밀었다.

《화가선생님, 편지가 왔습니다.》

현실체험지에서 받게 되는 편지라 호기심과 함께 얼른 받아들고 보내온 사람의 주소부터 훑어보았다.

《×× 김정수로부터》

(아니, 이 친구 한달가량 보지 못했는데 편지까지…)

길성은 서둘러 결봉을 뜯으며 호실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기 바쁘게 목마른 사람이 물 들이키듯 글줄을 읽어내려갔다.

그리운 정과 함께 건강을 넘려한 구절을 넘기니 아니 이런 경사라구야, 일련의 결혼식이 있으니 이달중에 고향에 꼭 다녀가라는 강박같은 말을 반복하며 편지를 땀었다.

(가야지, 세 친구중에 내가 빠지면 안되지.)

반가움과 흥분에 괜히 서성거리던 길성은 책상에 놓았던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편지를 다시 읽어내려가느라니 언제나 무표정한것 같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듯 한 정수의 눈빛이 자기를 내려다보는것 같았다. 그리고 빠르지 않으면서도 한마디한마디력점을 찍는듯 한 저력있는 그의 목소리까지 들려오는듯 했다.

《…지난해엔 깊은 지성과 짙은 민족적인 색채로 력사물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낸 자네가 오늘의 벽찬 시대의 숨결을 직접 호흡하며 현실에 몸을 잠그었다는 그자체가 성공을 약속한 훌륭한 자세라고 나는 생각하네. …》

(시대의 숨결을 직접 호흡? … 현실에 몸을 잠근… 성공?)

길성은 성공을 기대하여 한자한자 쏘아박듯이 써보낸 정수의 글발들이 마치 움직이는 그 어떤 물체처럼 가슴을 자극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가까이 있을 때나 이렇게 멀리 있을 때나 속깊은 진정을 부어주는 친구의 정에 젖어 오래동안 편지를 보고 또 보느라니 고향을 떠날 때 정수와 만나던 일이 화면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

그날 길성은 도에서 조직한 창작가들의 모임에 참가하고 받아안은 흥분에 휩싸인채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한 경험토론들에 이어 모두가 그들처럼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총공격하고있는 전투장들에 더 깊이 들어갈데 대한 힘있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마을어귀에서 하늘을 향해 억세인 아지들을 한껏 펼친 느티나무의 푸른 잎새들이 그 무슨 하많은 사연을 터놓듯이 설렁대고있었다.

멀리서부터 그 나무를 바라보는 길성의 마음속에 애뜻한 정회가 차올랐다.

마치도 아들을 기다려 동구밖으로 마중나와 서있는 어머니갈기도 하였다.

저도 몰래 이끌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걸음을 옮기던 길성은 나무밑에 앉아있는 낮익은 모습을 여겨보았다.

한여름에도 진회색모자를 눌러쓰고 그린듯이 움직이지 않는 뒤모습을 보고도 정수임을 제격알아보았다.

무슨 생각을 깊이 하는지 길성이 다가가는것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언제나 활달하던 옛모습은 찾아볼수없이 조각상처럼 굳어져있는 그를 보는 길성의 마음에도 아릿한 느낌이 가슴언저리를 누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정수, 무슨 생각을 하고있나?》

길성의 목소리를 가려듣고 문득 머리를 드는 정수의 눈가에 깊은 고뇌가 비껴있었다.

탄광개발지에서 수많은 동지들을 위험속에서 구원하면서 다친 다리치료때문에 오래동안 병원에 있던 그가 퇴원한지도 퍼그나 오랬다.

아직은 의족부위가 걸음에 습관되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하여 걸음을 익히며 출근하지 못하고있었다.

길성은 그옆에 나란히 앉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왜, 다리가 말썽가?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았나?...》

그 말에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런게 아니라 이 나무밑에 앉았노라니 어릴 적 자네와 일권이 셋이서 매일같이 저기 끝에서 이 나무까지 누가 먼저 뛰어오나 내기를 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왜 그런지 마음이 좀 서글퍼 지더군. ...》

달빛은 밤이면 여기서 숨박꼭질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서로 싱깅이질하며 승부를 겨루던 그 시절 정수는 언제나 제일먼저 달려와 나무를 그리안군하였다. 그때를 생각하는 길성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회보다 지금의 정수에 대한 동정이 앞섰다.

《정수, 자네야 자기를 바쳐 동지들을 구원하고 또 이미 세운 위훈으로 해서 입당도 하지 않았다.

이제 자네가 좀 쉬다고 해서 누가 탓할텐가. 너무 자신을 모질게 대하지 말고 치료나 잘하라구.》

그 말에 정수는 한손으로 머리에 썼던 모자를 벗어 움켜쥐었다. 그 바람에 유표하게 식을 뻔한 것이 언제나 앞이마에 드리웠던 고수머리가 되는데로 흘러내렸다. 모자를 꼭 틀어진 손이 가볍게 떨리고 얼굴엔 더더욱 깊은 고뇌가 비껴흘렀다.

《날 그런 식으로 위안하지 말라구. 피가 끓는 이 젊음이 죽지부려진 수리개마냥 동지를 맴돌면서 동정어린 시선이나 받자니 난 딱 피로와 못 견디겠네.》

길성은 다급히 그의 어깨를 그러안으며 말했다.

《너무 그러지 말게. 자, 저녁때도 되어오는데 우리 집에 가세나. 우리 처가 경단을 빚겠다고 했네.》

서로 어깨를 결고 앉은 그 모습은 마치도 친형제같았다. 정수도 마음이 좀 풀리는지 말없이 앉아 느티나무우듬지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서로의 하고싶은 말을 느티나무와 마음속으로 하고있는 듯 했다.

《보기 좋구만. 내 사진이나 한장 찍어줄가.》

등뒤에서 들려오는 석집한 목소리에 그들은 함께 돌아보았다. 정수네 직장 박아바이였다.

60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 정정하고 주름살 하나 없는 그의 얼굴에 그윽한 미소가 비껴흘렀다.

《아, 세포비서동지...》

정수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길성이 먼저 일어서

며 아바이가 들고있는 바게쓰를 받아주었다.

《아니, 이건 뭐니까?》

《시간이 좀 있더라니 나무들에 회칠을 하자구 나왔네. 날두 더워지는데 알겠나. 이 느티나무는 벌레가 잘 끼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렇지 않구만.》

명절이나 휴식일은 물론 시간만 있으면 마을 주변의 모든 나무들을 돌보면서 특히 이 느티나무에 더 큰 관심을 돌리고있는 아바이의 마음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폭격에 불타는 집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이 나무밑에서 숨진 인민군대분대장의 품에서 울던 그날의 애어린 아이가 박아바이였다.

고향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거목으로 자란 느티나무의 든든한 밑둥을 한동안 살펴보던 아바이가 조용히 말을 했다.

《자네 요새 얼굴에 무슨 구름이 그렇게 질나, 정수답지 않게.》

그 말에 정수는 더 깊이 고개를 수그렸다. 언제나 아버지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한 그의 사심없는 진정에 저절로 마음을 터놓고싶은 아바이였다. 그래서인지 더 무릅없이 저도 모르게 불쑥 말을 내뱉었다.

《나야 뭐 이젠...》

《정수, 이 사람!》

갑자기 정수의 말을 가로채는 아바이의 말에 노여움이 질게 어렸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법이야. 다리가 하나 없단들 어쨌단 말인가. 자네의 그 비상한 머리가 있구 심장이 뛰는데 뭘 그리 주저하나.》

아바이의 격한 말에 더욱더 투정질하듯이 정수는 일어서며 말했다.

《심장은 뛰는데 펄펄 날고싶은 욕망뿐이고 어디 몸이 말을 듣습니까.》

정수의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듯 한손을 그의 어깨에 얹으며 아바이는 말했다.

《자네 당원이야. 주저앉을 권리가 없어. 지금 공장에서는 설비현대화에서 한몫 할수 있는 자네가 건강을 회복하고 어서 나오길 기다리고있네.》

아바이는 무슨 말을 더 할듯이 이윽도록 나무를 바라보다가 회솔을 집어들고 나무밑을 돌아가며 회칠을 시작하였다.

길성은 바게쓰를 들고 아바이의 일손을 도왔다.

그 다음날 길성은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왔고

정수는 직장에 출근하였었다. …

갑자기 어깨부위가 결리는감을 느끼며 깊은 회억에서 깨어났다. 언제건설장을 지날 때 병사가 메고오던 철근끝에 맞은 자리의 느낌이었다. 크게 다친것도 아닌데 그때의 정황이 이상할 정도로 방불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별에 타고 땀에 젖어있던 홍안의 병사, 애티나는 얼굴과는 달리 나를 부축해줄 때 힘이 뻗치던 량손의 든든한 촉감… 어쭙게 웃음을 띠우며 미안해하면서도 그 동작과 표상에서 풍기던 생기있고 신심에 충만된 자세…

군인건설자들의 표상이 자꾸만 가슴속에 파고들었다.

길성은 창문을 활 열어제꼈다. 산촌특유의 청신한 산바람이 가슴을 부풀게 했다. 그보다도 건설장의 벽찬 소음이 마치도 심장을 쥐고흔드는것만 같았다.

정수의 편지구절이 다시금 머리속에 울린다.

(현실에 몸을 잠근? 그렇다, 나는 몸은 현실에 내려와있으면서도 저 벽찬 일터에 넋을 담그지 못하고 동 떠다닌 나그네였다.)

저녁노을이 건설장의 드넓은 구역을 감싸안고 애무하는듯 타고있었다.

(내 이제 고향에 다녀오면 정식 돌격대에 등록하고 생활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유람식체험으로 헛되이 보낸 나날들을 봉창할테다.)

정수의 편지때문인지 길성은 새로운 흥분으로 들레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는 버릇처럼 량손을 마주잡고 힘을 주다가 주먹을 쥔 오른손으로 창턱을 내리쳤다.

또 어깨에 알릴듯말듯 아릿한 연한 아픔이 지나갔다. 왼손으로 오른쪽어깨를 주무르자니 다시 그 병사의 얼굴이 떠오른다.

경계하는것 같은 눈길, 미안해서 어쭙게 웃으면서도 당당하던 그 자세…

길성은 고마왔다.

늦게나마 깨우쳐준 정수의 편지가…

애어린 병사가!

×

도시를 둘러싸고 병풍처럼 서있는 높고낮은 산발들을 감돌아온 첫빛안개가 고색이 짙은 사택마을 집집마다를 감싸고있다가 새벽특유의 생활음향에 밀리워 다시금 걷히고있었다.

오래간만에 고향집아래목에서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싶었지만 길성은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도 목을 그러안고있는 귀여운 딸애의 팔을 살며시 들어내리운 길성은 운동복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상쾌한 새벽공기를 한껏 들이키니 온몸이 거뜨해졌다.

두팔을 높이 들고 가슴을 한껏 불구었다가 내 불며 몇번 제자리뽀뽀기를 해보니 기차려행으로 인한 어제 밤의 피곤이 다 사라졌다.

대문을 열고 보폭을 크게 내짚으며 이제는 눈을 감고도 걸을수 있는 산책길을 따라 걸었다.

공원의 첫 손님은 언제나 길성이었다. 공원을 빙 돌아 늘 그랬듯이 수백년이나 자란 아름드리 느티나무 세그루가 마주서서 넓은 잎새들을 드리운 밑에 와서 간단한 몸풀이체조를 하였다. 현지에 나가있는 어간에도 때없이 눈에 밟혀오던 정든 곳이어서 길성은 그리웠던 옛 친우를 만난듯이 량손을 벌리고 나무를 그러안아보았다.

툑툑 가슴벽을 두드리느 심장이 마치도 그 어떤 련인의 가슴에 대고 정으로 뚫는 고백을 터놓는것 같았다.

태를 묻고 자라난 이 땅에 뿌리내리고 세월의 모진 광풍을 다 꺾고 이겨온 느티나무는 오늘도 무성한 잎새들을 흔들며 그에게 미소를 던지는것만 같았다.

그가 그린 수많은 그림중에도 아직까지 보관하고있는것들중에는 크레용으로 이 나무를 그린 유치원시절의 그림도 있다. 그는 때없이 그 그림을 보면서 화가로서의 희망이 바로 여기서 움트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했다.

길성은 나무밑에 놓인 의자에 앉아 다시금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린시절의 추억에 잠겨있었다.

등뒤에서 조용히 찾는 정수의 부름소리가 아니었다면 언제까지건 계속 앉아있었을것이다.

길성은 불편하게 걸음을 옮기는 정수의 한쪽팔을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불현듯 길성의 팔목을 한손으로 틀어잡은 정수가 지그시 힘을 주다가 훌쩍 앞으로 당겼다. 그 바람에 길성은 꺾충 한걸음을 앞으로 내짚으며 비칠거렸다. 어릴적부터 마주서면 서로 엇치락뒤치락 몸싸움을 자주 하던 버릇대로 부지중에 동심이 북받친 길성은 시큰거리는 팔목을 문지르며 받으려는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마주섰다.

《자네 팔힘이 더 세졌군. 그래, 괜찮아. 그런데 일없을가?》유표한 교수머리를 모자채양밑으로 슬슬 비다듬으며 정수는 장난기어린 웃음을 얼굴에

담고 길성을 태연한 눈길로 마주 바라보았다.

어릴적부터 남달리 승벽이 세여 무슨 일에서나 남에게 뒤지면 잠을 못 드는 성미의 정수를 잘 아는 길성이건만 지금은 그전같지 않게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만 어디 상대가 되랴 하는 생각 인것 같았다.

한참 노려보며 씩씩거리던 길성이 갑자기 정수의 온몸을 그러안으며 즐겁게 웃어댔다.

《정수, 고맙네!》

앞뒤가 없이 불쑥 꺼낸 길성의 말에 정수는 그러안고있던 팔을 풀며 말했다.

《뭐가 고맙다는건가?》

《신심을 잃지 않은 자네가 말일세. 몸이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네네 공장 현대화를 위해 애쓰고있는걸 보니 난 친구로서 정말기쁘네.》

진정으로 터놓는 길성의 말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한달전만 하여도 모든것을 포기한듯 하던 정수였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판판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예전처럼 생기에 넘쳐 언제나 웃는 얼굴로 공장에 출근하였고 이전보다도 더 강직한 느낌이 그의 온몸에서 풍겼다.

《습관은 여전하구만. 어제 늦게야 돌아왔는데 늦잠이라도 좀 잘게지.》

정수는 다정히 길성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의 얼굴을 세심하면서도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자네와 여기 앉고보니 아이적 생각이 또 나누만. 발동이 걸린채로 서있는 농장트랙포트를 몰아보다가 논두렁에 구겨박고 혼썰이 나던 일 말이야.》

가늘게 뜬 정수의 눈에 그윽한 회오가 비껴있었다...

그날 쇠집게같은 아버지의 손에 손목을 잡힌채 끌려오다싶이 집에까지 온 정수는 종아리를 걸어 올리고 회초리찜질을 당하고있었다. 아버지는 어물어물 변명하는 그에게 지나간 잘못들까지 다시 상기시키면서 꼬치꼬치 원인을 따지며 회초리를 안기였다. 그가 그렇게 한참 진땀을 빼고있을 때 불쑥 어디서 나타났는지 길성과 일권이 말없이 종아리를 걸어올리고 고개를 숙인채 정수옆에 나란히 서는것이였다. 놀란 아버지가 치여들었던 회초리를 내리우며 말했다.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그러자 일권이 먼저 말하는것이였다.

《정수 아버지, 사실 트랙포트를 몰아보자고 추

긴건 저예요. 제동할줄 안다면서... 제가...》

이럴 때 길성이가 한말 나서며 말을 가로챘다.

《아닙니다. 제가 더 나쁜 놈입니다. 제가 먼저...》

어안이 병병해진 정수도 눈이 울롱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 회초리를 든채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던 아버지는 벅글서하니 웃으며 말했다.

《웅심깊은것이 사내심정이라더니 이너석들이 제법인걸!》

그날 밤 그들은 정수 아버지에게 이끌리어 바로 지금 그들이 앉아있는 이 느티나무밑에 왔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 나무만을 바라보던 정수 아버지는 솔뚜껑같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나무를 잘 보거라.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한 인민군분대장이 갑자기 날아든 적기들의 맹폭격 속에서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 어린애를 구원하고는 그만 숨을 거두었다. 바로 이 나무밑에 그를 묻었겠지... 전쟁이 끝난 다음해에 그 유해를 송악산에 있는 렬사묘에 다시 안치했다. ...

그래, 이너석들아. 아버지들의 피가 스민 이 땅에서 나서자란 너희들이 그렇게 농장재산을 못쓰게 만들고 한조각 땅이라도 짓뭇개놓는다면 나라를 위해 앞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

깊은 감회에 젖어 바라보는 나무의 잎새마다 퍼져오르는 붉은 노을빛이 어려 반짝이며 그날의 아버지말을 속삭이는것 같았다.

《그날 아버지가 회초리를 안기던 이 종아리는 비록 의족으로 바뀌었지만 뭐라고 할가. ... 마음속의 종아리는 의연히 저리구만. 이 땅을 목숨바쳐 지켜내고 한생을 사랑다해 가꾼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내가 아직 자기를 다 바치지 못하고 있는것 같네. ...》

진정이 어린 그 말에 길성의 마음도 찌릿해져는것이였다.

《원 사람두, 너무 그러지 말게. 사실 그건 오래동안 현실에 나가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을 제대로 구상 못하고있는 내가 맞아야 할 회초리지. 난 자네가 보내준 편지를 받고야 현실에 나가있으면서도 유람객이 될번 했던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신이 들었네.

자네야 탄광개발지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원했고 듣자니 지금 자네네 공장현대화에서 소형기계들의 CNC 화도 모두 자네가 주

동이 되어 한다더구만.》

정수가 열적게 웃으며 말했다.

《과찬이구만. 주동까지야 뭘, 그저 마음뿐이지. 그 높은 과학의 세계를 다 거머쥐지 못하는게 안타까울뿐이네.》

말꼬리를 얼버무리는 정수의 손을 잡으며 길성은 정색해서 말했다.

《아니야, 자네는 꼭 해낼거네. 자네의 그 성실성, 그 진심어린 열정이면 못할게 뭐가!》

정수도 길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네, 힘을 줘서. 내 끝까지 해내겠네. 자네도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꼭 성공하여 명작을 내놓기 바라네.》 청신한 아침공기때문인지 아니면 서로 주고받은 진심의 대화때문인지 머리가 거뜬해지며 알지 못할 힘이 샘솟는듯 한 기분이었다.

인간생활에서 서로들 호상간에 나누는 평범한 대화에서도 뜨거운 격려를 느끼는 계기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새삼스럽게 느끼는듯 하였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청정한 기상을 내뿜는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이보게 길성이, 자네 날 좀 도와주게.》

정수의 돌발적인 말에 길성은 의자등받이에서 잔등을 떼며 의아히 바라보았다.

《일권이 말일세. 래일 결혼식인데 내 편지에도 썼지만 자네가 둘러리를 서주게.》

간청하는듯 한 그의 말에 길성은 웃으며 말했다.

《내 우리 집사람에게서 다 들었네만 당사자는 자네더러 꼭 서달라구 했다지.》

《나야 남들같이 앓은 몸인데 어떻게 새서방결에 서겠나. 또 일권인 우리 고장만이 아니라 도에 소문난 외과의사가 아닌가. 그의 체면을 봐두 그래 그의 인격에 손상이 가는것을 난 바라지 않네.》

두손을 꼭 잡고 간청하는 그의 말이 길성은 충분히 이해되었다.

《자네 마음을 내 아네. 그러나 왜 일권이 부디 자네한테 둘러리 서줄것을 요구했는지 생각해 봤나?》

그 어떤 현상이든 곱씹어 생각하며 살피는 미술가적인 습관대로 길성은 실눈을 짓고 정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여기 무슨 다른 생각이 필요한가! 짜개바지입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야 한각지속에 든 콩알처럼 자란 사이가 아닌가, 나자 자네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대루 하자구.》

정수는 잡았던 두손에 힘을 주어 자기의 의사를 다시금 표현하고는 움쭉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일어서선지 한쪽으로 기울며 휘청대던 정수는 느티나무에 손을 의지하고 균형을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굳세고도 위엄스럽게 서있는 나무에 주먹을 대고 지그시 눌렀다. 이윽도록 생각에 잠겨있던 정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오늘까지면 새로 창안도입한 프로그램도 완성될테니까 오늘 밤엔 일권의 집에서 만나자구.》

뒤따라 일어난 길성은 정수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꼭 성공하라구. 그 성공이 일권의 결혼식에 큰 선물로 될거네.》

어깨우에 놓인 길성의 손등에 자기 손을 덧놓으며 바라보는 정수의 눈가에 물기같은것이 번쩍이었다.

《고맙네!》

그들은 한참이나 마주보며 그런듯이 서있었다.

사생활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은 서로의 일을 도와주고 떠밀어주었다. 아이적부터 그들은 서로의 믿음을 저버린적이 없었다. 알사랑 한알도 쪼개여 나누며 사심없이 지내온 나날속에 서로가 자기 일에 몰려 자주 만나지 못하는 때가 많았어도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로 련결한듯 우정은 세월속에 더욱 깊어졌다.

잠을 깬 새들의 한무리가 나무우듬지에 날아와 앉으며 밝아오는 아침노을속으로 청높은 우짖음을 날렸다.

×

지난밤까지면 완성되다던 새 기술창안도입이 고충을 겪는지 아침까지 정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당에서는 아버지가 비질을 하는지 사락사락 마당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수와 길성의 처들이 밤을 새며 안팎으로 쓸고닦고했는데도 아버지는 또 마당을 쓸고있다.

제대되어 여직껏 장가들 생각을 하지 않던 외아들의 결혼식날이라 아버지의 마음도 류다를것이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길성의 처와 아버지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왔다. 무슨 재미있는 말을 했는지 아버지가 크게 웃는 소리까지 들려왔으나 일권은 좀처럼 앉은자리에서 일

어설념을 안했다. 좁혀진 공간을 펴지 못하고 조각처럼 앉아있는 그의 마음속엔 정수생각뿐이었다.

(정수가 왜 아직도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끝내 내 부탁을 거절하려는것일까. ...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는가?!...)

생각할수록 일권의 마음은 더더욱 착잡해졌다. 설사 두다리가 다 없다 해도 그는 정수를 자기 일생의 뜻깊은 날에 잊을수 없는 동행자로 곁에 세우고싶었다. 그것은 다만 그 어떤 친구로서의 의리감때문만이 아니었다. 인간적으로 그를 적극 내세워주고 떠받들어주고싶은 심정에서였다.

어제 정수가 길성에게 둘러리를 서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일권의 마음속엔 더 강렬해지는 그에 대한 믿음에 가슴이 뭉클했었다.

그 어떤 외형상 약점이 우리들사이에 무슨 흠이란 말인가. 또 누가 그것을 탓할 사람도 없다. 이미전에 일권의 마음을 다 아는 아버지도 적극 찬성했었다. 그가 우리 집 문지방을 넘다가 넘어지면 어떻고 신랑인 내가 부축한들 어떻단 말인가.

한생의 끝까지 그의 지평이가 되어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다. 길성이라도 그것을 알기에 선뜻 응하지 못했고 억지로라도 당일에 그렇게 하자고 약속되어있었다.

미달이문이 스르륵 열리며 길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 이거 새신랑이 당일날 아침에도 무슨 연구사업을 하나...》

그래도 일권은 툭 불거진 울대뼈만 꿈틀할뿐 아무 응대도 없다.

신중한 그의 속마음을 읽으며 말없이 서있는 길성의 손을 잡아 앉히는 아버지의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비껴있었다.

《아버님, 이 사람 정수가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까요?》

오랜 세월을 두고 아들과 짝패인 두 친구의 마음을 잘 알고있는 아버지였지만 난감한 표정을 짓고 조용히 말했다.

《글쎄 말이네. 새 기술창안이란게 쉽지는 안될테니 잘 안되는가보이. 그러나 정수는 꼭 올거네.》

아버지의 그 말에 힘을 얻었는지 일권이 내려와 앉으며 말했다.

《혹시 그가 와도 둘러리가 필요없게 된 다음에나 올라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 독한 성미에...》

그가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수 있는 사나이란 것을 오랜 생활체험을 통해 잘 알고있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길성의 생각도 착잡하였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만사람의 축복과 시선이 집중되는 오늘같은 날 불편한 몸으로 둘러리가 될수 없다고 의식적으로 시간을 늦잡는것은 아닌지. ...

정수는 언제한번 그 누구와의 약속을 어기거나 요청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남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 성품이 체질화된 그였기에 생각할수록 의문보다도 그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아래방에서는 정수와 길성의 처들이 결혼식상을 차리며 재미있게 속살대며 웃고있었다. 길성이 가져온 꽃들이 큰상우에 놓이고 벽에는 그가 그린 풍경화가 걸려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것에는 관계없는듯 세사람은 까닭모를 허전함을 안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그들의 생각을 들깨우며 전화종소리가 명쾌하게 울렸다. 긴장되어있던 길성이가 먼저 송수화기를 덮치듯 집어들었다.

《박일권동무의 집이 맞습니까?》

귀설지만 점잖은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울려왔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예. 제 정수동무 공장 지배인입니다. 미처 사정을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정수동무가 밤을 새우며 일하다나니 좀 늦어졌습니다. 이제 15분후면 정수동무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아니?!)

송수화기를 내려우며 의아쩍은 표정을 짓고있는 일권에게 길성은 흥분되어 말했다.

《드디어 정수 그 친구가 오네!》

일권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러면서도 정수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새롭게 돋보이는 그의 강직한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

지난밤 미술가 류길성이 박일권의 결혼식을 어떻게 하면 이룰데없이 아름다운 성례식으로 장식할것인가를 두고 자기나름의 생각에 잠겨있을 때 정수는 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있었다.

현대화된 도내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참관까지 하고온 뒤 그에게는 밤낮이 따로 없었다.

그는 자기가 다니는 의료기구공장 주사침작업반의 NC 상태에 있는 공작기계에 먼저 컴퓨터를 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을 위한 수많은 기술적문제들을 완성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던가. ...

그 기간 변형이 간 의족, 그로 하여 오는 동통 ...

하지만 정수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일에만 전념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구멍을 뚫는 공정만 있던 그 기계가 이제는 말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최상의 정밀한 연마, 절단 등 못해낼것이 없는 CNC 기계로 전환된것이다.

그 종합적인 컴퓨터조종시운전을 위해 정수는 달빛마저 사라진 공장길에 오른것이다.

그 길에서 정수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두려리를 서게 된 자신과 그것을 우정 부탁한 일권에 대해, 오랜 세월을 두고 변함없이 깊은 우정을 지니고있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였다.

...

탄광개발지에 돌격대로 나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다리에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창공을 날던 새가 날개부러진듯 한 상실의 아픔 속에 고통으로 모태겨지는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마가을바람에 락엽이 흩날리던 어느날도 그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덜어보려는 생각으로 일권의 집을 찾았었다.

일권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며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고있었다.

방에서 홀로 일권을 기다리던 정수는 키낮은 책상에 수북이 쌓여있는 많은 책들에 눈길이 갔다. 시병원 의사로 일하는 일권이 요즘 무슨 학위론문을 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저렇게 많은 책을 보며 자료작업을 해야 하는가 하는 호기심이 그를 책상앞으로 이끌었다.

책무지를 뒤적이던 그는 우연히 파란 뚜껑을 한 책 하나를 펼쳐들었다. 거기에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서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이며 생활상의 자책과 뉘우침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며 친우들과 레의를 지키는데서 늘 보게 되는 평범한 일들까지 심중하게 분석되어 썩여있었다.

깊은 생각없이 책을 읽어내려가던 정수는 저절로 감동이 오는것을 느끼며 바투 책을 끌어당겼다.

《2004년 7월 X일

같은 약초라도 남쪽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북쪽지방의 약초를 쓰면 그 효력이 더 높아진다

는것을 론증하는 자료들이 있는 이상 나는 그것을 확증해야 한다.

지금 내가 담당한 환자, 나라의 전력을 절약하기 위한 새로운 착상을 시험하다 부상당한 그 청년기술자가 치료에서 전진이 굼뜨다.

... 나는 길을 떠났다.

비가 내리고있었다. 아버님이 꾸려준 밥판을 들고 떠나는 나에게는 일찌기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새삼스레 갈마들면서 왜선지 마음이 쓸쓸해졌다.

고향도시였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는 길이어서 바래워주는 사람도 없었다.

역사앞에 당도하여 외로운 잡념을 털어버리려 머리를 드는 순간 아, 역청사 맨우에 조명이 밝게 비쳐진 가운데서 해빛처럼 웃으시는 수령님의 영상이 나를 굽어보고계시지 않는가.

마치도 길 떠나는 자식을 바래주시는 아버이를 뵈옵는 심정에 저절로 마음이 숭엄해졌다.

렬차에 올라서도 나의 뇌리에는 다정히 말씀하시는듯 한 아버지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 동무가 떠나는 길은 좋은 길이다. 인민을 위한 진정한 복무의 길이지. ...

그이의 믿음어린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는 먼 려행길의 피로도 몰랐다.

다음날 려차는 우중충하니 솟은 산발이 거뭇거뭇하게 바라보이는 어느 깊은 산간역에 멎었다.

떠날 때부터 내리던 비는 계속 내리고있었다. 려차에서 내린 나는 배낭을 추켜올리려다가 또다시 여기서도 나를 마중하시는듯 환히 웃고계시는 자애로운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게 되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그렇게 배웅해주시고 뜨겁게 마중해주고계시는 아버지수령님!

이땅 어디서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그이의 뜨거운 숨결을 마음속에 깊이깊이 간직하게 하여주신 고마우신 우리 장군님!

이 아들은 인민을 위한 이런 길을 더 많이, 더 역세게 걸어가겠습니다. ...》

글줄을 읽어내려가는 정수의 가슴이 몽클해졌다.

오늘도 아버지수령님과 심장의 대화를 나누며 자신을 다잡을줄 아는 일권의 충의와 참다운 인간됨이 정수의 마음속 종아리를 치는것 같았다.

정수 나는 나 개인의 불행을 불안고 좌절감에 몸부림치고있는데 일권이 너는 아버지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 마음속 진정을 아뢰이며 살고있구나, 어쩌면 너의 정신세계는 그토록...

《언제 왔나?》

정수가 놀라서 돌아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일권이 턱을 문지르며 웃고있었다.

일권은 마치 정수의 속내를 들여다본듯이 웃음을 띄운채 말했다.

《정수, 난 자네를 의심해본적이 없네. 수많은 동지들을 위해 서슴없이 몸을 내대던 그 순간의 정수를 생각하며 나도 동지들을 위해 더 헌신하려는 마음을 다잡군 하네.》

어둠이 깃든 창밖을 내다보며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있던 정수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제 심정을 터놓았다.

《그런데 난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길에서 동정 같은것을 느낄 때면 솔직히 내가 사회와 집단에서 점점 멀어지는것 같은게 막 괴롭구만. ...

사실 난 그 고통을 피하려고 웃고있었네.》

정수를 지켜보던 일권의 입에서 묵중한 웨침이 울려나왔다.

《여, 자넨 그래 팔과 다리를 잃고 턱으로 증기압철을 누르는 영웅의 군상앞에서도 동정이 앞섰더랬나! 인간이 정신력을 잃으면 남는것이 무엇이겠나!》

정수는 그날 날카롭고 예리한 충고속에 깃들여있는 일권의 뜨거운 진정이 더없이 고마웠다.

그리고 자신이 그 어떤 육체적조건으로 나약해질가봐 더 가까이 자기의 결으로 끌어안으려는 일권의 마음을 이번 돌리리선정을 놓고도 깊이 느낄수 있었다.

×

마당에서 《온다!》하는 환성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정수를 앞세우고 지배인이 들어섰다.

길성은 더없이 기쁜듯 달려나가 정수를 맞아들이며 레의 그 습관으로 만나면 그렇게 하듯 주먹으로 정수의 가슴팍을 쿵 찼었다.

《이 친구야, 내 속이 새까맣게 재가 됐네.》

정수는 《일권이, 길성이, 정말 미안하네.》이 한마디만을 하고 어쭙은 웃음을 짓고 서있었다.

지배인이 너무죽한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 말하였다.

《제가 일을 잘못해서 정수동무가 늦어졌습니다. 제가 사죄합니다. 실은 이 돌리리 정수동무가 의사인 신랑에게 오늘 기어이 이것을 기념품으로 쥐야 한다면 좀 늦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배인은 들고있던 네모진 철박을 펼쳐보이었다. 그안에는 여직 사람들이 본적 없는 머리칼만큼 가는 주사바늘이 꽂혀있는 주사기들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것은 정수네 공장에서 처음으로 만든 CNC 기계의 첫 제품이었다.

무겁게 받아안은 일권의 마음속엔 많은 말이 담긴 뜨거운 사랑과 고무를 받아안는것 같았다.

일권은 정수와 지배인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였다. 그것은 의료기계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돌파한 그들에 대한 존경과 진정의 감사이면서도 정수의 높은 정신력에 대한 찬탄의 인사이기도 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인간이 자기를 이기고 사는 강한 정신력을 계속 지니고있길 바래서 정수동무에게 돌리리를 서줄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괜한 생각이였습니다. 정수동무는 내앞에 높이 서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천만군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으로 추동되고 발전하는 벽찬 우리 시대가 안겨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 뜻깊은 결혼식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수소리가 짹자그르 울렸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한떨기의 백합꽃같은 새색시결에 의젓한 신랑과 함께 서있는 정수의 얼굴에는 한없는 기쁨과 자부심이 한껏 비껴있었다.

...

결혼식사진을 찍던 일행이 느티나무밑에 와섰다. 그 어떤 인연인지 그들은 말없이도 이곳에 오면 서로가 눈빛을 보고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줄 알았다.

모두 함께 사진을 찍은 뒤 그들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한모습으로 꽃같이 서서 드넓은 아지들을 펼치고 포용할듯 설레이는 고향의 나무!

서늘한 그늘을 펼치고 림름하게 서있는 느티나무가 마치도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라며 서로의 마음 변함없이 성장하고있는 이들을 굽어보며 진정할수 없는 기쁨에 설레이는것 같았다.

나는 병사출신 농민이다

김경석

가없는 들
오곡을 움티우고 자래우는
흔하디 흔한 흙이라도
그 한줌 때없이 두손에 받쳐들고
전호가의 흙처럼 소중히 쓰다듬는
나는 병사출신 농민이다

보습날이 닿지 못한 포전가녁
누군가 스쳐버린 그 자리에
한알두알 씨앗을 묻으며
그 한치 땅을 지켜 오늘도
땀만이 아닌 소망도 함께 심는
나는 병사출신 농민이다

한줌의 흙도
날알로 조국을 섬기는
내 삶처럼 여기는 마음
한포기 곡식 한기장 보퉁에도
집집의 푸짐한 밥상머리에 피어나는 웃음꽃
밝은 얼굴들이 비끼여있어
온넛을 두고 사는 별이여

부드러운 이랑에
돌아나는 김을
뿌리채 들춰내며 맞이하던 포전머리 새벽노을은
방선의 하늘가를 떠올려온듯
내 눈빛에 가슴에 환희로왔다

알찬 이삭 뽑아올린 포기포기들이
마음놓고 춤바다도 펼치라
새로 넓힌 수로쪽에 장석을 입혀갈 때
튼튼히 뻗어가던 제방은
다지고 또 다져 천년요새로 쌓던
두고온 참호와 다름없었더라

눈비에 젖고
별에 그을며
전투에서 전투로 이어가는 사시절로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농업전선을 지켜가는
내 삶의 전역인 이 별이 있어
전호속의 총대여 너는 더 굳건하고
인민의 웃음꽃이여 너는 나날이
만발한 화원으로 눈부시거니

초소길에 드림없던 그 시절의 걸음새로
농업전선 포전길에
나는 한치의 탈선도 모르리라
선참으로 타고앉아 기발을 쫓던 고지들처럼
이 별에 풍요한 가을을 펼쳐가리라

멀고 험한 전선길에 차를 멈춰세우시고
이 별도 찾아주실 우리 장군님
중대에 모시였던 그날처럼 기뻐하시게
그 소원 그 행복을 대지우에 꽃피우며
애오라지 복무의 한생을 이어가는
오, 나는 병사출신 농민이다!

의인소설 《국순전》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12세기말에 활동한 림춘이 창작한 《국순전》은 술을 의인화하여 나라의 정사를 망치게 하는 간사한 신하와 무능력한 봉건군주, 봉건통치배들의 그릇된 인재등용정책을 풍자비판한 의인전기체소설이다.

작품에서 주인공 국순은 술을 의인화한 간사한 신하의 전형이다.

주인공 국순은 원래 《처음부터 벼슬할 궁리를 아니하고 숨어》 살면서 백성들에게 《의젓하고 깨끗한 덕》을 권하던 《모》(보리)의 후손이었다.

국순은 도량이 넓고도 깊어 호방하기가 만경창

파갈았으므로 공경대부로부터 신선술을 배우는 사람, 시골사람, 목동, 지어 외국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를 《국처사》라 부르며 사랑하였고 연회에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결같이 쓸쓸해하였다.

그러나 그는 벼슬길에 나서면서부터 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출세의 길을 꿈꾸었으며 높은 벼슬에 오르자 임금을 좌지우지하는 간사한 신하로 변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국순의 성격적측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국순이 이로부터 일을 봄에 있어서 어진이를 사귀고 빈객을 잘 응접하며 늙은이를 잘 공양하였다.

또한 임금을 섬기고 신과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처리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벌였을 때 순이 궁인들과 함께 모시게 되었으니 이는 가까운 신하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이로부터 임금이 늘 술에 취하여 나라정사를 돌보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이 입을 다물고 도무지 말을 아니하므로 레법을 아는 선비는 국순을 원썬처럼 미워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높은 벼슬에 오른 국순은 겉으로는 어진이를 사귀고 빈객을 잘 대하며 늙은이를 잘 봉양하는 등 어질고 레절이 있는것처럼 보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생활은 이와 판이하다.

작품에서는 국순의 성격적본질을 점점 더 까밝히는데로 이야기를 끌고간다.

국순이 임금을 유혹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는 임금이 자기를 감싸주는 기회를 리용하여 막대한 퇴물과 재산을 긁어모아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로 나간다. 그러므로 그를 두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분분하며 나중에는 임금이 이것을 캐묻게 된다. 하지만 권력을 손에 쥔 국순은 임금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사람마다 한가지 일을 전업하기를 즐겨하는데 어떤 사람은 글읽기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좋아하는것처럼 자기는 돈 모으는 일을 즐겨한다고 뼈젓이 대답한다. 암매한 임금은 국순의 이 말을 듣고서도 옳고 그른것을 식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국순의 죄행을 따지고 처벌한다. 하여 국순은 정계에서 쫓겨나 하루저녁에 죽고만다.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히는데서 기본은 국순의 형상이다. 국순은 음흉하고 교활한 술책으로 조정의 권력을 틀어쥐고 자기의 리속을 채우면서 왕실을 어지럽힌다. 뿐만아니라 암매한 왕을 꼬드겨 정사를 바로 못하게 하며 결국은 국력이 약화되어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망할수 있게 하는 부정인물, 간사한 신하의 전형이다.

조선속담

- 나라가 망하면 충신이 욕을 본다
-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다
-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 민심이 천심

작품에서는 부정적주인공 국순의 성격적특성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이야기의 발전과정에 점차적으로 밝히고있다. 국순의 부정적성격을 생활론리에 따라 밝혀내는것, 이것은 작가의 재치있는 예술적기교의 일단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이 작품의 예술적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국순의 부정적성격은 작품에 등장하는 긍정인물들과의 대립속에서 뚜렷이 부각된다.

이처럼 《국순전》은 의인화된 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주인공 국순의 형상을 통하여 간사한 신하들을 조정에서 제때에 내쫓고 처단해야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을수 있다는 작가의 립장을 대변하고있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작가의 세계관상 제한성이 표현되고있다.

그것은 작품의 마지막에 력사를 기록하는 신하의 이름을 빌어 《국씨의 선조가 백성에게 공적이 있으며》, 《꽃다운 덕성이 하늘에 사무쳐》 그 후손들도 《선조의 유풍》을 따른다는것으로 평가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작품은 예리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의인화된 부정적주인공의 성격을 발전속에서 재치있게 그린것으로 하여 당시의 의인전기체소설발생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을뿐만아니라 후기 술을 의인화한 의인소설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뿐만아니라 《국순전》이 나온 이후 사람의 마음을 의인화한 일련의 의인소설(림제의 《수성지》에서 국양장군, 정태제의 《천군연의》에서 환백장군, 정창익의 《천군실록》에서 국씨형제들)들에서 술이 중요한 인물로 형상되었다는것은 이 작품이 후기의 의인소설발전에 중요한 창작적경험을 남겨놓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김영성

나라와 인민, 향토의 귀중함

- 백성을 멀리하면 나라가 망한다
- 고기는 제 놀던 물이 좋다고 한다
- 제 보금자리 사랑할줄 모르는 새(는) 없다
- 까마귀도 내 땅 까마귀라면 반갑다

고골리와 중편소설 《따라스 불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선행한 사실주의문학보다 높은 전형화의 수준에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지만 사회악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는데 그치고 그 사회적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올바른 출로를 제시하지 못한다.》

니콜라이 와실리에비츠 고골리(1809—1852)는 로씨야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형성과 산문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작가의 한사람이다.

우크라이나의 푼따바현 미르고로드의 지주가정에서 태어난 고골리는 1828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썬크트—페테르부르그에 가서 관청의 하급관리로, 썬크트—페테르부르그종합대학 조교수로 있다가 1830년대 중엽부터 전문작가가 되었다.

그는 처음에 소설집 《지간까근처마을의 밤이야기》(1831—1832)를 내놓아 예리한 풍자적수법과 결합된 사실주의적경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 후 작가는 1835년에 시골지주들의 속되고 무의미한 생활을 폭로한 《고풍의 지주들》과 《이완 이와노비츠와 이완 니끼포로비츠가 싸운 이야기》, 우크라이나인민의 반침략투쟁을 묘사한 역사소설 《따라스 불바》 등을 묶은 소설집 《미르고로드》와 도시관리들의 관료주의와 무권리한 하층인간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준 《넵스끼대통로》, 《초상화》, 《미치광이의 수기》, 《외투》 등이 수록된 소설집 《아라베스끼》를 내놓았다.

또한 어느 한 지방도시에서 벌어진 가짜검찰관 소동을 통하여 19세기 관료주의적인 로씨야사회제도의 부패한 모습과 추악성을 풍자적으로 폭로한 희곡 《검찰관》(1836)을 창작하였다.

고골리는 1836년에 로씨야를 떠나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1835년부터 쓰기 시작한 장편소설 《죽은 넛》의 창작에 전념하였다. 그리하여 1841년에 로씨야로 돌아와 《죽은 넛》 1부(1842)를 내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작가의 세계관에서는 조국현실에 대한 물리해와 반동적인 사상조류의 악영향으로 하여 보수적성격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작가는 인민대중의 반봉건투쟁에 공포를 느끼고 농노제도의 존재를 불가피한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군주통치밑에서의 가부장적생활을 리상화하고 귀족지주들을 비롯한 상류계급을 종교적으로 교양함으로써 부패몰락하여가는 로씨야봉건사회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립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관적결함은 미완성작품인 《죽은 넛》 2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작가 자신은 사상적모순속에서 고민하다가 사망하였다.

고골리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예리한 풍자적 필

치로써 농노지주들의 속물적근성과 몰락한 농촌생활, 부패타락한 도시생활을 전면적으로 비판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당대사회에 현존하고있는 막대한 농노전제적현실을 극복하고 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제나름대로의 방도를 모색하면서 과거의 영웅들에 대한 찬양을 통하여 애국주의사상을 힘있게 고취하였다.

중편소설 《따라스 불바》가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1835년에 창작되어 1842년 작가의 《저작집》이나올 때까지 여러차례 수정가필된 이 작품은 16세기 우크라이나땅을 탐내던 폴스까귀족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크라이나까자크들 특히 자뽀로지에지방 까자크들의 애국적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일생을 우크라이나의 해방투쟁에 바쳐온 까자크련대장 따라스 불바는 끼예브신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두 아들 오스파프와 안드리이가 까자크답게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무사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단련시킬 목적으로 까자크군대의 집결처인 자뽀로지에 세치로 데려간다. 여기서 따라스 불바는 까자크들을 멀리하며 그들의 종교를 모욕하는 폴스까귀족들을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세치에 집결된 까자크들을 총동원하여 폴스까로 쳐들어가 총독이 도사리고있는 두브노성시를 공격한다. 이 전투에서 오스파프는 완강한 투지와 용감성을 발휘하여 분영대장으로 승진되지만 안드리이는 끼예브에서 공부할 때부터 사랑하여온 폴스까총독의 딸이 포위당한 성시안에서 굶어죽을 위협에 직면하고있다는것을 알고 먹을것을 가지고 그 녀자를 찾아가 그앞에 무릎을 꿇는다. 오스파프는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적들에게 체포되어 사형을 당한다.

그후 따라스 불바는 자기 아들과 전우들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또다시 까자크들을 거느리고 폴스까귀족들을 공격하며 거듭되는 전투끝에 적에게 체포되어 화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 작품에서는 이렇게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크라이나까자크들의 애국정신과 용감성을 보여주고 자기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며 개인보다 조국과 겨레들을, 생명보다 자유를 더 귀중히 여긴 선조들을 찬양하였다.

따라스 불바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적특질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높은 애국주의정신이다. 따라스 불바는 아들들에게 사나이로서, 까자크로서 마음의 보물로 가슴에 간직해야 할것은 드넓은 벌판과 훌륭한 말이고 진짜어머니는 원수를 베이는 장검이며 진정한 학문은 신학교에서가

아니라 까자크들의 애국심과 기개가 드높이 과시되는 자뵤로지에서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파라스 불바의 애국주의적성격은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조국과 전우들을 배반한 반역자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에 안반침되어 더욱 강화된것으로 표현되고있다.

한편 작품에서는 파라스 불바와 오스파프에게 안드리이와 같은 반역자의 형상을 날카롭게 대조시키는 방법으로 작품의 애국주의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켰다.

리성보다 정열에 더 깊이 포로되어있던 안드리이는 자기의 감정과 정열이상으로 더 귀중한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조국도, 부모형제도, 까자크로서의 의무도 고민없이 집어던지고마는 반역자, 패덕한이였다.

소설의 인물형상들을 통하여 작가는 과거의 역사에서 발휘한 로씨야인민의 애국주의정신을 높이 찬양하고 그것이 로씨야사회발전의 기본추동력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이와 함께 두브노시를 포위했던 까자크부대들이 두편으로 나뉘여가는 장면, 진퇴량난의 위기에빠진 뿔스까총사령관이 국왕과 정부의 명의로 화의를 약속하자 까자크부대들이 그것을 받아들

이는 장면 등을 통하여 적과의 싸움에서 대오의 통일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중요하게는 원쑤와는 그 어떤 양보도 있어서는 안되며 오직 무력으로 격파해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중편소설 《파라스 불바》에서 묘사된 인물이나 정황들은 대체로 작가의 허구에 기초한 예술적형상들이며 주인공들은 당시 우크라이나인민들의 성격적특질들을 일반화한 성격으로 창조되였다. 또한 작품은 우크라이나까자크들의 반침략애국투쟁을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으로 그리고있으며 사실주의적형상에 랑만주의적수법을 밀접히 침투시키고 인민창작에서 볼수 있는 통속적인 표현들과 예술적수법들이 적극 리용되고있다.

중편소설 《파라스 불바》는 형상의 중심에 하층까자크대중을 세우지 못하고 반침략투쟁을 반봉건투쟁과 결합시키지 못하였으며 과거인간들의 성격을 지나치게 리상화한것과 같은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작품은 자기 인민의 자랑찬 투쟁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사람들속에서 애국주의정신을 고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김은숙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4호 (루계 제762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0(2011)년 4월 1일
발 행	주 체 100(2011)년 4월 5일

ㄱ-16101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